

UR 이후 주요 농산물 수출 증대방안

해외시장부문

최 세 균(책임연구원)
김 동 민(책임연구원)
권 오 복(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지금까지의 國際化·開放化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비관세장벽이 關稅化되고, 각국의 농업에 대한 국내 보조와 수출 보조가 감축되어 農業部門의 국제교역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개방화의 흐름은 한국의 농업부문에다 交易의 增大를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수입이 제한되어 오던 일부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겠지만, 그 반면에 輸出 기회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한국의 농업부문은 이러한 開放化의 과정에서 급속한 生産 및 構造調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농산물 수출은 전략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나름대로 특유하고 우수한 農産物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8억 달러 상당의 농축산물을 수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농업이 수출산업으로 정착하고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生産性 向上, 新品種 開發, 海外市場 開拓 등에 대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요 輸出 有望品目에 대한 해외시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파악하기 위하여 해외 소비동향, 교역, 수입제도, 수출전망, 그리고 수출 증대방안 등을 주로 연구하였다.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1991. 12.

院 長 許 信 行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방법 및 범위	2
제 2 장 우리 나라 농림수산물 수출 추이와 구조 분석	
1. 농림수산물 수출 추이	4
2. 농림수산물 수출시장 구조 분석	12
제 3 장 UR 농산물협상 타결과 농산물 수출	
1. UR 농산물협상의 추이와 타결 전망	19
2. UR 농산물협상 타결이 농산물 수출에 주는 함축성	25
제 4 장 품목별 수출 증대방안	
1. 한국의 수출유망 농산물	28
2. 품목별 수출 증대방안	31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43

표 목 차

제 2 장

표 2- 1 우리 나라 농림수산물 수출 추이	5
표 2- 2 품목별 수출물량 및 금액의 연평균 성장률, 1977~90	7
표 2- 3 농림수산물 품목별 수출 추세 분석	8
표 2- 4 농림수산물 수출의 1980년대 전반과 후반의 실질금액 증가율 상관관계	10
표 2- 5 농수산물 수출성장요인 분석(유별)	13
표 2- 6 우리 나라 주요 시장별 수출 추이, 1976~88	14
표 2- 7 우리 나라 농수산물 총수출의 이전확률, 1976~88	16
표 2- 8 우리 나라 농산물 수출의 이전확률, 1976~88	16
표 2- 9 우리 나라 수산물 수출의 이전확률, 1976~88	16
표 2-10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 이전확률, 1976~88	17

제 4 장

표 4- 1 한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	29
표 4- 2 품목별 경쟁력	30
표 4- 3 한국의 사과 생산 및 가격 동향	32
표 4- 4 주요 사과 생산국별 생산량	33
표 4- 5 주요 사과 수입국별 수입 현황	34
표 4- 6 한국의 국별 사과 수출 현황	36
표 4- 7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과채류	40
표 4- 8 주요 사과 수출국의 수출가격, 1989	42
표 4- 9 한국산 사과의 시장별 가격 경쟁력	43

표 4-10 한국의 배 생산 및 가격 동향.....	49
표 4-11 주요 배 생산국별 생산량.....	50
표 4-12 주요 배 수입국의 수입 현황.....	52
표 4-13 한국의 국별 배 수출 현황.....	54
표 4-14 주요 배 수출국의 수출가격, 1989	55
표 4-15 한국산 배의 시장별 가격 경쟁력.....	56
표 4-16 한국의 시장별 배 수출 감소.....	59
표 4-17 배 수출의 이전확률.....	59
표 4-18 한국의 밀감 생산 및 가격 동향.....	61
표 4-19 주요 밀감 생산국별 생산량.....	62
표 4-20 주요 밀감 수출국의 수출 실적.....	63
표 4-21 싱가포르시장에서의 한국 밀감의 가격 경쟁력.....	67
표 4-22 캐나다시장에서의 한국 밀감의 가격 경쟁력.....	68
표 4-23 한국의 화훼류 생산 현황.....	70
표 4-24 화훼류 주요 생산국별 생산 현황, 1988.....	71
표 4-25 주요 화훼류 생산국별 교역 추이.....	72
표 4-26 한국의 국별 화훼류 수출 현황.....	73
표 4-27 일본의 국별 절화류 수입 실적.....	74
표 4-28 네델란드의 절화류 수입 실적.....	76
표 4-29 미국의 주요 절화류 수입 실적.....	77
표 4-30 캐나다의 국별 절화류 수입 실적.....	78
표 4-31 한국산 절화의 가격경쟁력, 1989.....	79
표 4-32 돼지고기의 수급 추이.....	82
표 4-33 주요 국가별 돼지고기 생산량.....	84
표 4-34 일본의 돼지 사육 현황.....	86
표 4-35 일본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87
표 4-36 연도별 및 수입선별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추이.....	88
표 4-37 주요국별 생체 kg당 비육돈 생산비 비교.....	92
표 4-38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출 지원체제.....	93
표 4-39 인삼 및 인삼제품의 수출 추이.....	101
표 4-40 주요 수출선별 백삼, 홍삼의 수출 추이.....	102

표 4-41 연도별 및 주요 수출선별 인삼정 수출 추이	103
표 4-42 연도별 및 주요 수출선별 인삼차의 수출 추이	104
표 4-43 주요 수입선별 일본의 인삼 수입 추이	105
표 4-44 일본시장에서 인삼제품 가격, 1988	108
표 4-45 대만 인삼 관세율표	111
표 4-46 대만의 홍삼 소비자 가격	111
표 4-47 홍콩의 인삼류 수출입 추이	112
표 4-48 홍콩시장에서 원산지별 인삼의 품질 경쟁력	113
표 4-49 홍콩시장의 홍삼 소비자가격	114
표 4-50 미국의 인삼근 수입 추이	115
표 4-51 미국의 인삼차 수입 통계	116
표 4-52 미국의 인삼류 소비자가격(홍삼)	117
표 4-53 미국의 인삼제품 소비자가격	117
표 4-54 미국시장에서 원산지별 인삼의 품질 경쟁력 비교	118
표 4-55 밤 생산 및 수출 추이	121
표 4-56 한국의 밤 수출 동향	122
표 4-57 세계의 밤 생산 동향	122
표 4-58 주요국별 밤의 수출 동향, 1989	123
표 4-59 주요국별 밤의 수입 현황, 1989	124
표 4-60 형태별 일본의 밤 수입 동향, 1990	125
표 4-61 연도별 미국의 밤 수입 추이	127
표 4-62 원산지별 밤의 평균 수입가격	128
표 4-63 연도별 송이버섯 생산량	132
표 4-64 연도별 송이 수출 추이	132
표 4-65 건표고버섯 수출 추이	135
표 4-66 일본의 표고버섯 수출 현황	137
표 4-67 일본의 표고버섯 수입 현황	138
표 4-68 홍콩의 표고버섯 수입 현황	139
표 4-69 미국의 건버섯 수입 추이	141
표 4-70 원산지별 건버섯의 kg당 수입가격	141

부표 1 우리 나라 농산물 수출 지역집중도(1990년도 기준) ...	149
부표 2 우리 나라 수산물 수출 지역집중도(1990년도 기준) ...	150
부표 3 주요 사과 수출국별 수출 현황	152
부표 4 주요 배 수출국별 수출 현황	153
부표 5 국별 감귤류(Citrus) 수입 현황	154
부표 6 국별 감귤류(Citrus) 수출 현황	155

그림 목 차

제 4 장

그림 4-1 미국의 식물 수입허가 및 통관절차	39
그림 4-2 일본의 인삼류 수입절차	107
그림 4-3 일본의 인삼제품 판매경로(배치판매방식)	108
그림 4-4 대만의 인삼류 수입절차(한약품용)	110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세계경제는 급속한 개방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전반에 걸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개방화의 흐름은 한국 농업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수입이 제한되어 오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은 농업의 구조조정, 특히 생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한국 농업은 최소 농업 유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산업으로의 발전 등의 기본적 목표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화의 과정에서 농업 부문에 투입되어 있던 생산요소는 보다 효율적인 생산부문으로 이동,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방화와 그로 인한 생산조정 과정에서 농업부문 내에서도 어느 품목은 생산이 감소하고, 어느 품목은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생산이 감소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생산이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생산이 증가하는 일부 품목에서는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시장에 대한 수요의 창출로 해결되어야 한다. 해외시장에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우리의 생산능력,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등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며, 수입국의 제도와 소비자 기호가 파악되어야 한다. 수출 경쟁국과 그들의 생산 및 판매전략도 파악되어야 한다. 결국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유통,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국과 수출국의 해외정보가 면밀히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연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잠재적)과 이들 수입국의 수입제도 및 수출 경쟁국 분석에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의 농산물 수출구조 및 문제점 분석
- (2) 품목별 주요 수입국의 수입제도 및 소비성향 분석
- (3) 품목별 주요 수출 경쟁국 파악
- (4)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및 수출 가능성 분석
- (5) 수출 증대방안 제시

3. 연구방법 및 범위

본연구는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수출 증대방안을 분석하였다. 해외정보에 관한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해외지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집에 주로 의존하였다. 계량적 분석으로는 마코브 연쇄모형과 계량경제모형이 이용되었으며, 이들 방법을 통해 한국 농산물 수출의 이진확률과 수출수요를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는 농산물에 국한하였다. 농산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이 유망하다고 판단하거나, 수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입국과 경쟁국은 품목별로 주요 10

개국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품목은 사과, 배, 감귤, 화훼류, 돼지고기, 인삼, 밤, 버섯 등 8개 품목이며, 해외시장은 주로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 EC, 미국, 캐나다 등이다.

제 2 장

우리 나라 농림수산물 수출 추이와 구조 분석

본장에서는 우리 나라 농림수산물 수출 추이와 현황 분석을 통해 농림수산물 수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연구의 범위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본장의 분석대상을 농산물에만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농산물 수출은 농림수산물 수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 현황은 농림수산물 수출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농림수산물 수출 전반에 대해 언급하고, 본연구범위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농림수산물 수출 추이

가. 농림수산물 수출 비중

우리 나라의 총수출액은 공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힘입어 1970년 8억불에서 1990년 650억불로 78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총수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30%, 1980년대에는 16%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반면에 성장전략에서 제외되어 온 농림수산업은 1970년대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8%, 1980년대에는 4.5%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수출 증가율의 격차로 인해 총수출에서 농림수산업 수출 비중은 1970년 32%, 1980년 10%, 1990년 4.5%로 급격히 감소하여 수출산업에서 농림수산물의 그 중요성이 극히 낮아지고 있다<표 2-1>.

표 2-1 우리 나라 농림수산물 수출 추이

단위: 백만 \$

	1970	1975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연평균 72.73 -80.81	증가율 80.81 -89.90
총 수출(A)	835	5,081	17,505	30,283	34,714	47,281	60,696	62,377	65,016	29.7	16.0
농림수산물(B)	218	948	1,930	1,543	2,044	2,610	3,157	3,132	2,920	18.2	4.5
농축산물(C)	25	255	541	388	429	529	705	781	795	30.0	4.0
곡물류	1	0.2	1	2	3	9	2	4	4	-10.8	8.0
채소류	0.2	5	24	13	12	17	14	11	10	54.3	-8.1
과실류	1	3	15	6	12	25	46	44	43	28.6	12.6
축산물	0.3	36	26	25	23	38	77	99	68	17.2	14.3
조제식품	6	32	51	61	76	99	178	197	192	13.5	16.0
동식물성유지	0	1	9	2	1	2	3	2	1	41.6	-19.9
식물성원재료	-	4	16	21	20	25	15	20	24	19.4	3.2
동물사료	0.1	2	7	0.4	1	1	2	3	5	30.0	-1.3
기타식품	16	172	392	258	281	313	368	401	448	38.6	0.4
임산물(D)	110	294	629	264	333	461	541	661	610	10.9	0.1
목재류	104	256	472	78	97	129	116	138	126	7.8	-13.2
석재	-	12	58	84	122	166	235	15	15	53.8	-14.7
벽지	4	12	35	46	13	15	20	320	185	27.8	26.9
산림부산물	2	14	64	86	101	151	170	188	184	26.5	13.6
수산물(E)	83	399	760	891	1,282	1,620	1,911	1,690	1,515	20.4	7.4
원양어획물	38	193	352	328	465	571	289	334	295	23.1	-2.4
활선어	11	62	128	155	254	369	601	524	428	17.5	14.6
냉동수산물	6	59	103	124	165	234	414	289	249	22.1	10.6
해조류	17	30	86	97	108	128	114	135	128	20.3	2.1
수산식품	0.4	10	28	55	72	95	392	330	326	22.5	29.1
기타수산물	11	55	63	132	218	223	101	78	89	12.0	2.9
B/A (%)	32	18	10	4.6	5.9	5.5	5.2	5.0	4.5		
C/B (%)	11	27	28	25	21	20	22	25	27		
D/B (%)	50	31	33	17	16	18	17	21	21		
E/B (%)	39	42	39	58	63	62	61	54	52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주요통계」, 각년도.

한편 농림수산물 수출에서 각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0년에 임산물이 50%, 수산물이 40%, 농산물이 10%이었으나 1980년에 임산물이 약 30%, 수산물 약 40%, 농산물이 약 30%로 임산물 비중이 줄고 농산물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수산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농림수산물 수출의 약 50~60%를 차지함으로써 농림수산물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으로의 수출 호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특히, 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인삼제품을 비롯한 기호식품의 수출 증가와 조제식품의 수출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농림수산물 수출 추세를 류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에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채소류(54.3%), 동물성 유지(41.6%), 석재(53.8%), 기호식품(38.6%) 등과 같이 1차상품이었으나 1980년대에는 이들 1차상품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산식품(29.15%), 벽지(26.9%), 조제식품(16%) 등과 같이 가공품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농림수산물 수출 비중에서 1차상품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가공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품목별 수출 추이

여기에서는 농림수산물 품목별 수출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 나라 농림수산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45개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량과 수출액의 증가율을 대비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각 품목별 무역조건의 변화¹⁾와 수출의 일관성을 살펴본다(표 2-2, 2-3).

1) ① 무역조건이 개선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dot{R}-\dot{Q}$
 $= \dot{P}-\dot{I} > 0$ 일 때

② 무역조건이 악화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dot{R}-\dot{Q}$
 $= \dot{P}-\dot{I} < 0$ 일 때

③ 명목 수출단가마저도 하락하는 품목의 경우는
 $\dot{R}-\dot{Q}+\dot{I}=\dot{P} < 0$ 일 때이다.

여기서 $\dot{R}$: 실질수출액 증가율 $\dot{Q}$: 수출량 증가율
 $\dot{P}$: 명목수출단가 $\dot{I}$: 물가지수를 나타낸다.

표 2-2 품목별 수출물량 및 금액의 연평균 성장률, 1977~90

구 분	시간변수에 대한 Coefficient			성장률(g) ¹⁾		
	수 량	명목금액 ²⁾	실질금액 ³⁾	수 량	명목금액	실질금액
1. 갯지렁이	-0.031**	0.079**	0.017*	-0.031**	0.082**	0.017**
2. 돼지고기	0.280	0.394*	0.333*	0.323	0.483*	0.395*
3. 면양고기	-0.017	0.017	-0.044	-0.017	0.017	-0.043
4. 삼치(신선냉장)	-0.117**	0.036*	-0.026	-0.110**	0.037*	-0.026
5. 삼치(냉동)	0.137**	0.246**	0.185**	0.147**	0.279**	0.203**
6. 어란	0.157**	0.230**	-0.169**	0.170**	0.259**	0.184**
7. 어류의 피레트	0.150**	0.244**	0.183**	0.162**	0.276**	0.201**
8. 청어(염장)	0.027	0.287	0.225	0.027	0.332	0.252
9. 새우살(냉동)	-0.001	0.073	0.012	-0.001	0.076	0.012
10. 게	0.050*	0.156**	0.094**	0.051*	0.169**	0.099**
11. 굴(신선냉장)	0.217**	0.295**	0.233**	0.242**	0.343**	0.262**
12. 오징어	-0.025	0.055*	-0.006	-0.025	0.057*	-0.006
13. 새조개(냉동)	0.122*	0.205**	0.143**	0.130*	0.228**	0.154**
14. 개이지살(냉동)	0.048	0.148**	0.087*	0.049	0.160**	0.091*
15. 양파(신선냉동)	-0.191*	-0.117	-0.179	-0.174*	-0.110	-0.164
16. 양배추	-0.036	0.057	-0.004	-0.035	0.059	-0.004
17. 송이버섯(신선냉동)	0.064*	0.236**	0.175**	0.066*	0.266**	0.191**
18. 표고버섯(건조)	0.049*	0.128**	0.067*	0.050*	0.137**	0.069*
19. 간밤	0.386	0.469	0.408	0.471	0.598	0.504
20. 감귤(신선, 건조)	0.696**	0.746**	0.684**	1.006**	1.109**	0.982**
21. 사과(신선)	0.333**	0.463**	0.401**	0.395**	0.589**	0.493**
22. 배(신선)	0.033	0.156**	0.095*	0.034	0.169**	0.100*
23. 딸기	-0.153	-0.031	-0.092	-0.142	-0.031	-0.088
24. 채소종자	0.006	0.193**	0.131**	0.006	0.213**	0.140**
25. 백삼(본삼)	0.089*	0.125**	0.064*	0.093*	0.133**	0.066*
26. 홍삼(본삼)	0.084*	0.161**	0.100**	0.088*	0.175**	0.105**
27. 미역	0.028**	0.156**	0.097**	0.028**	0.169**	0.102**
28. 톳(건조)	0.074**	0.160**	0.098**	0.077**	0.174**	0.103**
29. 인삼정(백삼)	0.169**	0.249**	0.188**	0.184**	0.283**	0.207**
30. 굴통조림	0.065**	0.145**	0.084**	0.067**	0.156**	0.088**
31. 홍합통조림	0.028	0.116**	0.054**	0.028	0.123**	0.055**
32. 조미오징어	0.301**	0.344**	0.282**	0.351**	0.411**	0.326**
33. 추잉검	0.101	0.055**	-0.007	0.010	0.057**	-0.007
34. 양송이버섯통조림	-0.191**	-0.140**	-0.201**	-0.714**	-0.131**	-0.182**
35. 밤통조림	0.221**	0.268**	0.206	0.247**	0.307**	0.229**
36. 감귤류과실통조림	0.599**	0.654	0.593**	0.820**	0.923**	0.809**
37. 인삼차	0.019	0.073**	0.011	0.019	0.076**	0.011
38. 과즙음료	0.921**	0.966**	0.904**	1.512**	1.627**	1.469**
39. 화훼(묘목류) ⁴⁾	0.001	0.139	0.053	0.001	0.149	0.54
40. 화훼(절화) ⁴⁾	0.307	0.499	0.413	0.359	0.647	0.511
41. 참치(냉동)	-0.008	0.062**	0.0001	-0.008	0.064**	0.0001
42. 토마토	-0.594**	-0.501*	-0.563**	-0.448**	-0.394*	-0.431**
43. 간장	0.003	0.078**	0.016	0.003	0.081**	0.016
44. 고추장	0.089**	0.120	0.058**	0.093**	0.127**	0.060**
45. 된장	0.055**	0.081**	0.020	0.057**	0.084**	0.020

1) 성장률은 $A_t = A(1+g)^t$ 의 양변에 대수를 취하면 $\ln A_t + \ln(1+g) \cdot t = \ln a + a$, t 이 된다. 이를 회귀분석한 다음 $\ln(1+g) = a$, 에서 g (성장률)을 계산하였음.

2) 명목금액 = 명목 \$ 표시금액 $\times$ 환율

3) 실질금액 = (명목 \$ 표시금액) $\div$ 한국의 도매물가지수.

*는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냄(수출의 일관성).

**는 5%의 유의수준을 나타냄(수출의 일관성).

4) 화훼류는 1977~87년 자료 사용.

표 2-3 농림수산물 품목별 수출 추세 분석

무역조건 수출추세	개	선	악		화
	실 질 단 가 상 승		실 질 단 가 하 락	명 목 단 가 상 승	명 목 단 가 하 락
증 가	돼지고기(32.3) 표고버섯(5.0)* 삼치(냉동)(14.7)**건반(47.1)어란(17.0)** 사과(39.5)** 어류의 피레트(16.2)*배(3.4) 청어(2.7) 채소종자(0.6) 계(5.1)* 홍삼(8.8)* 굴(24.2)** 미역(2.8)** 새조개(13.0)* 톳(7.7)** 인삼정(18.4)** 개이지살(냉동)(4.9) 굴통조림(6.7)** 송이버섯(6.6)* 혼합통조림(2.8) 화훼(묘목류)(0.1) 화훼(절화)(35.9) 간장(0.3)		감귤(100.6)**백삼(9.3)* 조미오징어(35.1)** 추잉껌(1.0) 밤통조림(24.7)** 감귤류과실통조림(82.0)** 인삼차(1.9) 과즙음료(151.2)** 고추장(9.3)** 된장(5.7)**		
감 소	갯지렁이(-3.1)** 새우살(-0.1) 삼치(신선)(-11.0)** 오징어(-2.5) 양파(-17.4)* 양배추(-3.5) 딸기(-14.2) 참치(-0.8) 토마토(-44.8)**		면앙고기(-1.7) 양송이통조림(-17.4)**		

〈표 2-2〉에서 작성한 것임.

** , * 는 수출의 일관성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 는 수출물량 성장률.

1977~1990년 기간중 실질단가가 상승하여 무역조건이 개선된 품목은 돈육, 송이버섯, 표고버섯, 사과, 배, 홍삼, 주요 수산물 등 주로 1차상품으로 이는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했거나 수출국의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주수출시장의 소비 고급화에 따라 수출제품의 고급화현상도 한 가지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는 자원 고갈에 따른 공급 부족과 주수출선인 일본의 수산물 수요 증가로 수출 단가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무역조건이 악화된 품목은 추잉껌, 조미오징어, 밤통조림, 인삼차, 과즙음료 등 주로 가공품이다. 이들 품목은 해외시장의 수요

가 감소했거나 수출국의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1차상품과는 달리 가공품은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 감소보다는 공급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농림수산물의 1차상품 수출은 상품의 고유한 특성(기후, 수급의 비탄력성에 따른 수출물량의 변화)에 따라 가공품보다 수출 편차가 크고 기복이 심하여 그 일관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수출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사과, 버섯류, 일부 채소류에 불과해 수출의 일관성이 거의 없으나 대부분의 수산물의 경우는 가공품처럼 수출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수산물은 비교적 수출산업으로써 정착되어 가는 반면 농산물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품목은 우리 나라 주요 수출품목으로 비교적 무역조건이 개선되고 일관성도 어느 정도 있는 품목이나 본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품목은 그 수출액이 미미하고 일관성도 적어 우리 나라 농림수산물 수출은 주요 품목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1980~90년을 전반기(1980~85)와 후반기(1985~90)로 나누어 45개 품목의 수출 성장률을 대비하여 보았다<표 2-4>.

1상한은 1980년대 전후반기 모두 수출이 증가한 경우를 나타내고 2상한은 전반기에는 수출이 증가했으나 후반기에 수출이 감소한 경우를 나타낸다. 또한 3상한은 전후반기 모두 수출이 감소한 경우를 나타내고 4상한은 전반기에는 수출이 감소했으나 후반기에 증가한 경우를 나타낸다. 1상한에 속하는 품목으로 표고버섯, 홍삼, 미역, 톳, 홍합통조림, 송이버섯, 간밤, 굴, 굴통조림 등으로 우리 나라 고유의 특산물로써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이들 품목 대부분은 전후반기 모두 비교적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사과는 전후반기를 통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돈육, 청어는 상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백삼, 과즙음료는 상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3상한에 속하는 품목은 양배추, 양송이 통조림으로 전후반기 모두 수출이 감소하여 수출상품으로써의 지위가 낮아지는 품목이다. 4상한은 전반기에는 수출이 감소했으나 후반기에 수출이 증가한 품목으로 후반기에 큰 증가율을

표 2-4 농림수산물 수출의 1980년대 전반과 후반의 실질금액 증가율 상관관계

1980년 전반증가

1980년 전반기 증가율	45.0 이상	30.0~ 45.0	15.0~ 30.0	-1.0~ -15.0	-1.0~ -15.0	-15.0~ -30.0	30.0~ 45.0	45.0 이상
45.0 이 상	토마토 (10)			조미 오징어(42)	백삼 (12)	과즙음료 (14)		사과 (21)
30.0~ 45.0				어란 (냉동) (26)	어류피펫 (22) 밤통조림(5)			
15.0~ 30.0					굴(신선)(20) 송이버섯(53) 간밤(53) 채소종자(8) 굴통조림(34) 감귤류 과실통조림(10)	삼치 (냉동) (10)		돈육 (26)
1.0~ 15.0			오징어 (17)	면양고기 (23) 인삼차 (7) 간장(1) 고추장 (2)	표고버섯(23) 추잉껌(17) 홍삼(69) 된장(1) 비역(72) 투스(26) 홍합통조림(7)			청어 (염장) (12)
80년 후반감소 -1.0 ~ -15.0			양배추 (0.4)	양송이버섯 통조림 (7)	갯지렁이(22) 게(18) 배(7) 참치(295)	삼치 (신선) (20) 개이지살 (냉동)(10)		감귤 (0.2) 화훼 (절화) (0.4)
-15.0 -30.0					새조개 (냉동) (10)	인삼정 (43)	양파 신선 (0.02)	새우살 (냉동) (9)
-30.0 -45.0								딸기(12) 화훼 묘목(0.1)
-45.0 이상								

80년
후반증가

1980년 전반증가

주: 1980년전반 수출실적 금액증가율은 80. 81~84. 85 사이의 실질증가율이며,
1980년후반 수출금액증가율은 85, 86~89. 90 사이의 실질증가율임.
() 내는 1990년 수출금액(백만원임).

보인 품목은 감귤, 화훼류로 그 금액이 적어 최근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기 시작한 품목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1980년대 후반들어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된 품목은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그 수출금액이 미미하다. 지금까지 새로운 수출품목의 육성이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다. 농림수산물 수출 증가요인 분석

농림수산물 수출은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수출 증가가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났는가를 보기 위해 불변시장 점유율분석²⁾(constsant market share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의 주된 가정은 세계시장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정한 점유율에 의한 수출성장과 실제성장의 차이는 그나라의 경쟁력 변화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은 주로 경쟁력 분석에 이용되었다.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법에 의하면 한 국가의 수출이 세계 무역의 평균 증가율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다면 다음 4가지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세계 무역증가에 따라 한 나라의 수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 둘째, 상품구성효과도 한 나라에서 수출되는 상품의 수요가 다른 상품들의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셋째, 시장 구성효과로 한 나라의 수출 대상국들이 다른 수출 대상국보다 더 빠른 수입수요의 증가를 보이는 경우 넷째, 이상의 3가지 효과를 차감한 잔여효과를 경쟁력 강화에 의해 나타난 효과로 구분한다.

자료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1977~88년을 3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가 <표 2-5>이다. 1980년대말 농수산물 수출증가는 주로 세계 무역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80년 초반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세계 농수산물 무역이 감소함으로써 무역증대효과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상품 구성 및 시장구성효과에 의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2) 불변시장 점유율 분석은 Tyszynski(1951)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그후 Leamer and Stern(1970) 등에 의해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Leamer and Stern이 이용한 수식을 사용하였다.

났다. 이는 세계 농수산물 무역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 농수산물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수입수요가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0년중반 이후는 다시 세계 농수산물의 무역증대로 무역증대효과가 커지고 그외의 효과도 수출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7~88년 사이에 경쟁력효과는 점차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체 수출증가에서 경쟁력 효과는 극히 낮아 경쟁력제고에 의한 수출증가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수출증대를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농산물, 수산물 각각의 경우도 농수산물의 경우와 유사하다. 70년대말과 80년대말 중반 이후의 경우 세계 농수산물 무역증가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0년대말 중반이후의 경우 세계 농수산물 무역증가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0년대 초반은 상품구성, 시장구성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효과는 80년대들어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취약한 실정으로 수출증대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보인다.

2. 농림수산물 수출시장 구조 분석

우리나라 총수출의 경우 주로 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약 70%로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미국시장에 대한 총수출비중은 70년대에 약 40%, 1980년대는 50%를 상회했으나 최근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40%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약 40~50%, 일본시장이 20~30%, 기타시장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2-6>

농수산물의 경우는 총수출의 경우에 비해 지역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970년대의 경우 일본시장 비중이 약 65%, 미국시장이 약 15%, 기타시장이 약 20%였으나 1980년 이후 계속 일본시장 수출비중이 높아져 약 80%에 이른 반면 미국시장과 기타시장은 약 10%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대일지역 편중현상은 수산물의 경우가 최근 80%를 넘어

표 2-5. 농수산물 수출성장 요인분석(류별)

단위: 백만 \$, %

		농 수 산 물		농 산 물		수 산 물	
'77,78~'80,81	수출증가	186.0	100.0	81.0	100.0	253.0	100.0
	무역증대효과	530.7	285.3	125.8	155.3	438.2	173.2
	상품구성효과	98.6	53.0	20.9	25.8	13.8	5.5
	시장구성효과	9.7	5.2	27.3	33.3	-8.7	-3.4
	경쟁·잔여효과	-453.0	-243.5	-93.0	-114.8	-190.3	-75.2
'80.81~'84,85	수출증가	170.6	100.0	50.6	100.0	30.0	100.0
	무역증대효과	-33.2	-19.5	-19.5	15.9	-31.4	121.3
	상품구성효과	136.5	80.0	30.4	60.1	36.3	121.0
	시장구성효과	116.8	68.5	31.0	61.3	191.1	637.0
	경쟁·잔여효과	-49.5	-29.0	5.1	10.1	-233.8	-779.3
'80.81~'84,85	수출증가	1,046.7	100.0	183.7	100.0	871.0	100.0
	무역증대효과	507.5	48.5	151.2	82.3	645.4	74.1
	상품구성효과	341.8	32.7	31.5	17.1	36.7	4.2
	시장구성효과	66.5	6.5	-19.3	-10.5	141.3	16.2
	경쟁·잔여효과	130.9	12.5	20.3	11.1	47.6	5.5

자료: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각년도.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 Fishery commodities」, 각년도.

했으며 농산물의 경우 70년대 일본 수출비중이 약 40%, 미국이 약 20%, 기타지역이 약 40%이었으나 1980년대 들어 일본비중이 계속 높아져 최근 일본 수출시장 비중이 약 65%, 미국 수출시장이 약 15%³⁾ 기타 수출시장이 약 20%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시장으로의 높은 편중현상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어 지리적 이점이 클뿐만 아니라 일본은 농림수산물 최대 수입국(1989년 기준 농림수산물 수입액 490억\$, 이 중 농산물 284억\$, 임산물 104억\$, 수산물 101억\$)으로 그동안 높은 수입증가율(1980년대

3) 시장별 수출추이<표 2-6>는 자료의 부족으로 OECD 국가에만 한정하고 있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선이 대부분 선진국으로 되어 있어 지역별 수출비중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2-6 우리나라 주요 시장별 수출추이 1976~88

단위: %

	총 수 출			농 수 산 물			농 산 물			수 산 물		
	미국	일본	기타	미국	일본	기타	미국	일본	기타	미국	일본	기타
1976	40.5	31.3	28.2	13.6	66.6	19.8	23.5	40.8	35.7	9.4	77.6	13.0
1978	43.5	27.6	28.9	17.2	62.8	20.0	24.1	39.3	36.3	13.7	74.6	11.7
1980	39.2	26.5	34.3	14.5	67.0	18.5	18.8	46.0	35.2	12.1	78.7	9.2
1982	45.5	24.7	29.8	13.6	71.2	15.2	16.6	46.7	36.7	12.4	80.9	6.7
1984	54.1	22.7	23.2	14.0	74.8	11.2	15.6	63.1	21.3	13.2	81.2	5.6
1986	52.4	20.5	27.1	13.1	76.0	10.9	12.7	59.5	27.8	13.3	82.0	4.7
1988	44.7	26.1	29.2	12.1	78.1	9.8	16.0	65.7	18.3	11.0	82.0	7.0

자료: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각년도.

수입증가율을 보면 농림수산물 6.8%, 농산물 5.6%, 임산물 4.6%, 수산물 13.9%)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일본 못지 않은 주요 수출가능시장(1990년 농산물 수입액 225억\$)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비중이 낮아 지고 있는 것은 식물방역법⁴⁾의 문제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신선 과채류 대미수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우리나라 수출시장 다변화 분석을 위해 마코브모델(Markov model)을 사용한다. 마코브모델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행위와 일본의 수입행위를 분석 하고자 한다. 마코브모델의 기본가정은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고 시간에 따라 추이확률은 일정하다는 것이다. 즉 안정적(stationary)마코브모델을 통해 분석한다. 안정적마코브모델을 통해 계산한 우리 나라의 총수출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의 이전확률

4) 현재 미국 동식물 검역규정에는 yellow zone이란 법률적 또는 행정적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나 관념적 인식에 따라 대부분의 신선 과채류가 수입 불허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신선 과채류중 배만이 유일하게 수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미 과채류 수출이 부진하다.

(transition Probabilities)이 <표 2-7~2-9>이다. 이전확률에서 주대각(main diagonal) 요소는 수출(입)선을 변경하지 않을 확률(selling(buying)loyalty)을 나타내고 비대각(off diagonal) 요소는 한 나라(row)에서 다른 나라(column)로 수출(입)선을 바꿀 확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강한 수출국은 높은 반복구매확률과 높은 수출선 이전확률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 나라 총수출의 경우 미국으로의 계속 수출성향이 0.82로 가장 높고, 일본이 0.72, 기타지역이 0.53으로 나타나 미국과 일본으로 계속 수출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수출선을 바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미국,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산물의 경우는 일본으로의 계속 수출성향이 0.8로 가장 높고 미국과 기타지역이 약 0.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계속 수출성향은 높으나 다른지역(일본, 기타)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선을 바꿀 가능성(0.08)은 낮게 나타나 미국으로의 수출성향은 낮다. 반면에 일본과 기타지역은 높은 계속 수출성향과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출선 이전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수출성향이 높다.

수산물의 경우는 농산물보다 일본지역으로의 집중화 성향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시장으로 계속 수출성향이 0.9, 미국시장이 0.5, 기타시장이 0.4로 나타나 일본으로의 계속 수출성향이 높으면서 수출선을 바꿀 가능성(미국시장에서 일본시장으로 바꿀 가능성 0.5 기타시장에서 일본시장으로 바꿀 가능성 0.24)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시장에 대한 수산물 수출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음에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 나라 최대의 수출시장인 일본의 수입행위를 살펴보자<표 2-10>.

일본의 미국, 호주로부터 계속 수입성향(buying loyalty)은 각각 0.45, 0.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국, 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 대만, 한국의 경합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에서 농림수산물 수입을 대만에서 중국으로 바꿀 성향이 0.96으로 대단히 높고 대만에서 다시 중국으로 바꿀 성향

표 2-7 우리 나라 농수산물 총수출의 이전확률, 1976~88

	미 국	일 본	기 타
미 국	0.8241	0.0463	0.1295
일 본	0	0.7161	0.2839
기 타	0.3030	0.1635	0.5335

표 2-8 우리 나라 농산물 수출의 이전확률, 1976~88

	미 국	일 본	기 타
미 국	0.5647	0	0.4353
일 본	0.0829	0.8042	0.1129
기 타	0.0825	0.3359	0.5816

표 2-9 우리 나라 수산물 수출의 이전확률, 1976~88

	미 국	일 본	기 타
미 국	0.5072	0.4928	0
일 본	0.0539	0.8956	0.0505
기 타	0.3550	0.2435	0.4015

도 0.62로 대단히 높아 대만 중국간에 높은 대체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수입선을 바꿀 성향이 높아 일본시장에 중국보다 대만과 더 큰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의 경우 각국으로부터의 계속 수입성향이 비교적 낮고 기타시장으로 부터의 수입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입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 시장에서 주요경쟁국과 심한 경합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요경쟁국과 경쟁하고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는 농수산물 전체에 대해 수출다변화 정도를 보았으나 이번에는 품목별로 수출다변화 정도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Gini-Hirschman Coefficient⁵⁾를 구해 보았다<부표 1, 부표 2 참조>.

농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면양고기, 송이버섯, 깻밤, 딸기, 밤통조림 등은 일본시장에 높은 수출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과는 대만에 높은 수출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지역에 높은 수출집중도를 보인 품목은 지리적 이점, 소비자 기호, 신선도 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이며 사과의 경우는 대만과의 바나나 구상무역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수출지역이 다변화된 품목은 비교적 가공품이 많으며 여기에 속하는 품목은 표고버섯, 배, 인삼차, 과즙음료 등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농산물의 경우 비교적 수출지역이 편중화되어 있는 품목이 많아 수출지역 다변화 노력이 요구된다.

표 2-10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이전확률, 1976~88

	미 국	호 주	중 국	대 만	한 국	기 타
미 국	0.4525	0	0	0.0043	0.057	0.5376
호 주	0	0.4060	0	0.0123	0.1780	0.4037
중 국	0	0	0.1944	0.6172	0.1884	0
대 만	0	0	0.9630	0	0	0.037
한 국	0	0	0	0.4678	0.2647	0.2676
기 타	0.3874	0.1017	0	0	0	0.5109

$$5) \text{ Gini-Hirschman Coefficient} = \sqrt{\frac{1}{N} \sum \left(\frac{X_i}{X} \right)^2} \times 100$$

여기서, X : 해당품목의 총수출

X_i : 해당품목의 지역별 수출

이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수출지역이 집중되어 있고 $\frac{100}{\sqrt{N}}$ 에 가까울수록 수출지역이 분산되어 있음을 뜻한다.

한편 수산물의 경우 신선도를 극히 중요시하는 신선 냉장 어패류는 지리적 이점, 생선회 소비선호가 큰 일본으로 수출이 집중되어 있으며 냉동품의 경우는 신선냉장보다는 덜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산물 성격이 짙은 피조개, 미역, 툇, 쥐치포, 바지락 등은 일본 수출 집중현상이 높다. 일본은 생선회에 대한 선호가 높아 참치의 경우도 생선회로 쓰이는 눈다랑어는 거의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가공품으로 쓰이는 그외의 다랑어는 가공수출을 주로 하는 태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 반면에 유통기간이 긴 통조림의 경우가 비교적 수출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의 경우는 농산물보다 신선도가 더 중요시되므로 신선 냉장 어패류는 계속 일본으로 수출된 것으로 보이며 수출다변화를 위해서는 수산물 가공산업의 발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 3 장

UR 농산물협상 타결과 농산물 수출

UR 농산물협상이 타결되면 국제 농산물 교역질서가 전면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농업보호조치가 완화되고 비교우위 원칙에 의거 생산이 재편될 경우 한국의 농산물 수출도 전망이 한층 밝아질 수 있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 본장에서는 UR 농산물협상의 내용과 타결전망을 개관해 보고, 이것이 농산물 수출에 주는 함축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UR 농산물협상의 추이와 타결 전망

가. UR 농산물협상의 대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은 2차 세계대전으로 크게 침체된 세계경제를 자유무역을 통해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1979년 동경라운드가 끝나기까지 GATT는 일곱차례에 걸친 개정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규범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경제는 EC를 필두로 한 경제의 지역주의화가 심화되는 한편 성장추세가 둔화되면서 각국의 보호주의

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GATT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또는 우회하는 각종 비관세장벽이 만연하게 되어 기존의 GATT 질서체계가 크게 약화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서비스, 투자 및 지적소유권 등 GATT가 이전에 포괄하지 못한 새로운 교역분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GATT체계를 새롭게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동안 GATT 설립 이래 거의 예외적으로 취급되어 온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도 1970년대 초반의 식량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업을 각종의 수입장벽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과도한 지원을 한 결과 198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공급과잉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잉 농산물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수출확대를 도모하여 세계 농산물 시장은 교역의 위기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교역질서 확립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즉, 농산물 시장질서의 회복을 위해 시장접근 조건의 개선, 각국가별 농업정책의 농산물무역에 대한 왜곡방지, 그리고 직·간접의 수출보조금을 제거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앞서 언급한 세계 경제질서 및 교역환경변화에 맞추어 GATT규율의 효율적 개선이 필요하고 농업분야도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UR이 개시된 것이다.

UR 개최에 대한 논의는 83년 5월 윌리엄스버그 경제정상회담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동년 11월에 미·일 수뇌회담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봄으로써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그후 3년여의 국제 논의과정을 거쳐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 에스테에서 제8차 다자간 협상인 UR이 개시되었다.

이때 채택된 푼타델 에스테 각조 선언문에 나타난 궁극적 목적은 세계 농산물의 수급불균형 및 불확실성의 완화와 모든 무역제안과 왜곡 조치를 교정하고 농산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을 강화된 GATT 규정 및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수입장벽 완화를 통해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직·간접 보조금의 감축 및 관련규정의 강화로 농산물 교역의 경쟁조건을 개선하며 농산품에 대한 위생장벽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국제협정에 조화시키

도록 하였다.

나. UR 농산물 협상의 추이

1986년 9월 협상이 개시된 지 5년이 지난 지금에도 UR협상은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채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원래는 1990년말을 협상타결시한으로 삼고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농산물 분야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을 둘러싼 미국과 EC의 첨예한 이해 대립과 기타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강한 반발로 의견합의 도출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 1991년 12월 20일 던켈의장의 최종의정서가 나온 현재까지의 주요협상 일지는 다음과 같다.

- 1986년 9월: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각료선언으로 협상 개시
- 1986년 9월~1987년 2월: 각종 공식·비공식 농산물그룹 회의
- 1988년 12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전반기 협상을 종합하고 후반기 2년간의 실무협상에 기본이 되는 협상목표 설정을 위한 중간평가회의 개최. 미국과 EC의 첨예한 대립으로 중간평가 합의에 실패
- 1989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농산물 협상의 목표, 이행방법 등의 장기조치와 농업보호의 현수준 동결이라는 단기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중간평가 합의문 채택
- 1989년 4월~1990년 6월: 협상의 촉진을 위해서 가장 견해차가 큰 국가, 주요 협상참가국을 대상으로 비공식회의 위주의 협상 진행
- 1990년 7월: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농산물그룹 의장제량으로 의장초안을 작성하여 배포. 협상진행이 가속화되기 시작
- 1990년 7월 TNC회의: 의장초안을 토대로 협상의 기초를 만들 고자 하였으나 의장초안을 협상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만 합의
- 1990년 10월: 협상전반에 대한 주요 의제를 놓고 마지막 공식회의인 제25차 농산물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을 보지 못하고 12월에 열릴 브뤼셀 각료회의로 협상 타결 여부를 넘김.

- 1990년 12월: 브뤼셀에서 각국의 각료급들이 모여 마지막 정치적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 UR 타결 시한으로 잡은 1990년말 까지 타결을 보지 못하고 브뤼셀 각료회의는 UR 협상의 연장을 선언한 채 폐막
- 1991년 2월: GATT 사무국은 미국, EC, 케언즈그룹 등 주요 협상국들과의 협상재개를 위한 절충을 시도한 끝에 2월 26일 TNC회의를 개최하고 UR 협상의 재개를 선언
- 1991년 3월~6월: 네 차례에 걸친 주요국 비공식 실무회의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대안서(Option Paper) 배포
- 1991년 7월: 협상진행 대안서에 대한 각국의 평가와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고위급 무역협상위원회 개최를 통해 실무회의 종결 시도
- 1991년 8월 2일: 대안서의 보충자료로서 기술적 부속서(Technical Addenda) 배포
 - 대안서에 제시된 여러가지 대안들을 더욱 구체화시킴.
- 1991년 9~10월: 합의 초안(Concensus Paper) 작성을 전제로 기술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각국이 일반적 입장만을 되풀이하여 연내 타결을 위한 실질적 합의점에 도달치 못함.
- 1991년 11월 21일: 난항이 예견되는 가운데 농산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작업 초안서(Working Paper) 제시
 -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핵심과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91년 8월의 기술적 부속서를 토대로 단일안에 의한 협상 골격 형태를 갖추고 있음
 - 따라서 정치적 쟁점사항이 해결될 경우 협상초안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내용을 보면 감축폭과 기간, 그리고 기준연도는 제시하지 않은 채 시장개방, 국내보조, 수출보조 분야에서 구체적 감축약속 방법제시
 - 시장접근 분야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를 담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및 감축폭에서 우대
- 1991년 12월 13일: 합의도출을 위한 초안(Draft Text on

Agriculture) 제시

- 내용면에서는 11월 21일 제시한 작업초안서와 유사하지만 형식면에서는 GATT 조문형태를 갖추고 있음.
- 보조감축률, 경과이행기간 등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처리, 1991년 12월 20일 협상초안을 제시하기 이전단계까지 주요 국간 협상용으로 제시
- 여기에서도 예외없는 관세화를 담고 있음
- 1991년 12월 20일: 최종 의정서(Text on Agriculture) 제시
 - 합의된 문서는 아니고 의장책임으로 작성된 문서임.
 - 동 문서에 따라서 감축계획서를 1992년 3월 1일까지 제출하고 1992년 3월 31일까지 후속 협상을 완료하여 최종 양허표 작성

다. 최종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협상타결전망

① 최종의정서의 주요내용

시장접근분야에 대해서는 1991년 12월 12일 배포된 합의초안과 대동소이 하나 관세화의 예외인정과 GATT 11조 개선문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관세상당액의 감축폭과 감축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행기간: 1993~99년(7년간)
- 삭 감 폭: 평균 36%, 최저 15%
- 기준연도: 관세 삭감은 1986년 9월 1일
최소시장접근은 1986~88 평균소비량
- 최저시장접근: 최초 국내소비의 3%에서 시작하여 5%까지 확대

국내 보조분야에서 허용정책은 합의초안에 제시된 내용과 유사하다. 삭감대상 정책은 AMS 및 AMS에 상응한 약속을 기준으로 삭감토록 제시하고 있다. 국내보조분야에 대한 감축폭과 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 기준연도: 1986~88년
- 이행기간: 1993~99년(7년)
- 삭 감 폭: 20% 단, 86년 이후 실시한 삭감실적은 credit로 인정

수출보조는 물량 및 재정지출액을 기준으로 동시에 삭감하고 삭감폭에 차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감축폭은 재정지출 기준은 36%와 물량 기준 24%를 충족시켜야 한다. 기준연도는 '86-'90년 평균이고 이행기간은 1993~99년 7년간이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삼각폭 및 이행기간에 융통성을 주도록 제시하고 있다. 삭감폭은 선진국의 2/3까지, 이행기간은 3년 추가하여 10년까지를 인정한다. 기타 개도국에 대해서는 투자보조 및 투입요소보조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최종 의정서 역시 합의되지 않은 초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가 11월 21일 작업대안서와 12월 12일 초안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이 초안을 토대로 협상골격이 정해 지리라는 점은 고려할 때 최종 의정서는 크나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협상타결 전망

1991년말 현재에도 UR협상이 언제 종료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협상은 아직도 타결의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UR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농산물 분야에서 합의 도출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EC, 그리고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도 협상결렬을 원치않고 있어 협상이 결렬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은 매우 드문 편이다.

현재까지 협상 추이를 종합해 볼 때 대체적인 협상타결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국내보조, 시장접근분야, 수출보조 등 농업보조는 분야별로 접근해서 감축하게 될 것이다.

둘째, 덤켈의 최종의정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감축 폭은 국내보조,

시장접근분야 모두 30% 내외에서 결정될 것인데 현재 1993년부터 1999년까지 7년간 국내보조를 20% 감축하자는 최종의정서에 대해 EC는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내 농민단체들은 소폭이라고 반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 숫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관세화에서 예외의 인정여부는 앞으로 협상을 더 지켜 보아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UR 농산물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려면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입장이 조정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UR 농산물협상 타결이 농산물 수출에 주는 함축성

UR 농산물 협상이 전면적인 농업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따라서 비록 협상타결전망이 아직까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동 협상이 타결되면 농산물 교역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함축성만을 검토해 보는 선에서 멈추기로 한다.

가. 농산물 수출의 중요성 증대

UR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전면적인 수입자유화가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생산조정 및 구조조정이 촉진 될 것이다. 이때 일부 농산물에서는 과잉문제가 발생하여 수요확대가 필요하게 되는 바, 수출확대는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농산물 수출은 국내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밤이다. 국내 생산량의 40% 이상이 수출되고 있는 밤의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밤의 수급은 크게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품목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한국만이 가질 수 있

는 농산물은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도 수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속하는 농산물로는 특용작물, 꽃, 고급 산채, 약초 등이 있다.

굳이 UR 농산물 협상 타결을 고려하지 않아도 이미 세계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농업이 비교우위 원리에 입각하여 분업화되고 있다. 한국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UR 농산물 협상은 이와 같은 세계농업의 변화추세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나. 한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향상

한국 농산물의 대부분은 국제 가격보다 많게는 5배이상, 작게는 2배 이상 비싸게 생산되어 가격 경쟁력이 낮다. UR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완전개방시 국제 농산물가격은 평균 10~2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최세균외, 1991)

이것이 실현되면 한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그만큼 수출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가 커서 실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사과, 배 등 소수 품목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R 농산물 협상 타결이 한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획기적인 가격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사료곡물 등의 국제가격상승은 사료수입 부담을 상승시켜 축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UR 농산물 협상 타결로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출보조가 거의 없던 한국농산물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은 향상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물론 수출농업기반구축을 위한 투자 제한이라는 한계점도 있다. 주요 농산물의 수출경쟁국이 중국과 북한 등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효과에 따른 한국의 수출확대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

다. 국경장벽의 완화에 따른 시장접근 개선

UR 농산물 협상에서는 관세이외의 어떠한 인위적 무역장벽도 모두 제거하자고 제의되고 있다. 즉 관세화라는 장치를 통해 수량제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없애나가자는 것인데 이것이 실현되면 어느 나라 농산물이건 시장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외에 농산물 수출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벽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UR 농산물 협상의 또 하나 분야인 위생 및 동식물 검역규제가 합의되면 역시 위생 및 동식물 검역을 수입제한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분야는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인데 1989년 중간평가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첫째, 동식물 검역관련 규제 및 조치들을 국제기구들의 기준과 조화시켜 무역장벽화를 막고 둘째, 인간 및 동식물의 위생조항인 GATT 제20조를 강화하며 셋째, 조치들의 명료성(transparency)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통고 및 대응보고 절차를 보고하여 이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선하며 마지막 넷째, 동식물검역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해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이다.

현재 검역상의 이유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은 사과이다. 사과를 포함해서 모든 농산물이 UR 협상 타결에 따라 수출가능성이 한층 밝아지리라 본다.

제 4 장

품목별 수출 증대방안

1. 한국의 수출유망 농산물

한국농업은 주어진 여건으로 볼 때 자본과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토지자원이 빈약하고 그나마 농촌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던 노동력도 이제는 희소하게 되었다. 결국 노동력과 토지자원의 희소성은 자본과 기술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농업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토지조방적 또는 자연자원의존적 농산물인 곡물(소맥, 옥수수, 콩, 설탕 등), 쇠고기, 커피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반면 보다 자본집약적인 농산물은 수출하고 있다.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농축산물은 중소가축의 일부 축산물,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약용 및 특용작물이 대표적이다. 이들 농축산물은 인삼, 밤, 버섯류와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소량, 소액수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일단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수출증대의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표 4-1>은 지난 5년간(1986~90) 수출이

꾸준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농축산물을 열거한 것이다.

현재 수출되고 있는 이러한 농산물들은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 보다 면밀한 국내외 수급에 대한 분석 및 경쟁력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무역진흥공사(1991)가 업계를 중심으로 실사를 통해 밝힌 농산물 유별 경쟁력 실태는 다음과 같다.

채소류는 일본에 대한 수출이 주가 되고 있으며 일본산에 비해서는 품질은 약간 뒤지나 가격경쟁력에서는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경쟁국인 중국과 대만에 대하여는 품질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김치는 품질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수출이 유망하다.

과실류의 경우 전반적으로 품질경쟁력은 우위에 있으나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 후지사과와 동양배(한국의 신고배, 일본의 20세기 배로 대표됨)는 한국과 일본이 주요 생산국으로 대일본 가격경쟁력 및 품질경쟁력 모두 한국이 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다. 그밖에 양다래, 복숭아, 단감, 매실 등도 품질경쟁에서 한국이 경쟁국들을 앞서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표 4-1 한국의 주요 수출농산물

과 실 류	채 소 류	화 화 류	축 산 물	특용작물
사과, 배, 딸기 (냉동), 감귤, 단 감, 포도, 밤	양배추, 고추, 무 우류, 양파, 채소 종자, 배추류, 마 늘, 시금치, 채두 류, 상추, 오이, 당근, 파, 생강, 김치, 냉동 및 건조채소	절화류, 선인장, 화초종자, 화 초뿌리	돼지고기, 칠 면조, 천연꿀	표고버섯, 녹 차, 홍차, 양송 이, 송이버섯, 영지버섯, 잎담 배, 한약재, 인 삼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86~90.

그밖에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품질면에서 경쟁국들과 비슷하며 가격경쟁력도 크게 뒤지지 않고 있다. 밤, 송이버섯, 표고버섯, 인삼 등은 품질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생산기반만 확충되면 수출의 증대가 가능한 품목들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업계에 대한 실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20대 수출유망 농산물로 양파, 딸기, 채소류, 김치, 사과, 배, 감귤, 양다래, 단감, 복숭아, 매실, 돼지고기, 닭고기, 밤, 송이버섯, 표고버섯, 앞담배, 화훼류, 인삼, 한약재를 선정한 바 있다. 이들 품목은 <표 4-1>과 같이 현재 꾸준한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는 품목들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자본·노동집약적 농산물들로 볼 수 있다.

<표 4-2>는 주요 수출(유망)농산물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나타낸 것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경쟁력이 어느 수입국에 있어서 어느 수출 경쟁국과의 비교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에 대한 비교는 품목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품목별 구체적인 경쟁력 비교는 다음 절(제4장 2절)을 참고하기 바람에 여기서는 하나의 예로써 <표 4-2>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4-2 품목별 경쟁력*

		가 격 경 쟁 력		
		우 위	비 슷	열 위
품 질 경 쟁 력	우위	김치, 사과, 앞담배, 표고버섯	감귤, 밤, 인삼, 돼지고기, 화훼류, 딸기	양파, 배, 매실, 송이버섯, 한약재, 복숭아
	비슷			양송이, 단감, 양다래, 닭고기
	열위	토마토, 오이, 가지, 기타 채소류		고추, 마늘, 콩, 옥수수, 감자, 땅콩, 쇠고기

* 한국무역협회의 업계실사 및 문헌조사 결과로 시장별, 경쟁국별로 경쟁력에 차이가 있음. 보다 자세한 것은 본보고서의 제4장 2절 참조.

자료: 한국무역협회, 「농산물 수출유망품목 검토」, 조사 91-17, 1991.

본연구에서는 이상에서 논의된 여러가지 수출유망 농산물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대량으로 수출을 추진해야 할 주요 품목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사과, 배, 밀감, 화훼류, 돼지고기, 인삼, 밤, 버섯 등 8개 품목이다. 그러나 본연구에서 제외된 품목들도 분석이 된 품목들과 국내수급이나 해외시장 진출의 애로요인, 그리고 그에 따른 수출증대 방안 등이 유사하리라고 판단된다.

2. 품목별 수출 증대방안¹⁾

가. 사 과

① 국내외 생산 및 교역현황

㉞ 국내외 생산현황

사과는 한국의 대표적인 과일로 남해안과 강원도 북부 일부의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여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1990년도 한국의 사과 재배면적은 4만 9천ha이며, 생산량은 63만톤이다. 이러한 사과생산량은 1990년도 세계 사과 총생산량 4천만톤의 1.6%에 이르는 것이다.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과는 주로 후지품종으로 생산량과 식부면적 기준으로 총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초까지 주종을 이루던 국광과 홍옥은 이제 총생산량의 12%에 불과하다. 후지사과는 맛과 외양에 있어 국제시장에서 독특한 품종으로 취급되고 있다.

1) 직접적 인용이 아닌 경우 인용된 자료명을 각 부분에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시장별, 품목별 품질경쟁력과 수입제도는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수출유망 농산물 해외시장」(1991)에 수록된 내용에 의존한 것임.

표 4-3 한국의 사과생산 및 가격동향

	식부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소비량 (천톤)	국내가격 ¹⁾ (원/kg)	수출가격 ²⁾ (\$/톤)
1980	46	410	0.0	410	679	NA
1981	47	523	0.6	522	732	523
1982	43	527	1.6	525	668	525
1983	41	586	1.0	585	576	660
1984	39	528	3.5	525	670	564
1985	38	533	2.8	530	814	815
1986	36	538	5.5	532	752	793
1987	39	556	17.4	539	910	912
1988	43	640	10.7	630	797	1,575
1989	47	676	9.2	667	818	2,271
1990	49	629	8.4	621	746	2,534

1) 부사 중품기준

2) 수출액을 수출량으로 나눈 평균가격의 개념임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각년도.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조사월보」, 제407호, 1991. 8.

사과의 세계적 생산량은 포도, 오렌지, 바나나 다음으로 많다. 사과의 최대 생산국은 소련이다. 1990년도 소련의 사과생산량은 세계 사과생산량의 14.4%인 580만톤에 달한다. 그러나 소련의 사과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다. 즉, 1985년 714만톤에서 1990년에는 580만톤으로 18.8% 감소하였다. 소련 다음으로 사과생산이 많은 국가는 중국(1990년 기준 471만톤생산, 세계 사과생산량의 11.7%), 미국(430만톤, 10.7%), 독일(266만톤, 6.6%) 순이다.

표 4-4 주요 사과생산국별 생산량

단위: 천톤

	소 련	중 국	미 국	독 일	프랑스	이태리	터 키	이 란	일 본	한 국	세 계
1985	7,140 (18.5)	3,628 (9.4)	3,594 (9.3)	2,207 (5.7)	2,349 (6.1)	2,014 (5.2)	1,900 (4.9)	1,000 (2.6)	910 (2.4)	533 (1.4)	38,641
1986	7,700 (18.5)	3,353 (8.0)	3,598 (8.6)	2,902 (7.0)	2,739 (6.6)	2,020 (4.8)	1,865 (4.5)	1,000 (2.4)	986 (2.4)	538 (1.3)	41,668
1987	5,496 (14.2)	4,281 (11.0)	4,875 (12.6)	1,593 (4.1)	2,389 (6.2)	2,236 (5.8)	1,680 (4.3)	1,238 (3.2)	998 (2.6)	556 (1.4)	38,792
1988	5,700 (13.6)	4,357 (10.4)	4,118 (9.8)	3,164 (7.5)	2,473 (5.9)	2,332 (5.5)	1,950 (4.6)	1,351 (3.2)	1,042 (2.5)	640 (1.5)	42,040
1989	6,200 (14.9)	4,517 (10.8)	4,498 (10.8)	2,484 (6.0)	2,339 (5.6)	1,924 (4.6)	1,850 (4.4)	1,246 (3.0)	1,045 (2.5)	676 (1.6)	41,709
1990	5,800 (14.4)	4,712 (11.7)	4,302 (10.7)	2,658 (6.6)	2,400 (6.0)	1,970 (4.9)	1,800 (4.5)	1,250 (3.1)	1,069 (2.7)	629 (1.6)	40,263

() 내는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1987, 1988, 1990.

표 4-5 주요 사과 수입국별 수입현황

단위: 수입량=천톤, 수입액=천\$, 수입가격=\$/톤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입 량	수입액	수입 가격	수입 량	수입액	수입 가격	수입 량	수입액	수입 가격	수입 량	수입액	수입 가격	수입 량	수입액	수입 가격
독일(서독)	637	221,854	348	597	287,259	481	771	396,344	514	634	364,823	575	619	307,318	496
영국	429	192,964	450	442	238,858	540	443	274,840	620	498	308,213	619	470	275,594	586
소련	462	170,183	368	678	299,507	442	409	206,619	505	427	219,657	514	297	158,141	532
네델란드	219	84,342	385	218	109,774	504	245	130,290	532	277	147,433	532	246	120,062	488
벨-룩스	145	68,715	474	143	82,187	575	190	119,468	629	214	129,882	607	208	122,349	588
오스트리아	115	9,510	83	134	14,808	110	114	13,012	114	92	20,096	218	132	13,306	101
미국	124	62,641	505	132	70,373	533	133	83,740	630	126	75,835	602	120	70,182	585
프랑스	91	44,882	493	93	60,671	652	78	55,869	716	90	64,400	716	107	69,186	647
사우디	78	38,712	496	42	19,778	471	63	30,158	479	130	62,382	480	100	52,000	500
이태리	92	29,501	321	98	33,273	340	64	37,623	588	62	36,810	594	99	46,946	472
카나다	99	57,157	577	107	63,254	591	135	75,671	560	111	66,148	596	90	62,074	690
브라질	91	26,484	291	84	51,310	611	124	47,824	386	85	32,000	376	80	28,000	350
스웨덴	71	33,188	467	58	36,927	637	84	54,874	653	78	51,928	666	76	49,233	648
중국	50	22,353	447	61	27,261	447	86	39,903	464	82	47,086	574	74	64,469	871
핀란드	48	24,092	502	47	28,736	611	60	38,853	648	53	36,107	681	61	38,516	631
홍콩	43	26,353	613	36	22,671	630	52	36,884	709	62	45,786	738	60	45,400	757
세계	3,323	1,388,566		3,513	1,749,351		3,627	1,991,742		3,694	2,111,107		3,465	1,888,854	

자료: FAO 「Trade Yearbook」, 1987, 1989.

세계 사과생산량은 1985~90 기간중에 연평균 0.8%의 증가를 보왔다. 사과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1985~90 기간중에 연평균 6%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미국도 같은 기간중 연평균 3.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과 일본도 연평균 3.5%의 생산량 증가를 보였다. 한편 주요 사과생산국 가운데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는 소련외에 이태리, 터키 등이다.

㉔ 사과의 교역현황

세계 최대의 과실류 수입국은 미국과 독일로 1989년 현재 각각 380만톤과 354만톤의 과실류를 수입하여 세계 과실류 수입량의 15.2%와 14.2%를 점하고 있다. 사과의 세계적 교역규모(수입기준)는 1989년 현재 347만톤으로 사과 총생산량의 8.3% 정도이다. 사과의 최대 수입국은 독일(서독)로 1989년도 수입량은 62만톤이다. 이는 세계 사과 수입량의 17.9%에 달하는 것이다. 다음은 영국(47만톤, 13.6%), 소련(30만톤, 8.6%), 네델란드(25만톤, 7.1%) 등이며, 유럽국가들의 수입이 세계 사과수입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벨-룩스,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영국 등은 연간 10만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사과의 주요 수출국은 프랑스(68만톤), 칠레(33만톤), 헝가리(32만톤), 이태리(28만톤), 미국(28만톤) 등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터키와 중국이 각각 7만톤씩을 수출하여 세계 15대 사과수출국에 속하고 있다. 후지사과의 수출국인 한국과 일본은 각각 7천톤과 2천톤씩을 수출하는데 그치고 있다<부표 3 참조>.

한국의 사과수출은 1980년대 후반까지 몇몇 예외적인 연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의 사과수출은 1987년 1만 7천톤을 넘어 정점에 달했으며 그 이후 국내공급부족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한국 사과의 주요 수출시장은 대만으로 지난 10년간(1981~90) 95% 이상의 사과가 대만으로 수출되었다.

이와 같은 수출시장의 편중현상은 수입국의 경제적, 경제외적 요인

표 4-6 한국의 국별 사과수출현황

단위: 톤, 천\$

	일 본		대 만		필 리 핀		싱 가 폴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출단가 (\$/톤)
1976	62	22	1,635	726	510	114	0	0	2,294	897	391
1977	0	0	3,600	1,363	454	227	8	3	4,200	1,664	396
1978	0	0	900	486	902	302	0	0	1,873	823	439
1979	0	0	11	6	7	15	0	0	18	21	1,167
1980	0	0	0	0	8	17	0	0	8	17	2,125
1981	0	0	567	248	10	20	0	0	615	314	510
1982	0	0	1,414	683	159	75	0	0	1,643	840	511
1983	0	0	1,015	614	19	36	0	0	1,038	660	636
1984	0	0	3,207	1,856	21	40	14	10	3,458	1,974	571
1985	0	0	2,791	2,211	23	43	6	5	2,831	2,281	806
1986	16	12	5,411	4,227	23	45	2	2	5,516	4,362	791
1987	126	194	16,958	15,243	6	13	29	28	17,432	15,875	911
1988	0	0	10,528	16,618	4	9	1	2	10,684	16,856	1,578
1989	0	0	9,071	20,691	8	21	6	12	9,178	20,891	2,276
1990	1	1	7,783	20,440	4	11	498	698	8,359	21,288	2,547

* 기타국가가 빠져 있으므로 일본,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의 합과 차이가 있음.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에 의해 수출이 좌우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나마 대만 시장은 바나나와의 구상무역을 전제로 개척된 시장으로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개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사과수출은 매우 제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산 사과의 경쟁력약화와 수입국들의 수입제한조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5년간(1976~1990) 지속적인 수출을 기록한 시장은 대만과 필리핀 뿐이다.

그러나 대만시장은 1987년 1만7천톤을 수출한 이래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는 7천 8백톤을 수출하는데 그쳤으며, 필리핀에 대한 수출도 1978년 900톤에서 1990년에는 4톤으로 감소하였다. 이와같이 이미 개척된 시장에 대한 수출감소는 한국산 사과의 경쟁력 저하에 주원인이 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양이 많지도 못하다. 이는 품질과 가격면에서 충분히 시장확보가 가능하나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조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장다변화에 힘써 1990년 현재 수출국은 13개국이었다. 최근에는 태국, 싱가포르, 쿠웨이트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물론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에 대해서도 사과의 시험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② 주요 수입국의 수입제도

대만의 경우 사과는 수입허가품목으로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 원산지증명, 검역증명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한국산 사과는 한·중간의 구상무역품목으로 수입허가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다.

일본의 사과수입은 자유화되어 있으며 수입관세율은 20%로 높은 편이다.

형식상 일본의 사과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나 비관세장벽이 높아 실제로 사과수입이 자유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실시되는 후생성의 수입검사와 동식물방역법에 따라 실시되는 농림수산성의 수입검사가 까다로와 실제로 사과수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일본의 사과수입절차는 ① 위생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청, ② 서류심사(식품 수입검사를 요하는 것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 ③ 수입검사(샘플링에 의한 현장검사, 검역소의 시험검사, 국립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④ 검사에서 합격여부 판정, ⑤ 합격된 것에 대한 세관통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입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폐기 또는 반송되거나, 선별가공 또는 식용이외로 전용된다.

미국의 농산물 수입관리 정책은 크게 관세조치, 수량규제, 동식물검역 등의 비관세조치로 볼 수 있다. 수량규제는 주로 유제품, 설탕, 면화, 땅콩, 쇠고기 등에 국한되어 있어 한국의 수출농산물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사과의 경우 관세는 없어 수출장애요인이 되지 못한다. 결국 사과수출은 동식물검역과 관련한 농무부와 보건후생부의 위생 및 검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농무부의 수입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 일단 수입허가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시 식품의약품(FDA)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어느 국가에나 해당되는 통상적인 절차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검역체계는 Positive System으로 운용되고 있어 모든 식물류의 수입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수출국가별, 수입항구별로 수입이 가능한 품목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입허가품목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국가의 품목은 모두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농무부의 수입허가를 받는 절차는 ① 수입허가심의 요청(USDA에 요청), ② 서류심사(검토), ③ 농무부 검역관의 현지 위생상태심의, ④ 수입허가 가부결정, ⑤ 수입허가품목 목록에 삽입 순이다. 일단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부는 현지에서 미국 농무부 검역관의 여러단계에 걸친 검사과정을 거쳐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밖에도 미국 농무부 검사관의 수출포장검사(상표부착, 포장상태 등에 관한 검사)와 선적전 검사(미국 농무부 현지 검역관과

수출국 직원 공동으로 수량, 품질에 대한 확인검사)를 거쳐야 선적이 가능하다. 일단 선적된 상품이 미국의 통관지역에 도착하면 통관신고와 FDA의 수입검사를 받게 된다. 통관절차와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이 허가된 품목은 <그림 4-1>과 <표 4-7>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4-1 미국의 식물수입허가 및 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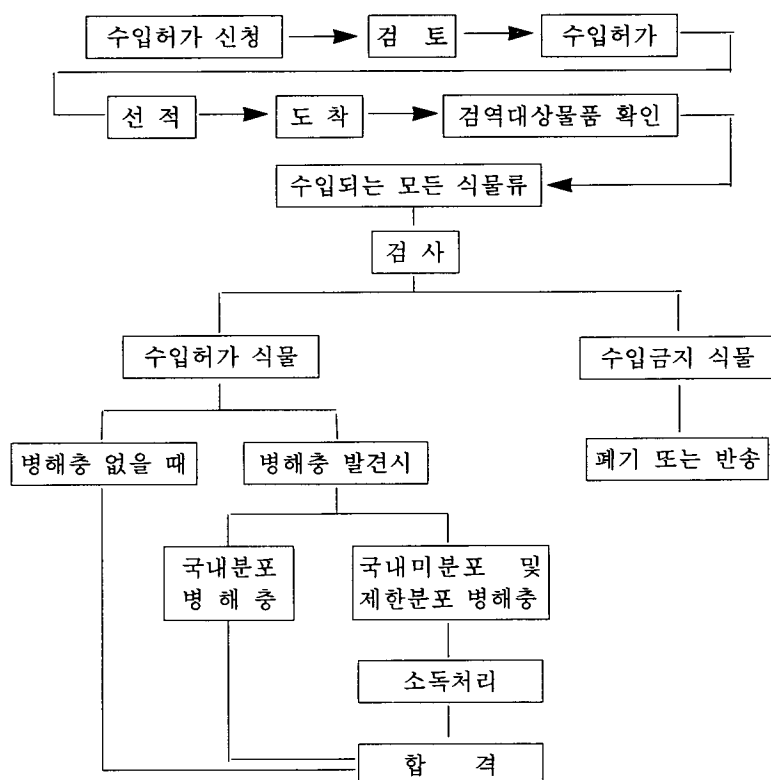


표 4-7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과채류

구 분	수 입 허 용 품 목
美 농무성의 수입허가 없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로부터 전 미국(미대륙·괌·알래스카·하와이·푸에르토리코와 버진군도 포함)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것	캐논볼 프루트·코코넛·워터넛·사이프러스 콤(방동사니속의 구경)·백합인경·땅콩(생것)·용설란잎·세인트 존스 브레드·타마린드콩 꼬투리·트라플(신선한것 버섯의 일종) 버섯(신선한 것)·마름·콘 스머트 골스
선적전에 발행된 미 농무성의 허가증이 있으면 한국으로부터 전 미국지역으로수입이 허용되는 것	배(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위생증명서가 첨부된 것에 한함)·우엉·무(뿌리)·마늘(구근)·생강뿌리·참깨(잎)·연뿌리·시금치·호박(잎)·참마(훈증처리된 것)
선적전에 발행된 미 농무성의 허가증이 있으면 한국으로부터 괌 및 북마리아나군도로만 수입이 허용되는것	귤·인과류(사과·배 등)·포도·핵과류(복숭아·자두등)·감·바나나 (과실·잎)·토마토·가지·양파·마늘·파·양배추·오クラ·상추·당근·파슬리·셀러리·배추·후추(잎)·순무(잎·줄기·뿌리)·고구마·국화속(쑥갓등의 잎·줄기)·아티초크(영경귀과)·호리병박·감자·대황·벨 페퍼·근대(잎)·스프링 빈(꼬투리가있거나 벗겨낸 것)
선적전에 발행된 미 농무성의 허가증이 있으면 한국으로부터 하와이의 호놀룰루로만 수입이 허용되는 것	감자·배
초기에 영하 17.8도이하로 급속 냉동시킨 후 도착시까지 영하 6.7도이하로 유지되는 냉동과실 및 채소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대부분의 과실 및 채소류

자료: 1990년 11월 미 농무성 동식물검역소 식물수입편람.

EC의 사과수입관리는 수입관세와 동식물검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입관세는 계절관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1월부터 3월까지는 8%, 4월부터 7월까지는 6%, 8월부터 12월까지는 14%의 관세가 부과된다. 식물검역은 국별로 이루어지는데 각국별로 자국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잔류농약검사, 위생검사 등이 실시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검역에 의한 수입규제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까다롭지 않다. 대부분의 과일이 식물검역증만 첨부되면 EC로 수출될 수 있다(단,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예외).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과일이 많다. 이탈리아는 감귤류, 복숭아, 자두, 살구, 버찌, 사과, 배, 포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스페인은 감귤류, 복숭아, 자두, 살구, 배, 사과, 멜론, 수박, 파인애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③ 수출전망

㉞ 가격경쟁력

주요 사과수출국들의 수출가격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가장 낮은 수출가격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체코슬로바키아로 1989년 현재 톤당 57\$에 불과하다. 그밖에도 헝가리(141\$/톤), 폴란드(156\$/톤)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출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시장경제가 도입되지 않은 이들 국가의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주요 사과수출국(15개국)들의 톤당 수출가격은 300~600\$ 수준이다<표 4-8>. 톤당 수출가격이 500\$를 넘는 국가는 네덜란드, 벨-룩스,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이며, 400\$ 이하의 수출국은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이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가격은 주요 15개 사과수출국 가운데 가장 비싸며 네덜란드보다 4~5배 비싸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산 사과는 품종과 품질이 독특하여 가격경쟁력 약화를 부분적으로 상쇄시키고 있다.

한국산 사과의 시장별 가격경쟁력은 한국산 사과의 주요 수출시장인

표 4-8 주요 사과수출국의 수출가격, 1989.

국 명	수출량(천톤)	수출가격(\$/톤)	국 명	수출량(천톤)	수출가격(\$/톤)
프 랑 스	681	544	벨-룩 스	156	569
칠 레	326	339	폴 란 드	80	156
형 가 리	318	141	카 나 다	76	337
이 태 리	280	471	터 키	73	316
미 국	276	503	중 국	65	389
남 아 공	225	396	체 코	65	57
아르헨티나	215	251	독 일	50	401
네 델 란 드	200	578	한 국	7	2,129
뉴 질 랜드	174	543	일 본	2	3,036

자료: FAO, 「Trade Yearbook」, 1989.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경쟁국인 칠레, 미국, 남아공 등에 뒤지고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앞서고 있다. 품질과 품종이 다른 미국, 남아공, 칠레 등의 사과와 가격경쟁력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품질과 품종이 비슷한 일본산 사과와 가격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산이 2배정도 싼 값에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로 생산·수출되는 후지사과는 경쟁국인 일본에 대해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㉔ 품질경쟁력

소비자의 기호는 국별, 연령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률적으로 품질경쟁력을 판단하기는 쉽지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장별로 대한무역진흥공사가 현지에서 파악한 소비자기호를 중심으로 한국산 사과의 선호도에 의해 품질경쟁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후지사과는 유럽이나 북미시장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시아지역의 경우 후지사과는 미국, 칠레, 남아공, 뉴질랜드 등의 Delicious 계통의 사과와의 경쟁에서 일반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 있

표 4-9 한국산 사과의 시장별 가격경쟁력

수입국 \ 수출국	한 국	일 본	칠 레	미 국	남아공	뉴질랜드	이태리
홍콩(1989) US\$/톤	1,539	2,839	587	817	778	642 ¹⁾	NA
싱가폴(1990) US\$/톤	2,596	4,448	1,267	1,714	NA	2,146	1,327
대만(1990) US\$/톤	2,669	5,185	583	624	NA	710	NA
프랑스(1989) Fr/톤	14,546	NA	4,582	NA	4,378	5,828	3,816
독일(1990) DM/톤	2,320	NA	1,406	NA	1,440	1,464	1,060

1) 1990년도 가격.

자료: FAO 「Trade Yearbook」, 1989, 1990.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유망 농산물 해외시장」, 1991.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농업정보」 제12호, 1991년 9월 30일.

다. 홍콩시장에서는 미국산 사과가 많이 판매되고, 칠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사과는 가격이 싸 미국산의 대체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 후지사과는 홍콩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미국산 사과의 4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후지사과를 선호하는 계층은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후지사과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 싱가포르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대만시장에서의 후지사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다. 그러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의 경우 후지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시장에서보다 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장에서도 일본계와 중국계 일부 수요층에 있어서 후지사과의 선호도는 높다.

EC시장의 경우 역내국간의 교역이 활발하여 대부분 프랑스와 이태리산 사과가 많이 수입되고 있다. 그밖에 수확시기의 차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칠레,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사과도 많이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산 사과의 수입은 거의 없어 품종이나 맛에 친숙하지 못하다. 최대 사과수입국인 독일의 경우 소비자들은 노란색이나 녹색계통의 단맛과 과즙이 풍부한 사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Golden Delicious가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이태리, 프랑스, 칠레,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벨기에의 경우 소비자들은 녹색이나 노란색을 빨간색 사과보다 선호하며 단맛이 강한 Jonagold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시장의 경우 McIntosh, Red Delicious, Golden Delicious 등을 선호하며, 후지의 품질도 이들과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보다는 중소형이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들의 식습관이 깍아서 나누어 먹는 형태가 아니고 썰어서 껍질채 1인 1개씩 먹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디저트용으로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소형을 선호하기도 한다. 깍지않고 썰어서 껍질채 먹는 식습관은 사과판매에 있어 껍질과 표면처리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즉, 껍질은 얇을수록 좋고, 표면은 불순물, 잔류농약, 흙집이 없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품종보다는 신선도, 색상 등 외양에 구매의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착색기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통기술, 포장 등이 실제 품질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산 사과의 수출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의 열위에도 불구하고 후지사과를 선호하는 계층에 대해 품질경쟁력을 통해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후지사과가 시장의 차별화로 기타 사과와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피하고 있다고 해도 현재의 한국산

사과가격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으므로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 수출확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최대의 수출시장이 될 수 있는 유럽시장의 경우 아직 후지사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단기간에 획기적인 시장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럽지역에서도 동양계 소비자와 동양식품점을 통한 판매수요는 존재하고 있다. 특히 UR 이후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미개척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④ 수출 증대방안

㉞ 수출의 문제점

최근에 나타난 한국산 사과의 수출장애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국내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충분히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사과가격을 급격히 인상시켜 사과수출업자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들마저도 수매에 응하기보다는 시중에 판매하는 것을 선호하여 수출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국산 사과의 수출수요분석에서도 수출수요가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에 매우 탄력적으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산 사과의 수출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ED_i = 57 - 5.7P_{di} + 11.8P_{xj} - 3.9P_{xi} + 0.7Y - 2.9Q_i$$

(3.8) (-2.5) (4.8) (-3.8) (0.8) (-2.3)

여기서,

ED_i : 사과의 수출수요 (Export Demand)

P_{di} : 국내 사과가격

P_{xj} : 배의 수출가격

P_{xi} : 사과의 수출가격

Y : 수입국 GNP

Q_i : 수입국 사과 생산량

() : T값

함수형태는 양대수(Double Logarithm)를 취했으며, R^2 는 0.922로 비교적 설명력이 높았다. 사과 수출수요의 국내가격탄성치는 -5.7, 수출가격탄성치는 -3.9로 수입국의 소득탄성치(0.9)와 생산량에 대한 탄성치(-2.9)보다 높았다. 이는 사과가격의 인하가 수출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요소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수출가격의 1% 인하는 4%의 수출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과수출은 시장편중 현상이 심하여 주수입국의 경제적, 경제외적 상황변화에 좌우될 위험이 크다. 한국사과의 주요 수출시장은 대만이며, 과거의 추세로 볼 때 사과수출이 다른 시장으로 이전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코브 연쇄모형에 의한 시장의 이전확률분석에서도 대만 이외의 기타시장에서 대만으로 이전될 확률은 0.9213으로 높은 반면 대만에서 기타시장으로 이전될 확률은 0.026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과수출에 있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의 생산, 수입국의 수입조건에 맞는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잔류농약문제로 1990년 캐나다에 대한 수출에서 통관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껍질이 얇고 크기가 중소형에 속하는 사과가 선호되지만 아직도 사과생산이 국내시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 수요자의 취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등에서 볼 수 있다. 사과의 수출증대 방안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위주로 논의되어야 한다.

㉞ 수출증대방안

가격경쟁력 제고: 한국의 사과수출량은 198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도 수출량은 198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수출량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가격의 상승에 있다. 1987~90까지의 연도별 수출가격 상승률은 15%, 73%, 44%, 12%로 이러한 수출가격 상승률은 세계평균 사과수출가격 상승률(동기간 중) 24%, 7%, 4%, -5%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비용절감과 생산성증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비용절감은 토지용역비 다음으로 비목이 큰 노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재배기술개발 및 기계화에 의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방제와 수확작업의 기계화로 노력비를 절감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며, 적과와 봉지씌우기 등을 통한 품질향상, 적정수령 유지와 토양관리를 통한 생산성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생산기반확충 및 품질향상: 기계화를 위해서도 생산기반의 정비와 경영규모의 확대는 필요하다. 전문생산단지가 육성되면 경영규모확대를 통하지 않고도 공동작업을 통한 기계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수출을 위한 수집, 선별, 포장 등 유통합리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단지화는 기술보급, 병충해방제, 품종별 전문생산, 품질향상에 도움을 줘 수출확대와 연결될 것이다. 수출을 위해서는 외국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사과의 경우 특히 껍질이 얇고, 착색상태가 좋은 중소형사과의 생산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단지화 또는 생산단지화는 소비자의 구매동기에 큰 영향을 주는 표면처리, 등급화와 표준화, 포장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품질, 포장, 규격, 잔류농약기준 등 수입국의 통관기준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의 확충은 수출증대의 전제조건임이 분명하다.

시장개척: 사과수출은 1976년 6개국에서 1990년 13개국으로 늘어났으나 수출물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이는 후지사과의 잠재적 수입국인 일본과, 한인교포와 동양계 거주민이 많은 미국시장을 개척하지 못한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미국 농무부의 사과수입허가 획득을 위한 통상외교와 생산기반정비가 필요하며, 일본시장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허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사과수입국인 독일을 포함한 유럽시장의 진출이 요구된다. 현재 유럽시장에서 후지계통의 사과는 소비자들에게 친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산 사과의 가격이 비싸 소비자들이 후지계통 사과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로운 수요창조를 위한 시험판매가 필요하다. 우선은 저가격으로 수출하여 소비자들에게 시험적 소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후지계통을 선호하는 소비층을 대상으로 서서히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자수출이 불가피하며 이는 공공단체나 사과수출진흥기금(가칭)과 같은 출연기금에서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수출선유지: 국내수급이 수출을 좌우하고 있어 수출시장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수출신용도를 하락시키고 있다.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대한 과거의 최대 수출량만을 유지했다고 해도 이들 4개 시장에 대한 수출은 1990년도의 수출량 8,400톤보다 1만톤 이상이 많은 18,500톤의 수출이 가능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새로운 시장개척에 따른 적자와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척된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타: 해외시장에서의 판매는 1~2개월 정도의 유통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신선도와 품질유지를 위한 운송, 유통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각국의 소비자 기호, 통관절차, 유통방법 등 해외시장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시장정보의 수집·분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수출을 위해서는 생산, 포장(디자인, 상표부착 등) 등에 있어서 국제적 지식과 감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업농 양성 및 생산자의 해외연수도 필요하다.

나. 배

① 국내외 생산 및 교역현황

배는 강원도 일부 산간지를 제외하고 한국의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여 폭넓게 재배되고 있다. 남부지방과 서해안지방에서는 만생종을, 중부지방에서는 조·중생종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1990년도 한국의 배생산량은 16만톤, 재배면적은 9천ha이다. 미과수의 식부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생산량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표 4-10 한국의 배생산 및 가격동향

	식부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수출량 (톤)	소비량 (천톤)	국내가격 (원/kg)	수출가격 (\$/ton)
1980	9	60	2,323	58	307	756
1981	9	72	5,161	67	340	742
1982	10	96	7,434	89	306	714
1983	10	106	2,631	103	288	756
1984	9	101	2,471	99	322	740
1985	9	128	2,639	125	411	944
1986	9	135	5,325	130	533	919
1987	8	145	4,874	140	597	1,246
1988	8	192	5,943	186	707	1,380
1989	9	199	5,262	194	726	1,532
1990	9	159	4,361	155	735	1,559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각년도.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조사월보」, 제407호, 1991. 8.

배의 1990년도 세계생산량은 980만톤으로 한국의 생산량 16만톤은 세계생산량의 1.6%에 이르는 것이다. 배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으로 1990년도 생산량 290만톤은 세계 배생산의 30%에 달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태리(90만톤 생산), 미국(87만톤), 소련(50만톤), 일본(46만톤), 스페인(45만톤), 터키(43만톤) 순이다.

최근 배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미국, 한국으로 1985~90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5.9%, 5.7%, 4.8%였다. 한편 소련, 스페인, 프랑스의 배생산량은 연평균 3~5%씩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배생산량도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중국, 터키,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배생산은 세계평균 증가율(1985~90 기간) 1.3%보다 3~4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표 4-11 주요 배생산국별 생산량

단위: 천톤

	중 국	이태리	미 국	소 련	일 본	스페인	터 키	서 독	프랑스	한 국	세 계
1985	2,257	806	678	600	470	595	370	335	435	128	9,239
1986	2,458	913	695	625	489	373	380	499	370	135	9,576
1987	2,615	894	853	400	477	521	370	294	440	145	9,533
1988	2,813	997	781	480	454	457	410	498	345	192	10,230
1989	2,702	755	831	600	472	548	430	347	344	199	9,885
1990	2,931	900	870	500	461	445	430	329	320	159	9,840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1987, 1988, 1990.

에 따라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5년 중국, 터키, 한국이 각각 24.4%, 4%, 1.4%에서 29.8%, 4.4%, 1.6%로 증가하였다.

㉔ 배의 교역현황

배의 세계적 교역규모는 1989년 현재 91만톤으로 세계 총생산량 967만톤의 9.4%에 이른다. 1989년도 세계 최대 배수입국은 서독으로 세계 배수입량의 15.4%인 14만톤을 수입하였다. 서독 다음으로 큰 수입국은 이탈리아(12만 5천톤 수입, 세계수입량의 13.8%), 영국(9만8천톤, 11%), 프랑스(7만5천톤, 8.3%), 홍콩(5만6천톤, 6.2%), 브라질(5만톤, 5.5%) 순이다.

지난 1985~89 기간중에 세계 배수입량은 39% 증가하였다. 국별로는 이탈리아 98%, 미국 86%, 벨-룩스 67%, 네덜란드 52%의 증가를 기록했으며, 브라질, 영국, 캐나다 등도 40%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배의 세계 교역규모가 급격히 신장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주요 관심 시장인 미국, 캐나다, EC의 수입증가율이 세계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외부적인 수출여건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최대의 배수출국은 아르헨티나로 세계 배수출량의 14%에 달하는 13만톤을 수출하고 있다. 그밖에 주요 수출국은 중국(11만톤 수

출), 프랑스(9만톤), 화란(9만톤), 미국(8만톤), 이태리(8만톤) 등이다. 동양배의 주수출국인 일본과 한국의 수출량은 1989년도에 각각 9천톤과 5천톤이었다<부표 참조>. 지역별로는 유럽이 전체 수출량의 40%이상을 차지하여 최대 수입지역인 동시에 수출지역이다. 순수입(수입-수출)지역은 유럽과 중·북미지역으로 각각 22만6천톤, 2만5천톤의 순수입량을 보이고 있으며, 순수출지역은 남미(15만5천톤), 아시아(3만톤), 아프리카(6만5천톤) 등이다.

한국산 배의 주요 수출시장은 대만과 싱가포르, 미국 등이다. 1990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대만에 대한 수출은 전체수출량 4,360톤의 33%, 싱가폴은 31%, 미국은 17%로 전체 수출량의 80%이상이 이들 3개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와 네델란드에 각각 350톤과 100톤이 수출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한국의 배수출량은 4천~5천톤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최대 수출시장인 대만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인도네시아, 네델란드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전체 수출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반면 1970년대 후반 한국산 배의 주요 시장이었던 일본, 홍콩, 필리핀에 대한 수출은 최근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배수출시장은 다변화되어 1976년 9개국에 수출하던 것이 1990년에는 18개국으로 늘어났다. 수출량도 같은 기간중 3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배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세계 제2위의 수입국인 이태리, 최대 수입지역인 유럽, 1990년도에는 잔류농약 문제로 통관이 이루어지지 못한 캐나다, 최고 1,100톤까지 수출이 가능했던 홍콩 등에 대한 시장개척 및 수출선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② 주요 수입국의 수입제도

각국의 배에 대한 수입제도는 사과와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과와 다른 수입관세와 특기사항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수입제도에 관한 필요한 부분은 사과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4-12 주요 배수입국의 수입현황

단위: 수입량=천톤, 수입액=천\$, 수입가격=\$/톤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입 량	수입액	수입 가격	수입 량	수입액	수입 가격	수입 량	수입액	수입 가격	수입 량	수입액	수입 가격	수입 량	수입액	수입 가격
독일(서독)	122	52,471	430	107	64,965	607	144	99,132	688	140	96,724	691	140	98,957	707
이 태 리	63	31,960	507	61	36,029	591	94	60,755	646	103	72,003	699	125	79,440	636
영 국	69	33,944	492	64	44,737	699	77	57,268	744	92	72,975	793	98	86,588	884
프 랑 스	59	34,181	579	60	47,309	788	65	54,813	843	81	64,736	799	75	68,284	910
홍 콩	52	25,226	485	54	26,356	488	53	29,035	548	59	36,811	624	56	31,402	561
브 라 질	35	11,875	339	32	16,001	500	50	22,802	456	50	21,100	422	50	21,500	430
네델란드	31	14,018	452	29	18,641	643	34	21,697	638	44	27,907	634	47	31,462	669
카 나 다	33	22,076	669	35	23,953	684	43	27,008	628	43	30,475	709	47	34,776	740
미 국	21	13,343	635	25	20,662	826	32	33,339	1,042	33	33,025	1,000	39	33,161	850
스웨덴	22	16,926	497	23	16,491	717	30	22,161	739	31	23,169	747	30	22,865	762
벨 룩 스	15	5,656	377	15	9,510	634	21	13,867	660	16	10,746	672	25	17,124	685
싱가폴	23	16,799	730	26	16,770	645	24	19,093	795	24	20,098	837	23	20,068	873
멕시코	1.5	1,227	818	2	1,700	850	2	834	417	1	573	573	21	11,500	548
스페인	11	4,281	389	5	2,894	579	11	7,994	727	14	8,558	611	19	15,135	797
오스트리아	14	5,567	398	12	6,793	566	16	10,171	636	17	11,212	659	17	10,001	588
노르웨이	11	4,758	432	16	9,873	617	14	9,345	668	12	7,460	622	14	11,544	825
세 계	653	330,881	507	622	411,034	661	783	554,042	708	846	605,184	715	907	656,325	724

자료: FAO 「Trade Yearbook」, 1987, 1989.

주요 배수입국의 관세율은 일본 20%, 인도네시아 30%, 미국 kg당 1.1센트(7월부터 2월까지, 3월부터 6월까지는 무관세), EC 10%(1월~3월까지) 등이다. EC의 경우 계절관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5%,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3%, 그 밖의 기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배수출시기에는 10~13%의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싱가폴과 인도네시아는 배생산이 없는 국가로 검역이 요구되지 않거나 까다롭지 않다. 검역이 까다로운 국가는 사과와 마찬가지로 일본, 미국, 캐나다, EC를 들 수 있으며, 특히 이들 국가는 잔류농약, 등급, 포장, 규격 등에 대한 검사가 까다롭고, 이러한 사항들이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수출전망

㉞ 가격경쟁력

주요 배수출국들의 수출가격을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톤당 수출가격이 모두 1,000달러 이하이다. 198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아르헨티나, 미국, 칠레, 유고슬라비아 등의 수출가격이 비교적 낮아 톤당 500달러를 넘지 않는다. 반면 이태리, 네덜란드, 벨-룩스, 호주 등의 수출가격은 톤당 700~900달러로 높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신고와 20세기라는 독특한 품종의 동양배를 수출하여 수출가격은 다른 수출국들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나 동양배의 서양배와의 수출가격 차이는 사과의 경우보다 작다.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주요 수출국가운데 가장 낮은 수출가격을 보이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가장 높은 수출가격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차이는 5배 정도에 불과하다(사과의 경우 12배).

표 4-13 한국의 국별 배수출현황

단위: 백톤, 천\$

	대 만		싱 가 폴		일 본		홍 콩		미 국		화 란		계 *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가 출 격
1976	9	353	13	364	3	100	2	73	0	0	0	0	33	1,219	370
1977	3	156	21	792	4	186	4	162	0	0	0	0	43	1,877	435
1978	4	286	19	866	3	167	11	680	0	0	0	0	46	2,488	546
1979	1	53	9	619	0	5	2	169	0	0	0	0	17	1,197	709
1980	7	536	9	786	0	23	0	19	0	0	0	0	23	1,755	756
1981	38	2,608	7	651	0	24	1	66	0	0	0	0	52	3,831	742
1982	51	3,323	12	1,099	0	0	1	100	0	0	0	0	74	5,305	720
1983	9	505	11	964	0	5	1	103	0	0	0	0	26	1,990	756
1984	0	11	19	1,369	0	0	1	53	0	0	0	0	25	1,828	740
1985	9	810	13	1,114	1	70	0	0	0	0	0	40	26	2,490	944
1986	20	1,807	20	1,555	0	31	0	32	1	265	2	256	53	4,893	919
1987	21	2,439	12	1,133	0	35	0	2	8	1,569	1	135	49	6,072	1,246
1988	26	3,542	14	1,478	0	0	0	32	9	1,888	1	183	59	8,200	1,380
1989	23	3,829	14	1,424	0	0	0	5	9	2,036	1	109	53	8,062	1,532
1990	14	2,583	13	1,403	0	0	0	9	7	1,787	1	133	44	6,799	1,559

* 기타국가가 빠져 있으므로 일본,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의 합과 차이가 있음.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표 4-14 주요 배 수출국의 수출가격, 1989.

국 가	수출량(천톤)	수출가격(\$/톤)	국 가	수출량(천톤)	수출가격(\$/톤)
아르헨티나	130	431	남 아 공	67	642
중 국	110	518	벨 - 룩스	53	825
프 랑 스	94	630	스 페 인	43	650
네 델 란 드	87	854	유 고	21	322
미 국	83	482	호 주	21	732
이 태 리	79	947	일 본	9	2,199
칠 레	74	458	한 국	5	1,380

자료: FAO, 「Trade Yearbook」, 1989.

한국산 배의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경쟁국인 미국, 호주, 중국 등에는 뒤지나 일본에 대해서는 앞서고 있다. 주요 배수출국인 아르헨티나, 미국, 호주, 중국 등은 한국산 신고배나 일본산 20세기배와는 품종과 품질이 크게 다른 배를 생산하고 있어 품질에 대한 고려(예: 품질계수 적용) 없이 직접 가격만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한국산 배와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경쟁력을 보면, 한국의 주요 배수출시장인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한국산 배는 2배 정도 싼값에 팔리고 있다. 일본산 배가 이들 시장에서 한국산보다 2배 정도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어 동양배시장에서 한국산 신고배의 가격경쟁력 확보는 가능하다.

㉔ 품질경쟁력

한국산 배가 수출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시장의 경우 한국의 신고배와 일본의 20세기배와 같은 동양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홍콩시장에서도 판매량에 있어서는 중국산이 70~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며 한국이나 일본산 배에 대한 선호도가 낮기 때문은 아니다. 예를들면 일본산 배

표 4-15 한국산 배의 시장별 가격경쟁력

수출국 시장	한국	일본	중국	아르헨	칠레	미국	호주	이태리	남아공
대만(1990) NT\$/톤	51,147	NA	NA	NA	NA	15,600	14,800	NA	NA
홍콩(1989) US\$/톤	1,539	1,780	402	NA	595	NA	NA	NA	851
싱가폴(1990) 천S\$/톤	2,026	4,570	1,270	NA	NA	1,993	1,884	NA	NA
미국(1990) US\$/톤	2,155	2,483	NA	420	363		826	NA	NA
캐나다(1989) C\$/톤	1,150	NA	NA	1,113	1,146	797	1,156	NA	NA
독일(1989) DM/톤	1,682	2,290	NA	1,415	1,463	NA	NA	1,305	1,467
화관(1989) DFL/톤	2,561	5,387	NA	1,599	1,417	1,345	1,921	1,506	1,579

자료: FAO, 「Trade Yearbook」, 1989, 1990.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유망 농산물 해외시장」, 1991.

의 가격이 중국산에 비해 4배 이상 비싸도 연간 판매량이 4천톤(홍콩 시장의 20%정도 점유율을 보임)에 이르고 있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뉴질랜드 등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이들 남반구 국가들은 수확 및 판매시기가 한국과 다르고 품질과 품종의 차이가 확실하여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도 동양배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와 미국도 동양배 생산을 늘리고 있다. 동양배 시장에서 칠레산은 한국인 교포들에게도 평판이 좋을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산보다는 뒤지고 있다. 한국산은 일본산 배와는 대등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나 홍보, 마케팅(등급화, 규격화, 포장 등)기술, 사후관리 등에서 일본에 뒤져 우세한 가격경쟁

력에도 불구하고 동양배시장을 석권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카나다는 각각 4~5만톤씩을 매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간 수입증가율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시장은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수입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수입배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등 가격경쟁력과 지리적 조건이 품질경쟁력에 의한 시장점유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EC시장에서의 동양배에 대한 선호도는 아시아나 미주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최대의 배수입국인 독일의 경우 소비자들은 초록색의 과즙이 많은 배를 선호하고 있어 주로 이태리, 프랑스,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서양배를 수입하고 있다. 동양배는 일본산과 프랑스에서 재배된 동양배가 수입되고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다. 특히 프랑스에서 재배된 동양배의 가격이 일본산의 $\frac{1}{2}$ 에도 못미치나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은 동양배의 맛에 친숙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도 육질이 부드럽고 약간 신맛의 배가 일반적으로 선호되고 있어 동양배는 아시아계 식품점을 통해 제한된 판매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국가들에 있어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가격경쟁력으로 볼 때에는 한국산 배가 일본에 대해서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산 배는 서양배와는 품질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며 동양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맛과 품질면에서 한국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어 동양계 시장에 있어서 신고배의 수출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동남아시아와 서구지역의 동양계 주민들에 대한 잠재적 수출수요는 크다고 보여진다. 동양계 시장에서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사실상 경쟁상대국은 일본으로 볼 수 있으나, 일본은 20세기배 재배면적이 최근 연간 200ha 정도씩 감소하고 가격경쟁력에서도 한국에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배수입은 연간 4만톤 규모이며, 지난 10년간(1981~90) 연평균 18%의 높은 배수입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도 한국의 배수출

전망을 밝게 해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유럽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의 동양배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장기적으로 입맛들이기(시식기회제공 등)와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④ 수출 증대 방안

㉞ 수출의 문제점

배의 경우도 사과와 유사한 수출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내 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내수요 증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배값 상승이 국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생산기반의 취약성, 노동력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등은 배수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산 배에 대한 수출수요 분석결과는 사과와는 다르게 가격탄성치보다는 소득탄성치가 높고 이들 탄성치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²⁾ 그러나 유의성이 낮아 설명력이 약하다. 함수형태는 사과와 같은 양대수 형태이다.

가격경쟁력 약화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을 확대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출시장은 1976년 9개국에서 1990년 18개국으로 늘었으나 수출량은 3,300톤에서 4,360톤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격경쟁력 약화는 그간 개척해 놓은 수출시장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난 15년간(1976~91)의 주요 10개 수출시장에 대한 최대 수출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1990년도의 배수출은 12,000톤에 달했을 것이다 <표 4-16 참조>.

$$2) \text{EDi} = 27 - 0.32\text{Pxi} + 0.66\text{Y} - 1.86\text{Qi}$$

$$(2.1) \quad (-0.5) \quad (1.7) \quad (-1.6), R^2 = 0.33$$

여기서,

EDi: 배의 수출수요, Pxi: 배의 수출가격, Y: 수입국의 GNP,

Qi: 수입국 배생산량을 나타내며, ()내는 T값이다.

표 4-16 한국의 시장별 배수출 감소

단위: 톤, %

국 가	최대수출량 (연도)	현 재 (1990)	감소율	국 가	최대수출량 (연도)	현 재 (1990)	감소율
일 본	389(1977)	1	99.7	카 나 다	170(1986)	0	100.0
대 만	5,121(1982)	1,438	71.3	영 국	200(1986)	7	96.5
필 리 핀	128(1977)	4	96.9	화 란	212(1986)	100	52.8
홍 콩	1,095(1978)	5	99.5	미 국	932(1989)	744	20.2
싱 가 폴	2,076(1977)	1,342	35.4	인도네시아	958(1977)	349	63.6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한국산 배의 주요 수출시장은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로 이들 시장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기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시험수출의 단계에 있는 상태이다. 마코브모델에 의한 수출이전 확률 분석에서도 대만으로의 시장편중 현상 및 시장다변화의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났다.

대만으로의 이전확률은 1.5를 넘어 기타시장으로부터 대만시장으로 수출시장이 편중될 확률이 높은 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기타국가들로의 이전확률은 1.0을 밑돌고 있어 이들 시장이 대만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증대와 수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장다변화도 수출 증대에 있어 하나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표 4-17 배수출의 이전확률

	대 만	싱 가 폴	말레이시아	기 타
대 만	0.7499	0.0815	0.0512	0.1174
싱 가 폴	0.3074	0.5960	0.0028	0.0937
말레이시아	0.6481	0.	0.3519	0.
기 타	0.	0.3007	0.	0.6992

(4) 수출 증대방안

과제별, 지역별 수출 증대방안은 사과와 유사하여 여기서 다시 기술하지 않는다. 다만 몇가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만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수급을 고려할 때 이미 개척되어 있는 동남아시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서양시장에 대한 진출을 위해서는 식식기회 제공을 위한 저가수출, 껍질의 두께와 색상을 향상시키는 기술, 포장기술 등의 향상이 필수적이다. 수출초기에 물량이 많지 않을 경우 수입국의 수입업자를 한곳으로 선정하여 수입검사와 통관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여 통관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한편 프랑스, 칠레, 미국 등 동양배 생산 및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품질, 기술, 시장 전략에 대한 정보와 이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밀감

① 국내외 생산 및 교역현황

㉞ 국내외 생산현황

밀감³⁾은 경남과 전남지방에서도 미미한 생산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도를 중심으로 집단재배되고 있다. 1990년도 밀감생산량은 49만톤으로 사과 다음으로 생산이 많은 과일이다. 밀감의 국내생산 및 소비는 최근(1985~90) 연평균 6.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89년도에는 75만톤이 생산되어 국내과일 가운데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1989년도의 생산량 수준은 일본, 스페인 다음으로 한국을 세계 제3위의 밀감생산국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다. 밀감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은 계속 증가추세 있다. 지난 1986~90 기

3) 본연구에서 밀감은 탠저린·맨더린류를 말하며, Orange와는 구별되는 개념임.

표 4-18 한국의 밀감 생산 및 가격동향

	식부면적 (천ha)	생 산 량 (천톤)	수 출 량 (톤)	국내가격* (원/kg)	수출가격 (\$/톤)
1982	13.6	278.8	0	395.7	0
1983	14.8	330.6	1	310.1	1,000
1984	15.5	261.1	0	595.7	0
1985	15.7	370.5	0	442.9	0
1986	16.8	339.5	0	544.8	0
1987	18.2	441.0	2	507.7	1,000
1988	18.2	414.9	4	696.5	1,250
1989	18.2	746.5	10	401.9	1,500
1990	19.0	493.0	189	894.7	921

* 도매시장 경락가격임.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각년도.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귤 가공공장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조사연구
(중간보고), 1991.10.

간중 한국의 밀감생산은 45%에 달하며 이러한 생산량증가는 주요 밀감생산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밀감의 세계 최대 생산국은 일본으로 1990년도 세계 밀감생산량 880만톤의 23%인 205만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1979~81 평균 생산량 311만톤(세계 총생산량 770만톤의 40%)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과실류의 수입개방으로 밀감의 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1985년 연간 1인당 소비량은 10.7kg에서 1989년 8.6kg으로 감소). 199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다음으로 밀감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페인(151만톤, 세계 생산량의 17.2%), 브라질(64만톤, 7.3%), 한국(49만톤, 5.6%), 이태리(48만톤, 5.5%) 등이다. 주요 밀감생산국 가운데 생

산증가율이 높은 국가들은 스페인, 한국, 중국, 파키스탄 등이며, 생산감소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일본, 이태리, 미국 등이다.

㉔ 밀감의 교역현황

밀감은 1988년 기준으로 세계 밀감생산량 849만톤 가운데 14.5%인 123만톤이 교역(수출기준)되고 있다. 밀감의 최대 수출국은 스페인으로 1988년에 75만톤을 수출한 바 있다. 이는 세계 밀감류 수출량의 61%에 달하는 것이다. 다음은 모로코(17만톤, 세계 수출량의 13.5%), 터키(8만톤, 6.8%) 순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밀감류 생산국이나 수출실적은 미미하여 연간 수출량은 2만톤 내외이다. 대만, 파키스탄, 미국도 연간 2만톤 정도씩을 수출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7개국의 수출량이 전체의 9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밀감류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쟁해야 할 국가들은 스페인, 모로코, 터키, 일본, 대만, 파키스탄, 미국 등으로 볼 수 있다.

표 4-19 주요 밀감생산국별 생산량

단위: 천톤

	일본	스페인	브라질	한국	이태리	파키스탄	중국	이란	미국	아르헨티나	모로코	세계
1986	2,168 (27.5)	1,164 (14.8)	663 (8.4)	340 (4.3)	532 (6.7)	385 (4.9)	259 (3.3)	NA	411 (5.2)	243 (3.1)	346 (4.4)	7,888
1987	2,475 (29.3)	1,307 (15.5)	672 (8.0)	441 (5.2)	334 (4.0)	400 (4.7)	350 (4.2)	NA	502 (6.0)	260 (3.1)	290 (3.4)	8,433
1988	1,998 (23.5)	1,255 (14.8)	640 (7.5)	415 (4.9)	410 (4.8)	407 (4.8)	375 (4.4)	348 (4.1)	514 (6.1)	283 (3.3)	303 (3.6)	8,487
1989	2,015 (21.6)	1,453 (15.6)	650 (7.0)	747 (8.0)	476 (5.1)	410 (4.4)	381 (4.1)	376 (4.0)	525 (5.6)	290 (3.1)	420 (4.5)	9,337
1990	2,045 (23.3)	1,508 (17.2)	640 (7.3)	493 (5.6)	480 (5.5)	420 (4.8)	385 (4.4)	376 (4.3)	326 (3.7)	250 (2.8)	225 (2.6)	8,792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1988, 1990.

표 4-20 주요 밀감 수출국의 수출실적

단위: 수출량=천톤, 수출액=천\$, 수출가격=\$/톤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 량	수출액	수출 가격	수출 량	수출액	수출 가격	수출 량	수출액	수출 가격	수출 량	수출액	수출 가격	수출 량	수출액	수출 가격
스 페 인	914	317,575	347	728	264,824	364	1,051	491,153	467	823	480,778	584	747	484,831	649
모 로 코	130	39,808	306	167	61,826	370	162	67,088	414	145	62,724	433	166	68,573	413
터 키	32	8,410	263	47	13,247	282	59	16,546	280	54	14,546	269	84	24,755	295
일 본	25	17,286	691	25	16,888	675	18	16,211	901	23	18,002	783	23	19,805	861
대 만	16	11,042	690	15	10,310	687	18	11,847	658	15	11,185	746	24	13,459	561
파키스탄	37	5,558	150	33	5,842	177	29	3,770	130	28	3,363	120	20	2,605	130
미 국	22	11,559	525	24	12,856	536	22	11,502	523	17	9,007	529	17	9,761	574
한 국 ¹⁾	0	0	0	0	0	0	0	0	0	0.0015	2	1,333	0.0041	5	1,220
세 계	1,330	469,551	353	1,210	452,196	374	1,549	706,994	456	1,358	751,723	554	1,230	713,806	580

1) 한국의 1989, 1990년도 수출실적은 각각 9.8ton과 188.5ton 이었으며, 수출단가는 톤당 1,552\$와 922\$이었음.

자료: USDA, 「Fruit and Tree Nuts」, 1990, 8.

밀감류의 수입에 관한 국별 자료는 입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오렌지를 포함한 모든 Citrus의 국별수입에 의존하여 감귤류의 잠재적 수입국을 살펴보고자 한다. Citrus의 세계 최대 수입국은 독일(동독과 서독)로 1989년도에 95만 5천톤을 수입하여 세계 수입량의 18%를 차지하였다. 프랑스도 91만 2천톤을 수입, 세계 수입량의 17%에 달하고 있다. 영국과 네델란드도 각각 연간 50만톤 이상을 수입하여 유럽 국가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73%에 이른다. 그밖에 단일 국가로서는 캐나다(27만톤 수입)와 소련(24만톤 수입)의 수입량이 많은 편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일본이 각각 20만톤, 17만톤, 13만톤의 수입을 보이고 있어 세계 15대 수입국에 속한다<부표 5 참조>.

한국의 밀감수출은 시험수출 단계에 있다. 한국산 밀감은 1980년도에 태국으로 9톤이 수출되었으나 그 이후 1986년까지는 수출실적이 없다. 1987~89 기간중에도 수출은 10톤 미만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0년도에는 캐나다시장 개척에 힘입어 총 189톤을 수출하게 되었으며 1991년도에는 캐나다에 1천톤을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② 주요 수입국의 수입제도

주요 수입국은 EC,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일본 등이며, 수입제도는 사과와 유사하다. 다만 일본의 밀감수입에 대한 관세율은 20%이며(수입자유화 품목), 캐나다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수입제도상의 문제로 수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수출시장은 없다고 본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에 타결되고 동식물검역 분야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면 제도상의 장애요인은 훨씬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농무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나 이러한 문제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에도 계속 남아있을 전망이다.

③ 수출전망 및 증대방안

한국산 밀감의 주수출시장은 캐나다이다. 그밖에도 태국, 괌, 필리핀, 싱가포르, 독일에도 수출실적이 있으나 물량은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산 밀감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시장별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다음은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수출유망 농산물 해외시장」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시장별 수출가능성을 분석한 것이다.

밀감의 최대 생산국인 일본의 밀감생산 및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1990년도 수입량은 280톤에 불과).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수출시장으로서 보다는 수출경쟁국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일본 소비자들은 당도가 높고 산도는 낮은 중소형 밀감을 선호하며 한국산은 당도와 산도에서 일본에 뒤지나 가격은 10%정도 싸다. 한국의 밀감은 수출시장에서 대일본 가격경쟁력에는 문제가 없다.

홍콩의 밀감시장 규모는 3만톤 정도이다. 과즙이 많고 당도가 높은 대만산이 선호되고 있다. 중국산은 가격경쟁력의 우위에 의해 홍콩시장의 60%정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은 색상 및 표면처리에서 대만산에 뒤져 고급품으로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호주산 밀감은 당도와 과즙면에서 대만보다 앞서고 있고 출하시기도 달라 대만산보다 2배정도의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 1989년도 홍콩의 국별 톤당 수입가격을 보면 중국 445달러, 대만 617달러, 호주 1,500달러 등이다. 한국의 수출가격은 1,552달러였다.

말레이시아는 연간 1만톤 정도의 밀감을 수입하고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이 대만산보다 선호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1990년도 수입가격은 톤당 말레이시아달러로 중국산 1,794, 대만산 2,059, 호주산 1,944, 파키스탄 1,506이다.

한국산 밀감이 수출되기 위해서는 가격이나 품질 어느 것에도든지 특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도 연간 1만5천톤정도의 밀감을 수입하고 있으나 소비는 중국계 주민들의 최대명절인 음력 1월에 집중되

어 있고 기타 기간에는 거의 없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가격경쟁력으로 호주는 품질과 수확의 계절적(봄, 여름) 특성을 살려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대만은 이들 국가들의 중간적 입장(가격과 품질면에서)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90년에 17톤을 수출한 바 있으며 수출가격은 톤당 1,647싱가폴달러로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나 파키스탄과 중국보다는 높았다. 맛에 있어서는 호주산을 능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호주산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으로 그리고 중국과 파키스탄산에 대해서는 품질경쟁력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호주산과는 계절적 차이로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 대만이 한국과 가장 비슷한 여건속에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산과의 경쟁에서는 가격경쟁력 확보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밀감수출시장은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1990년에 8만5천톤의 밀감을 수입한 바 있다. 모로코, 스페인, 일본, 미국이 1만톤이상씩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 4개국은 시장점유율면에서도 비슷하다. 이들 주요 4개 수출가운데 미국이 가장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의 수출가격에 161톤을 시험수출하였으며, 이 정도 가격에서는 수출물량의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1990년도 대캐나다 수출가격은 수출업자의 적자를 가져왔으며,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모로코와 스페인, 일본 등이 톤당 1,400~1,600CS\$에 수출하고 있어 한국도 이들 3개국 수준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한다면 적자수출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품질경쟁력이다. 캐나다시장에서 밀감의 품질은 각국이 비슷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모로코와 스페인산은 극동산에 비해 당도는 높으나 껍질이 두꺼워 먹기에는 불편한 면이 있다. 그러나 껍질이 두꺼운 것은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산과 한국산은 약간 신맛을 가지고 있으나 껍질이 얇아 먹기에 편하다. 또한 약간의 신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어 일본산의 판매는 매우 활발하다. 따라서 한국산

표 4-21 싱가포르시장에서의 한국 밀감의 가격경쟁력

단위: 톤, 천성\$, 성\$/톤

	1988			1989			1990		
	수입량	수입액	수입가격	수입량	수입액	수입가격	수입량	수입액	수입가격
중 국	8,382	13,091	1,562	8,021	12,256	1,528	8,320	12,400	1,490
대 만	6,050	10,521	1,739	5,398	8,451	1,566	4,912	8,013	1,631
호 주	252	690	2,738	453	1,211	2,673	498	1,419	2,849
파키스탄	254	348	1,370	453	498	1,099	1,041	1,090	1,047
일 본	26	70	2,692	16	58	3,625	7	28	4,000
한 국	0	0	0	0	0	0	17	28	1,647
미 국	0	0	0	0	0	0	16	24	1,500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유망 농산물 해외시장」, 무공자료 91-66, 1991.

도 수출전망이 밝은 편이다.

한국의 밀감은 품질면에서 경쟁국들과 뒤지지 않으나 가격경쟁력은 대만에는 뒤지고 있다. 그러나 경쟁국인 일본과는 품질경쟁력에서 비슷하며 가격경쟁력에서는 앞서고 있어 수출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밀감생산은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이 분산되어 있는 여타 과일에 비해 수출기반조성이 용이하다. 따라서 사과와 배의 경우에 제시된 수출증대방안 가운데 특히 가격경쟁력 제고 부분정도만 해결되어도 수출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해외시장에 있어서의 수출증대방안으로는 북미지역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한인청과상들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벌이면 수출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산 밀감이 표피가 얇아 먹기에 편하나 보관 및 유통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유통관리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밀감은 오렌지와는 차별화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밀감의 최대 생산

표 4-22 캐나다시장에서의 한국 밀감의 가격경쟁력

단위: 톤, 천C\$, C\$/톤

	1988			1989			1990		
	수입량	수입액	수입가격	수입량	수입액	수입가격	수입량	수입액	수입가격
모 로 코	19,420	27,617	1,422	15,325	22,805	1,488	14,377	23,080	1,605
스 페 인	6,582	9,397	1,428	8,594	11,908	1,386	13,902	19,649	1,413
일 본	13,424	17,258	1,286	13,903	16,300	1,172	11,604	16,766	1,445
미 국	9,711	11,651	1,200	8,112	8,849	1,091	10,051	10,669	10,061
아르헨티나	697	1,139	1,634	3,344	3,191	954	3,726	4,185	1,123
중 국	3,201	2,503	782	1,803	1,598	886	3,403	3,805	1,118
호 주	654	793	1,213	959	1,372	1,430	1,133	1,502	1,326
대 만	659	717	1,088	476	610	1,282	1,070	1,103	1,031
한 국	0	0	0	0	0	0	161	171	1,061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유망 농산물 해외시장」, 무공자료 91-66, 1991.

국인 일본의 생산량 및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어 일본이 개척해 놓은 미국 및 캐나다 시장의 대체 확보 노력으로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미국시장에 대한 수입허가 획득과 한인청과상을 비롯한 수입업자들에 대한 판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표피가 얇아 가공이 용이한 한국산밀감의 가공수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라. 화훼류

① 국내외 생산 및 교역현황

㉞ 국내외 생산현황

화훼류는 한국에서 과수와 함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 가운데 하나이다. 1975년 불과 1,075ha에서 1990년 3,500ha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생산액도 같은 기간중에 67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늘어났다. 생산액 기준으로 볼 때 1990년도 화훼류 생산

은 분화가 995억원, 절화가 592억원, 관상수가 558억원 순이다. 기타 구근류와 화초종자는 53억원에 불과하다. 화훼재배 농가수는 9,000호이다. 화훼재배는 점차 시설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1980년도에는 노지재배와 시설재배의 면적비율이 10:1정도였으나 1990년에는 시설재배면적이 노지재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절화와 분화의 생산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상수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한국의 화훼산업이 절화와 분화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화류 가운데서는 국화의 비중이 가장 크고(28.6%), 다음으로는 안개초(17.6%), 장미(15.8%), 백합(8.4%), 카네이션(7.0%) 순이다. 최근에는 거베라, 카네이션, 안개초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분화류는 야자, 관음죽, 소철, 난류 등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액과 재배면적 모두에서 1988년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세계 최대의 화훼류 생산국이다. 일본은 재배면적에서 그리고 네델란드는 생산액에서 각각 세계 제2위의 화훼류 재배, 생산국의 위치에 있다. 주요 화훼류 생산국별 생산액과 생산면적을 보면, 미국이 생산액 1조 5천 7백억원, 재배면적 1만 7천ha이며, 네델란드는 6천 5백ha의 재배면적에서 1조 5천 3백억원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1만 7천 3백ha의 재배면적에서 1조 4천 7백억원의 화훼류를 생산하고 있다. 다음은 서독, 프랑스, 영국 등이 있다. 네델란드는 재배면적은 미국이나 일본의 $\frac{1}{3}$ 수준이나, 생산액은 비슷하여 기술과 생산성에서 미국이나 일본을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네델란드는 시설재배와 연구개발에서 미국과 일본을 앞서고 있다.

㉔ 화훼류 교역현황

화훼류의 국제교역 규모는 1989년 기준으로 52억 4천만달러이며, 종류별로는 절화가 23억 4천만달러, 분화가 20억 5천만달러, 기타가 8억 5천만달러이다. 화훼류는 네델란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표 4-23 한국의 화훼류 생산현황

	재배면적(100ha)			농가수 (100호)	생산액(억원)						
	계	노 지	시 설		계	절 화	분 화	구근류	화 목	관상수	화 중 초 자
1975	10.7	9.8	0.9	24.5	67.2	3.9	2.8	0.2	5.3	54.7	0.3
1980	12.8	11.7	1.1	27.3	212.8	34.7	33.4	1.9	17.9	12.5	0.2
1985	22.5	16.7	5.8	53.6	746.0	143.7	147.3	16.6	84.6	353.6	0.3
1986	23.8	16.2	7.6	61.1	881.6	169.5	212.0	11.7	135.9	350.7	1.9
1987	24.1	15.6	8.5	67.4	977.0	246.7	264.6	15.0	124.0	324.9	1.9
1988	27.3	16.7	10.6	72.0	1,349.2	356.8	425.4	18.6	168.7	378.8	0.8
1989	31.4	17.5	13.9	78.2	2,130.8	542.2	616.4	28.9	165.5	774.3	3.5
1990	35.0	17.5	17.5	89.5	2,393.5	592.2	995.2	46.4	194.9	557.8	7.0

자료: 농림수산부, 「화훼편람」, 「화훼산업 현황」, 각년도.

이 시설, 기술, 생산성면에서 기타국가들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제간 격을 주도하고 있다.

화훼류의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세계 총수출액의 70%), 콜롬비아(10%), 이스라엘(6%), 이태리(5%), 태국(1%) 등이다. 지역별로는 EC가 세계 화훼류 총수출액의 80%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등 미주가 10%, 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가는 1.6%에 불과하다.

화훼류의 주요 수입국은 서독(세계 화훼류 수입액의 39.4%), 미국(11.7%), 프랑스(9.6%), 영국(8.2%), 스위스(5.4%), 네덜란드(5.3%),

표 4-24 화훼류 주요 생산국별 생산현황, 1988

	재 배 면 적(ha)			생산액(억원)
	노 지	온 실	계	
미 국	10,760	6,748	17,508	15,709
네델란드	1,897	4,601	6,498	15,299
일 본	10,493	6,787	17,280	14,672
서 독	3,501	2,402	5,903	7,058
프 랑 스	2,986	2,044	5,030	5,794
영 국	5,396	724	6,120	1,976
한 국	1,670	1,060	2,730	1,34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농업정보,” 통권 제8호, 1991. 7.

이태리(3.1%), 오스트리아(2.9%), 일본(2.8%), 스웨덴(2.5%), 캐나다(1.8%) 등이다. 지역별로는 유럽국가들의 수입이 전체의 83%, 미국과 카나다가 13.5%, 아시아지역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화훼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네델란드, 미국으로 1990년도 한국의 화훼류 수출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1990년도 화훼류 수출액은 2백 5십만달러로 1987년에 비하면 2배 이상 성장하였다. 최근에는(1988~90) 미국, 호주, 캐나다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는 1만 9천달러(1988년)에서 19만 7천달러(1990)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캐나다에 대한 수출로 같은 기간중에 9천달러에서 7만 4천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화훼류의 최대 수입국인 독일에 대한 수출은 1990년도에 1만 6천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최대 수입지역인 유럽(세계 화훼류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에 대한 수출이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4-25 주요 화훼류 생산국별 교역추이

단위: %

국 별		수 입			수 출		
		1985	1986	1987	1985	1986	1987
計(in Million ECU)		1,587	1,664	1,798	1,412	1,471	1,628
유럽 공동 체	벨지움, 룩셈부르크	2.1	2.0	2.2	0.1	0.0	0.1
	덴 마 크	1.3	1.6	1.8	0.1	0.1	0.1
	프 랑 스	7.6	8.8	9.6	1.1	1.0	0.9
	서 독 스	38.3	39.7	39.4	0.4	0.5	0.6
	그 리 스	0.1	0.0	0.0	0.1	0.2	0.2
	아 일 랜 드	0.3	0.4	0.4	0.0	0.0	0.0
	이 탈 리 아	3.0	2.8	3.1	5.1	4.7	4.9
	네 델 란 드	4.1	5.1	5.3	68.2	70.6	70.4
	포르 투갈	0.0	0.0	0.0	0.0	0.0	0.0
	스 페 인	0.1	0.1	0.4	0.9	1.3	2.3
	영 국	7.4	7.3	8.2	0.3	0.3	0.4
소 계		(64.3)	(67.8)	(70.4)	(76.3)	(78.8)	(79.9)
유럽 (EC 제외)	오스트리아	3.0	3.0	2.9	0.0	0.0	0.0
	필 란 드	0.5	0.5	0.5	0.0	0.0	0.0
	노 르 웨 이	1.0	1.2	1.3	0.0	0.0	0.0
	스 웨 덴	2.4	2.5	2.5	0.0	0.0	0.0
	스 위	5.2	5.5	5.4	0.0	0.0	0.0
소 계		(12.1)	(12.7)	(12.6)	(0.0)	(0.0)	(0.0)
미 주	콜롬비아	0.0	0.0	0.0	13.1	10.7	9.2
	캐 나 다	2.5	2.1	1.8	0.8	0.6	0.7
	미 국	18.2	14.3	11.7	0.4	0.3	0.3
소 계		(20.7)	(16.4)	(13.5)	(14.3)	(11.6)	(10.2)
아프리카 이스라엘	카나리아 군도	0.0	0.0	0.0	1.1	1.1	1.1
	케냐	0.0	0.0	0.0	1.2	1.5	1.4
	이스라엘	0.0	0.0	0.0	4.5	5.4	5.8
	소 계	(0.0)	(0.0)	0.0	(6.8)	(8.0)	(8.3)
국 동	홍콩	0.5	0.5	0.4	0.0	0.0	0.0
	일본	1.9	2.2	2.8	0.0	0.0	0.0
	한국	0.0	0.0	0.0	0.0	0.0	0.0
	싱가포르	0.5	0.4	0.3	0.5	0.4	0.3
	대만	0.0	0.0	0.0	0.3	0.2	0.3
	태국	0.0	0.0	0.0	1.7	1.0	1.0
	소 계	(2.9)	(3.1)	(3.5)	(2.5)	(1.6)	(1.6)

자료: CLIF.,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rade of Fresh Cutflowers*, Netherland, 1988.

표 4-26 한국의 국별 화훼류 수출현황

단위: 천US\$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일본	2,369	3,052	456	598	833	959
네델란드	65	273	342	407	588	650
미국	121	228	131	332	425	462
대만 ¹⁾	0	7	55	22	47	51
기타 ²⁾	65	54	244	58	211	363
계	2,620	3,614	1,228	1,417	2,104	2,485

1) 기타국가들 가운데 1990년도의 주요국가는 호주(19만 7천달러), 캐나다(7만 4천달러), 서독(2만 2천달러) 등이 두드러짐.

자료: 농림수산부, 「화훼산업 현황」, 각년도.

② 주요국의 수입현황 및 제도

일본의 화훼류 생산은 절화류와 묘목류가 중심으로 1989년도 절화류 생산액은 일본의 화훼류 총생산액 5,027억엔 가운데 41.9%인 2,106억엔이며, 묘목류 생산액은 1,827억엔으로 36.3%에 달한다. 절화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품목은 국화로 절화류 생산액의 36.5%를 차지한다.

다음은 카네이션(12.4%), 장미(10.8%) 순이다. 일본의 화훼류 생산,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간 가구당 소비는 최근 약 5%씩 증가하고 있으며, 화훼류 수출은 1980년 이후 연평균 16.4%씩 감소한 반면 수입은 18.2%씩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화훼류 수입은 앞으로도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일본의 화훼류 수입은 절화류가 전체의 60%에 달하며, 주로 난류, 양치류, 국화, 베아그라스, 카네이션, 프리지아, 글라디올러스가 수입된다. 일본의 절화류의 주수입선은 네델란드와 태국이다. 네델란드는 1990년도 일본의 절화류 수입액의 35%를 확보하고 있으며, 태국은 2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네델란드는 품질의 우위성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태국은 난류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난류는 일본의 절화류 수입액의 $\frac{1}{3}$ 에 달하는 커다란 수입품목에 속한다. 태국외에 난류수출 주요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표 4-27 일본의 국별 철화류 수입실적

단위: 백만엔(%)

	1988	1989	1990
네 델 란 드	3,835(29.3)	5,705(37.4)	5,843(35.1)
태 국	4,224(32.3)	3,829(25.1)	4,077(24.5)
뉴 질 랜 드	1,039(7.9)	1,099(7.2)	1,541(9.3)
대 만	1,505(11.5)	1,663(10.9)	1,357(8.2)
싱 가 폴	624(4.8)	877(5.8)	1,091(6.6)
호 주	799(6.1)	649(4.3)	859(5.2)
미 국	433(3.3)	555(3.6)	647(3.9)
콜 롬 비 아	50(0.4)	78(0.5)	185(1.1)
말 레 이 시 아	61(5.0)	88(0.6)	167(1.0)
남 아 공	98(0.7)	116(0.8)	141(0.8)
한 국	5(0.0)	10(0.1)	7(0.0)
기 타	420(3.2)	574(3.8)	730(4.4)
계	13,093(100.0)	15,243(100.0)	16,645(100.0)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유망 농산품 해외시장」, 무공자료 91-67, 1991.

이다. 화란은 고품질의 국화, 카네이션, 튜립, 프리지아 등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 대만은 국화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철화류는 수입자유화 품목이며, 무관세 품목이다. 그러나 철화는 신선한 상태로 수확후 단기간내에 유통되기 때문에 병충해의 활동성이 높아 세밀한 수입검사가 요구된다.

특히 일본에서 발견되지 않은 병충해의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이들 병충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수입검사절차는 ① 수출국 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 ② 검역관의 서류확인(검사장소와 시간 지정), ③ 표본조사(육안검사, 돋보기검사, 필요시 분리배양 등 정밀검사-주로 과실수 가지가 철화로 수입될 경우에 해당).

일본의 화훼류수입액은 연간 150억엔 정도로 화훼류 국내 생산액 5천억엔의 3% 수준이나, 내수증가가 국내공급을 앞서고 있어 수입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대일본 수출에 있어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하며, 일본의 수입이 계속 증가될 전망으로 생산기반확충, 품질향상 등에 의해 대일본 수출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네델란드의 화훼류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8~90 기간중에는 연평균 7%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절화와 묘목의 생산이 전체 화훼류생산의 78%(1990년 기준)를 차지하며, 주요재배 품종은 장미, 국화, 카네이션, 튜울립, 백합 순이다. 그밖에 프리지아, 거베라, 안개초 등 다양한 품종의 꽃들이 재배되고 있다. 네델란드 소비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품종은 장미와 국화이다. 화훼류의 1인당 소비는 크게 늘고 있지 않으며, 12~1월과 4~5월 사이의 소비가 많다.

네델란드는 세계 절화류 수출의 70%를 점하고 있다. 주요 수출시장은 독일(45.2%), 프랑스(14.6%), 영국(11.7%), 미국(4%), 스위스(4%), 오스트리아(3%), 일본(1.7%) 등이다. 품목별 수출은 장미(20.2%), 국화(14.9%), 카네이션(8.4%), 튜울립(8.1%) 등이다.

네델란드는 세계 1위의 꽃수출국인 동시에 세계 6위의 꽃수입국이다. 수입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C회원국간의 거래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1990년도의 경우 EC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수입의 85%에 이른다. EC 역외국가들로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대만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약간씩 있다. 수입상들은 카네이션의 경우 스페인, 이스라엘 산을 선호하며, 장미는 이스라엘, 짐바브웨 산을, 난은 태국, 싱가포르 산을, 국화는 이스라엘, 짐바브웨 산을, 글라디올러스는 이스라엘, 이태리 산을 각각 선호한다.

네델란드의 경우 절화는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 계절관세를 적용받는다.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20%의 관세가 부과되며,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검사는 수출국 발행의 식물검역증과 원산지증명이 요구된다. 경매시장 상장전에 경매 품질기준에 따라 손상도, 신선도, 기생충, 화학첨가물 사용여부 등에

표 4-28 네델란드의 철화류 수입실적

단위: 톤, 백만길더

	1988		1989		1990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독일	105,633	550	114,887	589	118,179	654
프랑스	30,857	203	36,517	230	38,384	251
영국	20,222	161	24,140	193	25,228	208
벨기에	17,022	117	17,925	128	16,170	123
스위스	6,802	55	6,717	56	6,559	59
스페인	9,673	53	11,286	60	10,547	59
오스트리아	11,643	51	13,268	57	13,229	54
덴마크	5,137	45	5,760	50	5,859	53
노르웨이	5,481	38	6,857	40	7,796	44
일본	4,455	35	4,841	37	4,217	32
대만	196	9	262	12	337	14
콜롬비아	504	6	740	8	474	6
기타	18	2	18	2	14	2
계	226,359	1,406	253,236	1,553	259,658	1,664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유망 농산품 해외시장」, 무공자료 91-67, 1991.

대한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수출보조금은 없으나 연구개발, 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은 많다. 필요한 경비는 4개분야의 Commodity Board에서 재배자, 경매장, 수입업체의 매출액에서 각각 0.8%씩의 부과금을 징수하여 충당한다. 경비는 주로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미국의 철화류생산은 장미(철화류 생산액의 41.4%), 카네이션(10.9%), 국화(8.2%), 백합(8.2%)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재배 면적으로 보면 글라디올러스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꽃이다. 1990년도 미국인 1인당 철화류 소비는 3.32달러이다.

미국의 철화류 수입액은 1990년도에 3억 3천만달러에 이른다. 3대 수입철화인 장미, 카네이션, 국화의 수입액이 철화류 수입액의 65%에 달한다. 미국의 철화류 수입은 주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페루 등 중남미국가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와 거리

표 4-29 미국의 주요 철화류 수입실적

단위: 천 줄기, 천 US\$

품 목	국 별	1988		1989		1990	
국 화	콜 럼 비 아	232,884	50,656	227,763	41,722	223,077	47,312
	네 델 란 드	886	307	1,689	575	1,031	340
	코스타리카	8,836	3,218	22,190	4,467	26,569	5,195
	기 타	9,574	1,478	7,853	1,338	3,402	1,013
	소 계	252,180	55,659	259,495	48,102	254,079	53,860
장 미	콜 럼 비 아	240,693	49,209	262,727	56,415	302,984	62,959
	과 테 말 라	16,952	2,073	19,853	2,540	22,636	2,978
	에 과 돌	14,435	2,095	29,968	4,348	33,011	4,789
	기 타	41,815	9,377	49,163	12,008	59,177	15,311
	소 계	313,895	62,754	361,711	75,311	417,808	86,037
카네이션	콜 럼 비 아	808,435	60,286	870,421	68,674	779,029	63,630
	페 루	13,932	1,028	15,961	1,197	13,626	944
	에 과 돌	1,722	264	5,587	593	9,398	1,056
	기 타	24,679	3,369	21,061	2,439	13,062	1,300
	소 계	848,768	64,947	913,030	72,903	815,115	66,930
총수입액(백만 \$)			283		315		326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유망 농산품 해외시장」, 무공자료 91-67, 1991

상의 장점을 살려 중남미국가의 철화류 대미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남미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배려도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미국의 3대 수입철화인 장미, 카네이션, 국화의 수출이 미국시장에서 총철화류 수입액의 53%를 넘고 있는 대미 최대수출국이 되었다. 네델란드는 품질경쟁력과 다양한 품종의 수출로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콜롬비아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철화류 수입은 자유화되어 있으며 관세는 품종별로 차

이가 있다. 즉, 카네이션은 4%, 장미와 국화는 8%, 기타는 5%의 관세로 수입된다. 통관을 위해서는 식물검역과 규격 등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관은 까다로운 편이다.

캐나다의 화훼류 생산규모는 4억 캐나다달러(C\$)이며, 절화류는 장미(전체 절화류 생산량의 51.4%)와 국화(15.5%)가 주종을 이룬다. 캐나다의 절화류 수입규모는 1990년도에 4천 6백만C\$이다. 수입은 주로 콜롬비아, 미국, 네델란드로부터 이루어지며, 이들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절화류 수입의 80%를 넘는다. 수입절화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카네이션으로 내수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장미와 국화가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 22%로 카네이션에 비해 훨씬 낮다. 장미의 경우 묘목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수요의 약 75%)하여 내수용 장미를 생산하고 있어 절화로서의 장미의 수입비중은 낮은 편이다. 3대 수입절화인 카네이션, 장미, 국화의 국별 수입을 보면, 장미는 미국(전체의 24.7%), 콜롬비아(20.6%),

표 4-30 캐나다의 국별 절화류 수입실적

단위: 천 C\$

	1988	1989	1990
콜 롬 비 아	9,551(23.3) 1)	11,907(28.0)	15,701(36.9)
미 국	13,711(33.4)	11,226(26.4)	11,640(27.4)
네 델 란 드	10,135(24.6)	10,867(25.6)	10,323(24.3)
뉴 질 랜 드	1,702(4.1)	1,465(3.4)	1,164(2.7)
칠 레	1,122(2.7)	1,201(2.8)	1,054(2.5)
이 스 라 엘	1,132(2.7)	796(1.9)	300(0.8)
기 타	3,866(9.2)	5,048(11.9)	6,160(14.4)
계	41,219(100.0)	42,510(100.0)	46,342(100.0)

()내는 전체 절화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유망 농산품 해외시장」, 무공자료 91-67, 1991.

네델란드(15.6%), 뉴질랜드(15.0%)에서 주로 수입되며, 카네이션은 콜롬비아(65.1%), 미국(20.2%), 칠레(8.4%)에서 수입되고 있다. 국화는 네델란드(47.3%), 미국(26.1%), 콜롬비아(22.5%)에서 수입된다.

결국 비교적 운송이 까다로운 장미는 가까운 미국에서 많이 수입되는 반면 운송이 편리한 카네이션은 콜롬비아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난초류를 제외한 절화류는 수입자유화 품목이며, 통관검사는 까다롭지 않다.

③ 수출 가능성 및 증대방안

화훼류의 국제교역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 국가들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가장 유리한 수출시장인 일본의 화훼류 수입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8.2%씩 성장하고 있는 등 화훼류 수출에 대한 해외시장 전망은 밝다. 특히, 한국은 노동집약적인 화훼산업의 하나인 접목선인장 수출에서 일본으로부터 시장

표 4-31 한국산 절화의 가격경쟁력, 1989

단위: 원/송이(단)

	일	본	네	델	란	드	한	국
국	화	273	160	166				
장	미	327	117	157				
카	네	215	107	134				
백	합	493	NA	420				
글	라	215	78	367				
안	개	473	NA	412				
거	베	390	142	21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농업정보,” 통권제8호, 1991.

을 이전받아 접목선인장의 주수출국이 되었으며, 거베라는 대일본 수출에 품질과 가격조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화훼류 수출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역량이 많은 카네이션, 장미, 국화는 수출을 위해서는 품질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네델란드에 대해서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에서 모두 열위에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최대의 화훼류 수입시장인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네델란드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색있는 꽃을 개발하고 상품의 차별화(단기적으로 저등급의 화훼류 시장을 겨냥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본시장을 가격경쟁력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 개선되어야 한다.

생산기반확충: 한국의 화훼산업은 일반적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으로 꽃을 공급해야 하는 수출에 있어 거래자간의 불확실성을 크게 하고 있다. 단지화와 반영구적 온실시설의 확충을 통해 생산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지 않고는 수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어렵다. 수입업자들은 한국의 화훼산업을 돌아보면 생산기반의 취약성으로 수입계약 체결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단지화는 기술보급, 기계화를 이룩하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집, 선별, 포장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에도 용이하다. 현대화된 시설없이 는 수집, 포장과정에서도 병충해에 노출되기 쉽다.

품질향상: 화훼류의 수요는 가격보다 품질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 선진 수입국들의 화훼류 소비는 고급소비단계에 와있으며, 수입국들은 엄격한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화훼산업은 그동안 내수위주의 생산에 치중하여 품질의 고급화,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의 등급화와 규격화에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기술개발투자의 확대, 전문인력 양성, 시설투자 확

대, 생산의 단지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화훼산업 관련 전후방산업 육성: 화훼산업 관련 자재산업(온실시설, 선별 및 포장시설, 포장재료 관련 산업)과 유통산업의 육성으로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화훼류는 특히 손상없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용기(진공용기, Ice Box 등)와 수송산업(냉장시설, 컨테이너 등)의 육성이 필요하다.

품목의 개발 및 선택적 육성: 태국은 난류를, 대만은 국화를 일본에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카네이션을 미국에 집중 수출하고 있다. 한국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전략품목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단 노동집약도가 높고 포장 및 운송이 어려운 거베라, 글라디올러스, 장미 등이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품질 및 가격경쟁력의 열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한국 고유의 꽃과 지리적 특성을 지닌 꽃을 개발하여 신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시장개척: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는 정보수집, 시장개척지원, 생산자 해외연수 등을 통해 재배기술향상, 국제적 안목 배양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네덜란드와 같은 생산자단체(Commodity Board)의 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 돼지고기

① 개 요

우리 나라 돼지고기의 생산량은 사육두수의 빠른 증가에 힘입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1980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35천톤에서 매년 평균 8.4%씩 증가하여 1990년에는 506천톤이 되었다<표 4-32>.

물론 노동력부족과 폐기물처리 비용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의 지속적 확대, 신제품개발·보급 등으로 인하여

돼지고기 생산량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사육규모의 확대, 기계화, 자동화된 사육기법의 도입 등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될 소지도 크다고 하겠다. 물론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겠지만 돼지고기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 가격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생육 생산과 같은 육질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돼지고기 소비량도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와 인구증가 등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1인당

표 4-32 돼지고기의 수급 추이

	생 산 량	소 비 량	1인당 연간소비량	자 급 율
	천톤	천톤	kg	%
1970	83	83	2.6	100
1975	107	99	2.8	108.1
1980	235	242	6.3	97.1
1981	209	210	5.4	99.5
1982	238	238	6.1	100.0
1983	295	295	7.4	100.0
1984	341	340	8.4	100.3
1985	345	346	8.4	99.7
1986	321	320	7.7	100.3
1987	376	373	8.8	100.8
1988	433	425	10.1	101.9
1989	485	472	11.1	114.1
1990	506	511	11.8	99.0
80+81/70+71*	9.4	9.4	7.6	
89+90/80+81*	8.4	8.1	6.9	

*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 1991.

축협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1991.

연간 소비량은 1980년 6.3kg에서 1990년에는 11.8kg으로 증가하였다<표 4-32>. 돼지고기의 전체 소비량은 242천톤에서 1990년에는 두배이상 늘어난 511천톤이었다. 국민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대만(36.4kg), 미국(30.5kg), 일본(17.1kg)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향후 계속적인 경제발전 등을 고려할 때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⁴⁾ 돼지고기의 소비유형을 보면 생육에서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으로 소비가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유형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가공기술이 발전·축적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돼지고기 가공품 수출도 확대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세계의 돼지고기 주요 생산국은 중국, EC, 소련, 미국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중국(34.3%), 미국(11.2%), 소련(10.6%) 등 3개국이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표 4-33>.

수산물을 제외하면 육류 가운데 돼지고기는 세계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다. 1989년 현재 세계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6,746만여톤으로서 1980년 이래 매년 평균 2.8%씩 증가해 왔다.

세계 전체의 돼지고기 생산량 또는 소비량 중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 수출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돼지고기 소비중 수출비중은 1975년 5.1%에서 1988년의 경우 7%로 늘어났다.

세계의 5대 돼지고기 수출국 내지 지역은 동구, EC, 캐나다, 중국, 대만으로서 이들 5개지역의 수출이 세계 전체 돼지고기 수출 중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 EC국가중 덴마크는 EC 12개국의 돼지고기 수출의 $\frac{3}{4}$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4) 허신행(1980) 참조.

한편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국이다. 중국은 주로 구상무역의 형태로 돼지고기를 소련에 수출하고 있는데 1990년의 경우 약 18만톤을 수출하였다. 돼지고기 수출의 99%이상을 일본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대만은 최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내 입법으로 대일 돈육 수출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세계의 5대 돼지고기 수입국은 미국, 일본, 소련, 홍콩, 그리고 EC

표 4-33 주요 국가별 돼지고기 생산량

단위: 천톤, %

	1979~81 평균	1985	1986	1987	1988	1989	1979+81 /1988+89 연 평균 증가율
중 국	11,704	17,378	18,829	19,287	20,134	22,070	6.8
미 국	7,248	6,716	6,379	6,520	7,114	7,176	-0.2
소 련	5,223	5,853	6,065	6,315	6,595	6,750	2.8
서 독	3,182	3,243	3,336	3,365	3,342	3,300	0.5
프 랑 스	1,775	1,662	1,677	1,729	1,852	1,840	0.4
스 페 인	1,115	1,388	1,399	1,489	1,722	1,720	4.9
네델란드	1,142	1,412	1,500	1,511	1,632	1,636	4.1
일 본	1,934	1,532	1,552	1,582	1,578	1,570	1.0
덴 마 크	995	1,083	1,143	1,149	1,168	1,165	1.8
캐 나 다	811	900	1,097	1,131	1,188	1,184	4.3
대 만	494	732	868	938	911	917	7.1
한 국	276	345	321	376	433	488	5.9
세 계	51,699	59,317	60,860	62,687	65,426	67,460	2.8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각년도.

등으로 이들 국가의 돼지고기 수입이 세계 돼지고기 수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돼지고기 총 소비량의 7%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수입의 55% 정도는 캐나다에서, 20% 정도는 덴마크에서, 그리고 11% 정도는 폴란드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의 95%이상이 역내 국가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EC는 나머지 5%를 미국, 폴란드, 동독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35만톤에 이르는 일본은 주로 대만(38%)과 덴마크(37%)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주로 역내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서독과 영국을 제외할 때 일본은 세계 제일의 돼지고기 수입국인 셈이다.

지금까지 세계의 돼지고기 생산과 교역현황을 간략하게 개관해 보았다. 지금껏 그래 왔지만 일본이 우리 나라 돼지고기 수출의 가장 유력한 시장이다.

세계의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인 EC나 미국 등은 역내무역 또는 인근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시장은 일본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EC와 미국도 우리 나라의 잠재적인 돼지고기 수출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들어 이들 국가에서는 환경보존을 위해 양돈 농가에게 막대한 환경처리시설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Shagam, 1990). 일부 국가에서는 자급을 목표로 하여 양돈 자체를 억제 내지 제3국으로 생산을 이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도 환경오염 처리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환경처리시설을 철저하게 갖추고 양돈생산기반을 확충한다면 EC나 미국 등지에도 수출이 가능할 날이 오리라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은 1975년에 물량기준으로 8,490톤, 금액상으로 2천백만달러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나, 그 이후 국내 돈육가격의 불안정으로 수출이 감소하다가 1980년 초반에는 거의 중단되기도 하였다. 1986년에 다시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1989년도에

는 1,300여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한 바도 있다. 수출된 돼지고기의 대부분이 일본에 나갔으나 일본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990년의 경우 1.7%로서 대만(49.5%), 덴마크(31.6%)와 비교된다.

참고로 우리 나라 돼지고기 수입은 198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9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 돼지고기 수입실적이 2,583톤이던 것이 1991년 8월말 현재 15,000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되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돼지고기 수출의 주요 시장인 일본을 중심으로 수입제도 및 수출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고 수출 증대방안을 모색·제시하기로 한다.

② 일본의 돼지고기시장 여건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양돈 농가수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육두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사육형태가 대형화·기업양돈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표 4-34>.

표 4-34 일본의 돼지 사육 현황

	돼지 사육두수 (천두)	돼지 사육호수 (천호)	호당 평균 사육두수 (두)
1965	3,976	701.6	5.7
1970	6,335	444.5	14.3
1975	7,684	223.4	34.4
1980	9,998	141.0	70.8
1985	10,718	83.1	128.9
1990	11,816	43.4	272.3
1980~90년 평균 증가율	1.8	-11.2	14.7

자료: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統計」, 각년도.

표 4-35 일본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千톤, %

	생 산	소 비	수 입	자 급 률
1965	431	431	-	100
1970	779	796	17	98
1975	1,023	1,190	208	86
1980	1,430	1,646	207	87
1985	1,559	1,813	272	86
1986	1,558	1,890	292	82
1987	1,592	1,994	415	80
1988	1,577	2,041	484	77
1989	1,597	2,066	523	77
1990	1,595	2,110	525	76
	5.4	6.6	18.7	

자료: 농림수산대신관방조사과, 「식료수급표」, 1990.

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1965년 5.7두에서 1990년에는 272.31두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량은 1965년 이래 연평균 5.4%씩 증가하여 1990년 현재 1,595 천톤에 이르고 있다<표 4-35>.

한편 돼지고기 소비도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향상 등에 의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65년 431천톤에서 1990년에는 2,110 천톤으로 늘어나 매년 평균 6.6%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돼지고기 생산보다 소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자급률은 계속 떨어진 반면 수입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났다. 1990년의 경우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525천톤이고, 자급률은 76% 정도이다.

일본에서의 돼지고기 생산은 ①환경보호 문제, ②고임금 등에 의한 원가상승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소비는 소비유행의 고급화·서구화 추세속에서 고급부위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일본은 고급부위 내지 가공용 돼지고기 수입을 계속 늘리지 않을까 전망된다. 참고로 일본의 농무성

표 4-36 연도별 및 수입선별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추이

단위: 톤

	한 국	대 만	덴 마 크	미 국	캐나다	기 타	계
1975	7,445 (5.1)	12,664 (8.7)	24,107 (16.5)	55,745 (38.2)	27,669 (19.0)	13,188 (9.0)	145,865 (100.0)
1980	110 (0.1)	19,490 (13.5)	42,348 (29.3)	39,596 (27.4)	40,155 (27.8)	3,025 (2.1)	144,695 (100.0)
1985	128 (0.1)	69,304 (36.4)	76,609 (40.3)	11,259 (5.9)	22,726 (11.9)	4,215 (2.2)	190,215 (100.0)
1986	1,025 (0.5)	89,146 (43.5)	73,629 (36.0)	14,892 (7.3)	18,725 (9.1)	2,363 (1.2)	204,743 (100.0)
1987	3,095 (1.1)	132,258 (47.5)	92,842 (33.3)	21,441 (7.7)	20,177 (7.2)	1,702 (0.6)	278,485 (100.0)
1988	7,636 (2.3)	122,730 (37.2)	123,819 (37.5)	40,313 (12.2)	25,966 (7.9)	9,287 (2.8)	329,751 (100.0)
1989	11,283 (3.2)	110,823 (31.6)	137,599 (39.2)	50,455 (14.4)	32,601 (9.3)	8,333 (2.4)	351,093 (100.0)
1990	5,674 (1.7)	153,356 (44.7)	108,115 (31.5)	45,349 (13.2)	22,975 (6.7)	7,701 (2.2)	343,170 (100.0)
1975~90 연평균 증가율	-1.8	18.1	10.5	-1.4	-1.2	-3.5	5.9

자료: 日本貿易振興會, 「農林水産物の貿易」, 1990.

이 추정 한 2000년도의 돼지고기 수급내역을 보면 연간 총수요는 219~237만톤인데 비해 생산은 182만톤이 되어 37~55만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농림수산 대신관방 조사과, 1990).

1990년의 경우 지육기준으로 343천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한 일본의 주요 수입선은 대만(44.7%), 덴마크(31.5%), 미국(13.2%), 캐나다(6.7%) 등이다<표 4-36>.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캐나다가 일본 돼지고기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대만, 덴마크 등의 경쟁국 부상과 PSE(Pale, Soft, Exudative) 육발생, 지방과다 등의 품질상의

문제로 이들 국가의 대일 수출 비중이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 돼지고기 수출의 55% 정도를 일본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항공기 수송을 통한 냉장육 수출도 도모하고 있다. 캐나다도 최근들어 고품질, 잔류물질이 없는 돈육 수출로 대일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수한 종돈의 보유, 품질관리의 고도화, 시장에 적합한 제품의 개발 등으로 EC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지로 다량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덴마크는 1990년에는 일본의 잔류물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대일 돈육수출이 한때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회복하고 있다.

대일돈육 수출국가 중 가장 빠른 수출신장세를 보인 대만은 냉동육 뿐만 아니라 냉장육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문제 때문에 자급위주 방향으로의 양돈정책전환에 따라 앞으로 대만의 대일 돈육수출은 다소 정체될 전망이다.⁵⁾

③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제도

일본은 1971년 10월 돼지고기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돼지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 단 수입가능한 지역은 구 제역이 없는 지역으로 제한해 놓고 있다. 현재 생체, 햄, 베이컨,

5) 대만의 대일 돈육수출이 급성장하게 된 이유를 보면 ①품질면에서 육색 및 선도, 그리고 맛이 좋다는 평판을 받고 있고, ②규격면에서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은 표준규격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비해 대만은 노임이 싸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가 요구하는 부위와 규격을 공급할 수 있고 ③지리상으로 가까워 일본의 긴급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다는 점, ④일본시장에서 대만돈육의 판촉활동과 대만 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⑤일본수입상사의 대만내 육류가공공장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일본수입 업자와 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등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고기등 모든 형태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 대만, 미국, 캐나다 등 23개국이다. 우리 나라와 잠재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은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생체형태로만 수출이 가능할 뿐이지 고기, 장기, 햄, 베이컨 그리고 소시지 등은 수출할 수 없다.

돼지고기의 자유화와 함께 일본은 국내 가격안정제도와 연계시킨 차액관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으로 ①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일본내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 및 축산농가 소득저하를 방지하고, ②값이 저렴한 저급부위의 수입을 억제하여 공급과잉을 막고 고급부위는 수입을 유도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차액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세율(종가세) 5%와 차액관세, 즉 안정중심가격(기준 수입가격)과 수입가격(CIF)가격과의 차이 중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⁶⁾

만일 돼지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감면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1988년 2월부터 수입돈육에 대해 설파메타진(Sulfamethazine) 잔류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대일 돈육의 주요 수출국인 대만, 미국, 덴마크 등이 모두 이 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정부 스스로가 약품잔류 여부를 검사하여 대일 수출시 잔류검사를 면제받고 있으며 덴마크는 관련 약품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검사면제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설파메타진 잔류검사 이외에 일본은 1990년 초부터 검사항목을 12개 종류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

6) 1990년의 경우 박피지육 kg당 안정중심가격은 482.5엔이고, 부분육은 643.3엔이다.

다.⁷⁾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용상에서는 여전히 설파메타진 잔류검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2년 4월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통관·검역의 지연에 따른 수출국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국 공장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동제도의 대상식품에 식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수출국 공장등록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동제도는 일본 후생성이 자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등록을 받은 뒤 해당 업체의 생산시설을 현지 출장조사하여 합격한 업체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만으로 통관시키는 제도이다. 돼지고기도 일본에서 요구하는 검역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수입통관에 따른 장애가 상당 정도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이 있는 제도로는 도체등급제 및 부위별 판매제도이다. 이 제도 때문에 우리 나라는 대일 돼지고기 수출시 규격돈 확보난과 잔여육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대일 돼지고기 수출에 따른 인위적 장벽은 검역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역문제도 현재 계획중인 수출국 공장등록제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우리 나라의 대일 돈육수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가격경쟁력의 저위이다.

7) 추가된 검사항목으로는 항균제로서 설파모노메톡신(Sulfamonomethoxine), 설파디메톡신(Sulfadimethoxine), 후라졸리돈(Furazolidone), 디아모네니콜(Thiamonenicol), 카바독스(Carbadox), 오라퀸독스(Olaquidox) 등이 있고 농약으로는 DDT, 델도링(Dieldrin), 헵타클로(Heptachlor) 등이 있다.

④ 수출 가능성 검토

가) 가격 경쟁력

우리나라와 경합관계에 있는 주요국과 우리 나라의 생체 kg당 비육돈 생산비는 <표 4-3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돼지고기 생산비는 일본보다는 낮지만 대만, 덴마크, 미국 등에 비해서는 10~30% 정도 높은 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곡물가격 또는 사료가격의 변화가 우리나라 돼지고기 경쟁력 유지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UR이 타결되어 선진국, 개도국이 농업보호조치를 50% 정도 감축할 경우 가격의 안정성은 증대하지만(Anderson and Tyers, 1990) 국제가격은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Krissoff *et al.* 1990). 따라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UR이 타결되면

표 4-37 주요국별 생체 kg당 비육돈 생산비 비교

구 분	한 국 (89)	대 만 (89)	덴마크 (88)	일본 (89)	미국 (89)
가 축 비	327원	816 원 (32元)	412원	619원	245원
사 료 비	622원		(3.6Dkr)	(134엔)	(0.36\$)
			435원	448원	313원
			(3.8Dkr)	(97엔)	(0.46\$)
기타비용	234원	204원	209원	245원	190원
		(8元)	(1.8Dkr)	(53엔)	(0.28\$)
생산비계	1,183원	1,020원	1,056원	1,312원	748원
		(40元)	(9.2Dkr)	(284엔)	(1.10\$)

자료: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작목별 기술대응방안」, 1991.

표 4-38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출지원정책

	대 만	덴 마 크	한 국
수출보조금(정육kg당)	230원	297원	×
도 축 세 면 세	○	○	×
사료 부가가치세 면세	○	○	×
사료 수입관세 면세	○	○	×
시 장 개 척 비 지 원	○	○	×
가공물 수출보조금지원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농산물 수출 유망품목 검토」, 1991, p. 77.

우리 나라 돼지고기의 국제 경쟁력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⁸⁾ 그러나 다른 한편 UR타결에 따라 각국의 수출지원정책이 감축 또는 폐지될 경우 우리 나라 돼지고기의 수출경쟁력은 그만큼 향상될 수 있다. <표 4-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과 덴마크는 정육 kg당 각각 230원과 297원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사료의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세해 주고 시장개척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UR타결이후 사료곡물의 국제가격이 20%정도 상승한다고 해도 ①돼지고기의 국제가격 상승, ②각국의 수출보조금 인하 등에 따라 우리 나라 돼지고기의 국제 경쟁력은 향상될 소지가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생산비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구적 노력만 병행되면 우리 나라 돼지고기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 지리상으로 근접한 이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우리 나라의 대일 돈육수출은 획기적으로

8) 한편 UR이 타결되어 선진국, 개도국이 50% 정도의 농업보호수준을 감축할 경우 국제 돼지고기 가격은 약 1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Krissoff *et al.* 1990).

증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나) 품질 경쟁력

일본시장에서 우리 나라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나 품질경쟁력을 조사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공식적으로 파악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돼지고기는 맛에 있어서는 경쟁국인 대만, 덴마크, 그리고 미국에 비해 훨씬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일본의 돼지고기 가공수요에 맞는 정교한 가공기술 및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가격면에서는 타 경쟁국에 비해 뒤지고 있는 편이다.

위생 및 잔류농약 등 안전성 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영세한 도축장과 취약한 시설에 대한 일본바이어들의 불신이 간혹 표출되곤 한다. 참고로 일본의 한 수입상사가 한국의 돈육수출에 대한 약점을 지적한 것을 소개하면 ①불안정한 수출거래, ②저품질, 저가격, ③수출마인드의 결여, ④품질개선의 노력부족, ⑤목전의 이익추구 등이다.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으로 ①안정적인 수출공급체제 유지, ②정부의 수출공장인가제도의 강화, ③생산, 품질향상, 수출의 일관화 내지 계열화 등을 꼽고 있다. 앞으로 일본에서 안전성과 위생은 식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타 경쟁국에 비해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질의 냉장육 또는 신선육을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일본 소비자는 냉동육보다는 냉장육·신선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가격면에서도 이들은 20%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또한 고급부위를 선호하고 있으며 품질·위생·안전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가격은 구매에서 덜 중요시되고 있다. 일본 소비자는 고소득시대에 접어들면서 비싸더라도 품질이 월등하면 구입한다. 따라서 한국은 가격경쟁력면에서 타 경쟁국에 비해 다소 뒤진다고 하더라도 품질 경쟁력면에서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 수출 전망

돼지고기는 육류 가운데 국내외 가격차가 가장 적은 품목이기 때문에⁹⁾ 경쟁력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출이 유망한 품목으로 간주되고 있다. 앞으로 돼지고기를 집중육성하여 내수를 충족시키는 한편 해외시장에의 수출도 늘려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하겠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UR농산물협상이 타결되면 사료곡물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이 높은 우리 나라는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동시에 충분하게 있다. 첫째, 돼지고기의 국제가격이 10%가량 상승하면(Kissoff 외, 1990) 우리 나라 돼지고기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향상될 수 있고 둘째, UR협상결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수출보조금을 삭감하고 세제지원 등 각종 수출지원정책을 감축 또는 폐지할 경우 역시 우리 나라 돼지고기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셋째, 동식물검역이 상호 조화되어 검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각종 비관세장벽의 문턱이 낮아지면 우리 나라의 수출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국인 대만, 덴마크와 같은 국가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돼지고기 생산을 점차 줄이거나 타 국가로 이전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돈육교역에서 우리 나라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일본 등지에도 진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 경우 엄격한 위생관리와 품질향상이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현재는 물론 중·단기적으로 우리 나라 돼지고기 수출의 주요 시장

9) 1986~88년 기준으로 볼 때 돼지고기의 국내외 가격차는 382원으로 닭고기 436원, 쇠고기 2,536원과 비교된다.

이 될 일본시장에서 대만, 덴마크 등 경쟁국들이 돈육생산을 줄여 대일수출을 줄일 경우 우리 나라의 대일 돈육수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생조건 및 품질개선이 급선무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참고로 우리 나라 돼지고기의 수출수요를 양대수 함수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ED_p = 121 - 4.4P_{dp} + 9.3Y - 23.7Q_p$$

$$(1.65) \quad (-0.88) \quad (3.23) \quad (-2.39), \quad R^2 = 0.72$$

여기서, ED_p : 돼지고기의 수출수요

P_{dp} : 돼지고기의 국내가격

Y : 수입국 1인당 GNP

Q_p : 수입국의 돼지고기 생산량

(): t 값

분석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돼지고기 수출수요의 국내 가격탄성치는 -4.4로 나타났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1% 하락할 경우 돼지고기 수출은 4.4%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수입국, 즉 일본의 국내 생산에 대한 탄성치가 -23.7로 높게 나타나 왔으나 실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국 돈육소비량의 20%정도는 주로 가공용으로 해서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며 일본 국내 사정이 인건비 및 지가상승, 공해처리비용 증가 등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⑤ 수출 증대 방안

가) 일관성있는 수출체제 확립

다른 농산물의 경우도 매 한가지이겠지만 돼지고기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수출을 해서 수입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선이라는 신뢰감을 얻어야 한다. 수출국의 국내 수급 및 가격에 관계없이

수입국에서 원하는 물량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수출선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 우리 나라가 대일 돈육수출에서 국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신뢰감 상실은 좋은 본보기이다.

안정적인 수출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가격안정제 운용이 필요하다. 물론 UR협상이 타결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정부는 측면 또는 간접지원만 하고 민간수준에서 이 제도를 주도적으로 실시토록 해야 한다.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농민 또는 농민단체, 수출업체,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출연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고 국내가격이 일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수출결손을 보전해 주도록 한다. 물론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낮거나 수출시 손해가 없을 경우 수출가격의 일정비율을 적립한다. 이 제도는 현재 캐나다에서도 양돈농가를 위해 실시중에 있다.

둘째, 수출단지 또는 생산과 수출을 전담하는 전문수출업체를 육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생산, 도축, 수출 등을 일관처리하여 비용절감효과를 거두는 한편 규모를 대형화하여 규모의 경제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효과의 거양과 함께 더욱 중요한 측면은 수출규격에 적합한 균일육을 확보할 수 있고 자체적인 수의사고용을 통해 잔류물질 검사 등을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렇게 육성된 수출단지 또는 수출업체는 국내 수급변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도록 가능한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설투자를 위한 금융상 혜택, 그리고 각종 세제상 혜택 등이 주어져야겠다. 이들 업체 내지 단체가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적자수출의 보전을 위해 관세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관세할당(Tariff Quota)배정시 수입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고급부위 수출에 주력

일본의 소비패턴이 고급화되어 고급부위의 선호경향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고급부위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부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종돈개량, 고급부위 수출규격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규격돈 생산 및 사육기술의 보급, 그리고 고급부위 절단(Cutting)기술의 향상과 이에 대한 기능공 육성이 필요하다.

고급부위 중에서도 특히 우리 나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냉장육과 더 나아가서는 신선육 수출에 주력하는 것이 비교우위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물론 냉장육·신선육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며 신선도를 유지토록 하는 저장 및 운반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의 한 방편으로 항구가 있는 지역에 청정사육장 내지 뒤에서 언급하게 될 수출등록공장단지를 설립하여 도축 후 검역없이 곧바로 일본에 수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약품잔류 문제와 방역대책

일본에 돼지고기를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검역기준과 잔류물질 허용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첫째, 수출돈 생산농가는 80kg이후에 항생물질이 없는 비육후기사료를 급여하며 도축 20일전부터는 항생·항균제의 투약을 금지한다. 둘째, 수출업체는 ① 사육상태가 불분명한 원료돈은 수집을 금지하고, ② 계약생산된 규격돈만 구매하며, ③ 약품잔류검사업무를 국가공인기관에서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한편 돈코레라 등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큰 백신개발과 이유자돈의 철저한 예방접종, 자돈시장의 소독권장 등을 통하여 미연에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해외로 부터의 악성 전염병의 침입에 대비한 방역체제의 구축으로 생산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SPF돈 사육 및 이것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라) 수출공장등록제 적극 활용

물론 단시일내에 일본이 요구하는 위생조건 등을 충족시켜 수출공장

으로 지정받기가 곤란한 업체도 없지는 않으리라 본다. 그렇다고 동 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대일 돈육수출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수출공장등록제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확대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신선육과 냉장육 수출을 위해서는 통관절차가 극도로 간소화되어 단시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수출공장등록제는 한국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겠다.

마) 생산비 절감

일본시장에서 주요 경쟁국들과 가격경쟁을 위해서는 현행 돼지고기 생산비를 작게는 20%, 많게는 40%정도 절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의 절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수입사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 제감면 조치가 필요하며 사료품질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둘째, 사육규모의 적정화 및 양돈 계열화가 요구된다. 기존의 부업형 축산규모를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가능한 전업농규모로 확대·육성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규모의 경제성이 최고로 높은 규모는 호당 100~499두로 나타나고 있다(유철호외, 1991). 노동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자본집약도를 높여 사육시설의 현대화 자동화가 필요하다. 또한 양돈 계열화를 추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출돈육의 위생수준 및 품질을 향상하며 안정적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수차례 업계로부터 요구된 도축세, 축산기자재의 '부가세' 및 수입관세 면제가 원가절감차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 넷째, UR농산물협상이 타결되면 정부의 직접보조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감안, 구조조정차원에서의 각종 자금 지원, 예컨대 구조개선자금, 축산시설개선 및 자동화 자금, 유통시설확충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지원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축산폐수처

리시설자금, 가축개량사업자금, 연구사업강화소요자금, 가축방역자금 등도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바) 잔여육 처리 대책강구

등심, 안심과 같이 고급부위를 수출하고 남은 잔여육의 처리도 수출 업계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도체등급제와 부위별 가격차등제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잔여육을 흡수할 수 있는 가공공장의 확대, 가공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바. 인삼 및 인삼제품

① 개 요

인삼 및 인삼제품은 단일 품목으로서는 농산물 중 가장 수출액이 많은 품목이다. 1980년 6,400여만달러 수출에서 1990년에는 1억6천만 달러로 늘어났다<표 4-39>.

백삼은 주로 인삼정 등 제품형태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홍삼은 제품보다는 홍삼형태로 대부분이 대만, 일본, 홍콩 등 동양권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의 인삼은 이른바 '고려인삼'으로서 그 성가와 효능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 40여국에 달하는 국가로 수출되고 있을 만큼 수출선이 다양화되어 있는 편이다.

백삼과 홍삼의 경우 <표 4-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에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 주요 시장이고 그밖에 미국, 서독 등지의 동양계를 대상으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중국계에서는 제품보다는 뿌리 위주로 소비하는 성향 때문에 홍삼과 백삼의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다.

표 4-39 인삼 및 인삼제품의 수출추이

단위: 천달러

	백삼 및 백삼제품					홍삼 및 홍삼제품					인삼음료	기타 ³⁾	총 계
	인삼정	백삼	인삼차	기타 ¹⁾	소 계	홍삼	타브렛 · 갭슐	홍삼분	기타 ²⁾	소 계			
1980	13,530.2	3,099.2	4,839.2	1,465.8	22,934.4	22,721.3	73.0	36.9	1,135.8	23,976	29.8	16,889.5	63,829.7
1985	9,838.7	13,846.2	5,720.2	1,368.5	30,773.6	20,024.9	10,210.2	5,631.8	578.6	36,445.5	950.2	2,852.2	71,021.5
1988	18,734.7	21,924.6	10,031.4	3,498.7	54,189.4	55,413.9	2,818.6	4,355.5	437.6	63,025.6	4,458.7	2,271.3	123,945.0
1989	27,644.7	23,790.5	8,332.4	4,497.1	64,264.7	62,648.9	4,663.9	3,977.0	825.3	72,115.1	4,013.0	4,330.1	144,722.7
1990	45,108.8	18,422.2	9,240.0	3,774.9	76,546.2	68,879.7	4,774.7	2,009.0	1,311.8	76,975.2	4,038.7	3,950.1	161,510.2
1980~90 연평균 증가율	12.8	19.5	6.7	9.9	12.8	11.7	51.9	18.5	1.5	12.4	63.4	-13.5	9.7

1) 백삼분, 타브렛, 갭슐의 합계, 2) 홍삼차, 홍삼정의합, 3) 인삼주, 수삼, 당삼, 봉밀삼, 인삼과자 등.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표 4-40 주요 수출선별 백삼, 홍삼의 수출 추이

단위: 톤, 천달러

		1985		1988		1989		1990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백 삼	일 본	136.5	7,455	233.1	14,649.0	202.4	12,738.1	183.3	11,318.4
	홍 콩	14.8	1,258	18.7	1,768.4	65.8	6,487.8	52.4	4,710.6
	중 국	27	2,669.6	39.7	3,733.0	27.3	2,640.1	11	915
	서 독	12	689	7.8	412.4	10.5	576.0	14.4	603.1
	미 국	20.9	1,169	9	740.9	9.1	792.7	4.5	352.7
	스 페 인	7.6	413.4	6	308.6	8.5	476.5	5.5	295.8
	기 타	3.3	195.2	5.4	312.7	0.9	79.3	1.2	226.6
	계	222.1	13,846.2	319.7	21,924.6	324.5	23,790.5	269.9	18,422.2
홍 삼	홍 콩	36.8	7,542.9	97.5	19,005.4	109.8	26,442.6	141.8	40,790.3
	일 본	11.2	2,590.0	46.5	12,348.1	45.6	12,855.6	52.0	14,423.2
	싱 가 폴	-	-	65.5	16,271.7	67.9	19,430.4	36.3	10,438.9
	미 국	5.7	1,271.5	5.2	1,501.6	6	1,972.2	7	2,235.8
	기 타	46.6	8,621.0	29.4	6,287.1	6.1	1,948.1	2.6	992.2
	계	100.3	20,024.9	244.1	55,413.9	235.4	62,648.9	239.7	68,879.7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인삼정은 주로 홍콩, 일본, 이탈리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4,510만달러 정도가 수출되었다<표 4-41>. 또한 <표 4-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삼차는 미국, 일본, 홍콩, 멕시코 등이 주요 수출선으로서 수출액은 1985년 572만달러에서 1990년에는 924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의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은 고려인삼 효능에 대한 세계적 인 홍보 및 인식제고, 그리고 업체들의 수출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수출전망이 가장 밝고 확실한 농산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주요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 북한, 미국의 부상 및 추격, 그리고 노임·지가상승 등 국내

표 4-41 연도별 및 주요 수출선별 인삼정 수출추이
단위: 100kg, 천달러

	1985		1988		1989		1990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일 본	195.7	5,970.3	161.1	3,096.1	183.1	4,884.2	522.6	13,468.2
홍 콩	1.2	24.6	369.9	9,886.0	506.6	15,900.0	885.3	27,563.8
이탈리아	29.2	417.8	72.7	761.0	38.1	729.9	42.6	858.3
미 국	2.5	55.8	23.7	205.6	15.0	299.6	25.9	322.5
스 페 인	2.5	51.7	9.9	213.9	5.2	102.1	9.8	220.6
태 국	-	-	2.4	55.1	4.9	120.3	6.6	165.1
영 국	53.3	86.8	7.9	181.6	5.8	140.5	6.3	141.5
싱 가 폴	1.2	16.2	7.7	179.5	3.2	69.0	8.3	140.8
기 타	115.5	3,207.5	141.9	4,155.9	194.4	5,399.1	98.3	2,228
계	401.1	9,838.7	797.2	18,734.7	956.3	27,644.7	1,605.7	45,108.8

자료: <표 4-40>과 동일.

표 4-42 연도별 및 주요 수출선별 인삼차의 수출추이

단위: 100kg, 천달러

		1985		1988		1989		1990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인 삼 차	일 본	567.3	2,648.5	1,002.6	4,434.0	834.3	3,259.3	638.3	2,646.1
	미 국	668.7	1,954.3	925.9	2,887.2	763.3	2,581.7	1,208.2	2,825.3
	홍 콩	78.7	217.2	287.2	881.8	269.9	870.5	503.2	1,593.0
	멕 시 코	-	-	35.2	77.2	39.8	120.8	126.3	427.0
	캐 나 다	24.5	87.7	100.7	281.9	60.5	205.8	113.6	208.0
	스 페 인	35.0	121.8	47.2	190.3	24.9	115.1	50.9	192.6
	싱 가 폴	5.2	24.2	42.4	157.5	67.2	140.7	51.0	188.8
	인도네시아	-	-	10.9	38.9	7.4	24.5	69.0	175.0
	이탈리아	34.6	123.5	94.4	251.8	27.2	72.5	30.2	149.3
	기 타	214.9	543.0	254.9	830.8	264.7	941.5	328.4	834.9
	계	1,628.9	5,720.2	2,801.4	10,031.4	2,359.2	8,332.4	3,119.1	9,240.0

자료: <표 4-40>과 동일.

인삼 생산비 증가와 수급불안정 등으로 수출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참고로 세계 인삼생산량은 1987년의 경우 수삼 기준으로 대략 31,166톤으로서 한국(46.3%), 중국(43%), 미국(7.6%), 일본(1.7%) 등이 주요 생산국이다. 동양삼은 열을 내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서양삼은 열을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과 열대지방에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88년의 경우 건삼기준으로 세계인삼수요는 총 3,026톤인데 이 중 동양삼이 77.5%이고 나머지 22.5%가 서양삼이다.

동양삼의 주요 수출국은 물량기준으로 볼 때 1988년의 경우 중국(73.1%), 한국(23.7%), 일본(4.1%), 북한(0.9%) 등으로서 중국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1년도만 하더라도 세계 인삼수출물

표 4-43 주요 수입선별 일본의 인삼 수입추이

단위:톤, 백만엔

		1985		1987		1988		1989		1990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홍삼 (A)	한 국	-	-	-	-	2.0	16.4	0.04	0.3	-	-
	북 한	6.7	126.5	1.5	27.3	6.0	99.6	1.7	18.5	2.5	27.6
	중 국	145.5	1,857.6	180.7	1,517.3	196.1	372.2	1,938.9	353.9	1,574.0	
	홍 콩	6.2	104.6	1.4	10.5	0.3	1.1	3.0	16.1	2.7	8.8
	기 타	-	-	-	-	-	-	-	-		-
	계	158.5	2,088.6	183.6	1,555.1	204.4	1,373.4	376.9	1,973.9	359.1	1,610.4
백삼 (B)	한 국	170.6	2,141.6	266.9	2,461.1	283.9	2,503.4	254.5	2,076.2	246.7	2,167.0
	중 국	31.3	411.3	53.7	484.0	91.7	688.4	133.8	908.2	315.9	1,872.3
	북 한	0.4	4.5	0.01	1.6	0.02	0.2			-	-
	기 타	0.8	24.2	-	-	-	-	-	-	0.5	3.1
	계	203.1	2,581.6	326.3	3,007.5	375.6	3,192.1	388.3	2,984.4	563.1	4,042.4
A+B		361.6	4,070.2	509.9	4,562.6	580.0	4,569.0	765.2	4,958.3	922.2	5,652.8

자료: 일본관세협회, 「일본무역월표」, 각년도.

량의 17.8%를 차지하였던 일본은 저가의 중국인삼과 높은 성가의 한국인삼에 밀려 수출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서양삼의 대부분은 미국과 캐나다가 생산·수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인삼수출추이와 세계인삼 생산 및 교역현황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았다. 다음에는 인삼 및 인삼제품의 수출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서 주요 수입시장의 시장동향, 수입제도, 소비특성, 그리고 수출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¹⁰⁾

② 주요 시장별 시장여건 및 수출전망

가) 일 본

일본은 세계에서 인삼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나 생산은 중국산과 한국산에 밀려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인삼의 대부분은 홍삼으로 가공하여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다.¹¹⁾ 대신 일본 국내 소비의 대부분은 수입인삼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인삼수요는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무공해 천연식품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소비형태는 여성의 사회진출증대 및 여가선호 등으로 탕제식보다는 간편하면서도 인삼의 효능을 얻을 수 있는 인삼제품의 소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주로 뿌리형태로 소비하고 있는 홍콩, 대만과 비교된다.

일본은 홍삼보다는 백삼을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백삼의 수입액은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 및 인삼제품에 관한 국내외 연구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인삼에 관한 거의 유일한 정보원인 한국전매공사의 「한국전매사」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밝힌다.

11) 이처럼 자국인삼을 모두 해외로 수출하고 수입인삼으로 내수를 충족시키고 있는 이유는 일본삼이 성가면에서 일본소비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 할뿐더러 홍콩시장에서 한국산으로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1985년 물량으로 203,1톤, 금액으로 2,581.6백만엔이던 것이 1989년에는 2배이상 증가한 563.1톤에 4,042.4백만엔이었다. 백삼의 주요 수입선은 한국(53.6%), 중국(40.3%) 등이다. 홍삼수입은 백삼보다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입선은 중국(97.8%)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과 홍콩이 소량을 수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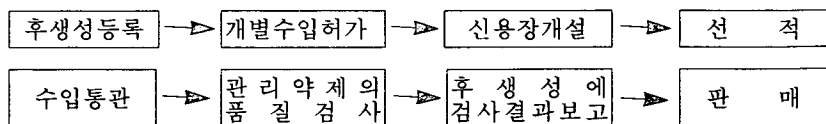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일본시장에서 특히 백삼에 대해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백삼의 대일수출은 정채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백삼수출은 매우 빠르게 신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저가위주의 물량공세를 펴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보겠다.

한편 인삼에 대한 일본의 수입관세는 홍삼, 백삼 및 기타인삼(HS 1211.20)의 경우 기본세율 10%, 협정 및 잠정세율 5%이다. 비알콜성 음료의 원료로서 인삼 또는 인삼엑기스를 포함하는 것(HS2106.90.411~2)은 기본세율 30%, 협정세율 15%, 특혜세율 0~12% 등이다. 단 인삼엑기스는 무관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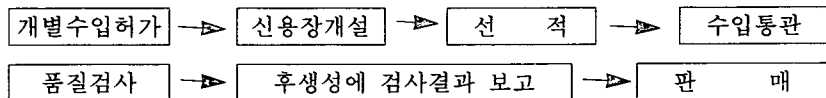
인삼류의 수입과 관계되는 일본의 국내법규는 식물방역법, 약사법, 그리고 식품위생법등이 있다. 우리 나라 인삼은 식품인 경우 식품위생법, 약품용인 경우 약사법에 적용을 받는다. 인삼류의 수입절차는 <그림 4-2>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의 수입이 의약품보다 덜 까다롭다.

그림 4-2 일본의 인삼류 수입절차

- 의약품 수입절차



- 식품류 수입절차



자료: 한국전매청, 「한국전매사」, 1990.

일반적으로 일본의 유통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홍삼 및 홍삼제품의 판매 경로는 ①배치(配置)판매방식, ②의사협동조합을 통한 판매, ③백화점 및 약국판매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배치판매방식에 의한 판매가 일본 홍삼제품판매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판매 방식은 한국의 화장품외판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그 유통경로는 <그림 4-3>과 같다.

일본시장에서 한국인삼은 중국산이나, 일본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한국인삼이 가격경쟁에서 뒤지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성가와 품질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산 인삼은 효능과 포장면에서 매우 월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인삼 및 인삼제품은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인삼수출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4-3 일본의 인삼제품 판매경로(배치판매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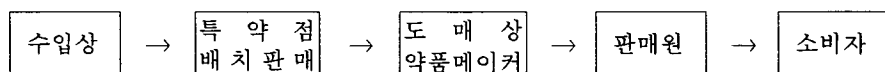


표 4-44 일본시장에서 인삼제품의 가격 1988.

단위: 엔

	한국(홍삼)	한국(백삼)	일 본	중 국
엑기스(30g)	8,000(100)	6,000(75)	2,060(26)	2,400(30)
차(100g)	6,000(100)	4,000(66)	5,000(83)	3,500(58)
분 말(60g)	8,000(100)	7,800(97)	4,500(56)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조사자료.

향후에도 일본에서 인삼수요는 건강에 대한 관심 및 무공해 천연식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 나겠지만 한국의 대일 인삼수출은 중국의 추격을 여하히 뿌리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관련업체들은 보고 있다.

한편, 인삼의 수출수요를 양대수함수로 추정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ext{홍삼: } EX_{GR} = 6.68 - 0.98 P_{di} - 1.06 P_{x_2} + 1.28Y$$

(2.41) (-2.57) (-2.67) (4.49) $R^2 = 0.80$

$$\text{백삼: } EX_{Gw} = -3.35 - 0.18P_{di} + 0.94 P_{xi} - 1.23P_{xj} + 0.85Y$$

(-0.37) (-0.14) (0.46) (-0.05) (0.80)

$R^2 = 0.38$

여기서, EX_{GR} : 홍삼 수출 수요량

P_{di} : 인삼 실질 농가 판매가격

P_{xi} : 홍삼 수출가격

Y : 일본 GNP + 대만 GNP

EX_{Gw} : 백삼 수출수요량

P_{dj} : 인삼실질 농가 판매가격

P_{xi} : 백삼 실질 수출가격

P_{xj} : 홍삼 실질 수출가격

Y : 일본 GNP + 대만GNP

() : t 값

홍삼의 경우 국내농가판매 가격탄성치와 수출가격 탄성치는 각각 -0.98, -1.06으로 나타내 수출가격 또는 농가판매 가격 하락은 수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백삼도 비슷한 결과로 분석되었으나 함수식의 설명력을 낮게 나타냈다. 이는 한국인삼수출을 규제하는 그밖의 다른 요인, 예컨대 경쟁국의 수출가격 등의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 대 만

대만은 주지하는 바와 같은 소위 말하는 신흥공업국가 가운데의 선두주자로서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인삼 수요계층이 상류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되면서 인삼소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더구나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연령층이 늘어나고 있는 바 이들에 의한 수요증가도 적지 않다. 인삼의 소비형태는 중국인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뿌리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홍삼은 성가를 높이 인정받고 있으나, 백삼은 효능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제약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백삼과 경쟁국인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가공을 하지 않은 벌크형태의 생건삼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백삼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복용하는 건강식품 또는 제품원료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대만은 기후가 인삼재배에 적합치 못하므로 수요의 전량을 한국,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인삼과 홍콩, 북한 등 동남아시아에서 밀수입되고 있는 인삼으로 충당하고 있다. 1988년의 경우 대만의 인삼 수입액은 1,726만달러로서 이 중 52.3%가 한국인삼이고 나머지 47.7%는 서양삼이다.

대만에서 인삼은 세관수입세칙상 약용식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인삼제품은 의약제제 또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인삼과 관련이 있는 대만 법규로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이 있는데 한국홍삼 및 백삼 등은 한약재로 분류되고 있다.

그림 4-4 대만의 인삼류 수입절차(한약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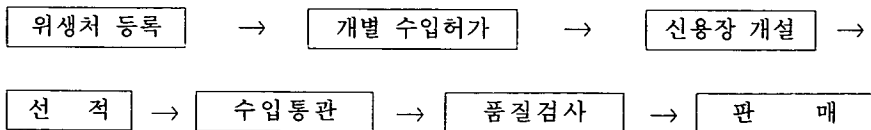


표 4-45 대만 인삼 관세율표

품 목	세 율	비 고
고 려 인 삼	30% → 15%	1988년 2.8 관세 인하
서 양 삼	15% → 7.5%	
인삼함유식품	50%	엑기스, 차, 타브렛, 캡슐
인삼함유의약품	15%	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품목에 한하며 현재 한국산 인삼제품은 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되지 못하고 있음.

한약품으로 분류되어 수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입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위생처에 등록시에는 수출국의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인삼에 대한 수입관세는 고려인삼 30%, 인삼함유제품 60%, 서양삼 15% 정도였으나 1988년부터 고려삼은 15%로 인하되었다(표 4-45).

대만에서 고려삼의 경쟁상대는 지난 1987년 이전까지는 일본삼과 중국삼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삼의 가격인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실로 일본삼 수요는 점차 쇠퇴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중국삼과 북한삼이 한국삼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만시장에서 이들 경쟁국과의 가격경쟁상황을 보면 <표 4-46>과

표 4-46 대만의 홍삼소비자 가격

단위: US\$/600g

구 분	한 국	중 국	북 한
천삼 30지	455 (100)	104 (23)	332 (73)
지삼 30지	365 (100)	87 (24)	269 (74)
양삼 30지	262 (100)	59 (23)	192 (73)

자료: KOTRA 위탁조사(1988. 6).

같다. 북한인삼은 한국인삼에 비해 $\frac{2}{3}$ 가격 정도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중국삼은 한국삼의 23%에 불과하다.

또 하나 대만시장에서 문제점은 밀수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반입된 인삼이 한국 홍삼으로 변조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 홍콩

국제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한 홍콩은 세계 최대의 한약재 집산지이다. 인삼역시 홍콩에서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세계 인삼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대만과 마찬가지로 기후조건상 국내 인삼생산은 거의 없고 연간 약 1900여톤의 인삼을 한국,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중 홍콩에서 소비되는 양은 2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0%이상은 동남아 국가로 재수출되거나 가공, 포장에 의한 위조삼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역시 소비자의 강한 보수성으로 인하여 형태가 크게 변형된 인삼제품은 별로 인기가 없으며, 소비의 대부분은 뿌리인삼이다. 다만 인삼 뿌리가 담겨 있는 인삼주만이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표 4-47 홍콩의 인삼류 수출입 추이

단위: 톤, 천\$

	1986		1987		1988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한 국	113.0	19,782	158.4	26,677	144.1	24,318
미 국	460.2	39,410	685.6	55,081	438.1	53,296
캐나다	69.9	4,321	101.9	8,238	151.6	14,219
일 본	180.3	24,321	170.2	28,537	152.8	25,883
중 국	630.2	31,974	750.0	33,232	892.5	35,352
북 한	7.2	1,744	13.9	2,616	10.6	1,270
기 타	48.6	9,871	93.5	19,988	132.3	20,862
계	1,509.4	131,423	1,973.5	174,369	1,922	175,200

자료: 홍콩정부통계.

1988년의 경우 1억 7,520만 달러의 인삼을 수입한 홍콩의 인삼 주요 수입선은 금액 기준으로 미국(30.4%), 중국(20.2%), 한국(13.9%) 등이다<표 4-47>. 물량상으로는 중국(46.4%), 미국(22.7%), 한국(7.5%)등이 홍콩의 주요 인삼수입선이다.

수입한 인삼의 80%이상을 재수출하는 홍콩의 주요 수출선은 금액기준으로 대만(40.4%), 중국(18.1%) 일본(14.9%) 등이다.

홍콩에서는 거의 모든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다. 인삼도 사후 신고만 갖추면 아무런 제재없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삼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홍삼과 백삼은 야생채소(Crude Vegetable Material)로, 차와 엑기스는 조제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입인삼류에 대한 검사는 공중보건 및 도시서비스 규정(Public Health and Urban Service Ordinance)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평상시에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한 사고가 생겼을 때만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홍콩은 적어도 수입제도상으로는 인삼수출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홍콩시장에서 수출상 최대의 애로요인이라고 한다면 저가의 중국산 인삼의 물량공세와 중국산 및 일본산이 한국삼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는 점이다.

한국 홍삼은 포장, 품질면에서는 최고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가격

표 4-48 홍콩시장에서 원산지 별 인삼의 품질 경쟁력

고 려 산	중 국 산	북 한 산	일 본 산
· 효능에서 월등 · 포장, 디자인면에서도 선명하고 우아하다는 평가. 가장우수	· 포장 디자인 미숙 · 도금기술이 부족하여 장기보관시 캔 부식	· 포장조잡 · 일본산이 북한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기 때 문 소비자 기피 · 마케팅도 미숙	· 자체 브랜드가 없으며 특별한 성가를 인정받고 있지 못함.

표 4-49 홍콩시장의 홍삼 소비자가격

단위: US\$/600g

구 분	한 국	북 한	중 국	일 본
천삼 30지	297 (100)	295 (99)	49 (17)	158 (53)
저삼 30지	218 (100)	244(112)	38 (17)	145 (66)
양삼 30지	154 (100)	128 (83)	32 (21)	137 (89)

자료: Survey Research Hong Kong LTD. (1988. 6).

경쟁면에서는 크게 뒤지고 있다. <표 4-48>은 주요 국별 인삼의 품질 경쟁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한국삼은 효능면에서 월등할 뿐만 아니라 포장, 디자인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중국산은 포장 디자인이 미숙하여 장기간 보관시 캔이 부식하는 사례도 있다.

가격면에서는 한국삼과 북한삼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종일본 및 중국삼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라) 미국

미국에서 인삼은 캐나다와의 접경지역인 위스컨신, 일리노이즈, 인디애나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전체 인삼생산량의 95%이상이 위스컨신 주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1989년도 인삼 생산량은 747.5톤에 이르렀는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대만, 홍콩 등 미국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한다(Farmline, May 1991).

미국의 인삼수요는 주 수요층인 아시아 인구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인삼의 수요는 중국삼이나 미국삼에 비해 증가세가 정체된 편이다.

미국에서 인삼류가 본격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붐이 일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미국에서 인삼제품은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표 4-50 미국의 인삼근 수입추이

단위: 千\$

수입선	1983	1984	1985	1986	1987	1989	1990. 9
한 국	1,571	2,201	2,569	3,288	4,283	2,697	1,674
중 공	558	405	200	-	402	1,921	1,398
홍 콩	1,436	1,308	2,564	2,526	2,970	2,656	1,803
기· 타	28	-	-	14	34	715	1,292
계	3,593	3,914	5,333	5,828	7,689	7,089	6,140

자료: 미국 상무성 통계자료.

자연식품만 취급하는 건강식품점 (Health Food Store)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인삼의 주요 수요층은 생활수준은 중상 정도, 연령면에서는 주로 중년이상, 그리고 인구면에서는 동양계가 차지하고 있다. 인삼소비 목적은 대개의 경우 건강식의 일부로 복용하고 있는데 인삼제품인 인삼차 소비가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다.

미국의 인삼 및 인삼제품수입은 연도별로 기복은 있으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83년 3593천달러 수입에서 1990년 9월 현재 6140천달러로 늘어났다<표 4-50>. 주요 수입선은 금액기준으로 볼 때 한국(38%), 홍콩(37.5%), 중국(27.1%) 등이다. 그러나 물량상으로는 중국(43.8%), 홍콩(26.1%), 한국(19.9%) 순으로 중국의 비중이 월등하다. 이는 중국이 미국시장에 대해 저가의 물량공세를 한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보겠다.

인삼제품인 인삼차의 경우 대만, 인도 등이 최대 공급국이고 한국, 중국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표 4-50>. 이 경우에는 물량상으로는 중국이 최대의 인삼차 공급국이다. 그 밖에 인삼 엑기스는 중국, 한국, 홍콩 등이 주요 수출국이고 인삼차는 인도, 중국, 한국 등이 주요 공급국이다.

표 4-51 미국의 인삼차 수입통계

단위 : kg, US천 \$

	1989		1990(1~9月)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인 도	239,521	992,890	180,580	1,790,046
중 국	50,790	178,240	182,373	651,802
한 국	13,827	174,828	56,657	966,000
대 만	24,710	297,834	65,743	3,363,681
일 본	22,177	272,505	25,285	432,367
기 타	217,062	1,065,157	218,995	1,191,261
합 계	568,087	2,981,454	729,633	8,395,157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 「대미수출유망농산물수출전략」, 1991. P. 125

미국에서 인삼 및 인삼제품은 수입 허가 품목이며, 수입쿼타는 없다. 관세율을 보면 인삼근은 무관세이고, 인삼엑기스는 1.5%, 인삼차는 10%이다.

인삼 및 인삼제품은 FDA에 의해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어 수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인삼이 타 식품에 사용되거나 혼합될 경우 FDA의 식료첨가물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도 인삼은 사과 등과 마찬가지로 FDA의 잔류농약허용치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라벨부착도 기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FDA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미국시장에서 인삼 및 인삼제품의 가격은 중국산이 가장 저렴하고 한국산과 북한산은 이 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표 4-52>, <표 4-53 참조>. 미국산은 한국인삼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높은 인건비와 유통구조의 상이함에서 기인한다.

한편 인삼제품의 경우도 중국산이 저가로 미국시장을 공략하여 한국

표 4-52 미국의 인삼류 소비자가격 (홍삼)

단위: US\$/600g

	한 국	중 국	일 본	북 한
천삼 30지	325 (100)	225 (69)	114 (35)	305(94)
지삼 30지	246 (100)	158 (69)	-	220 (89)
양삼 30지	182 (100)	86 (47)	-	-

자료: KOTRA 위탁조사(1988. 6).

표 4-53 미국의 인삼제품 소비자 가격

단위: US\$

	한국(전매공사)	한 국	중 국
인삼엑기스(30g)	12.50	-	-
인삼차(100g版)	7.80	-	-
인삼드링크(100cc)	-	3.39	3.80

자료: KORTA 위탁조사(1988. 6).

인삼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한국인삼과 중국삼 및 미국삼은 명칭과 특성이 상이하여 서로 품질을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면에서 한국삼이 가장 우수하며 중국산은 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54>.

그러나 중국삼은 한국삼과 모양이 비슷하여 중국인삼이 고려인삼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있다. 백삼의 경우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포장에 불완전하거나 건조가 불충분하여 장기간 보관시 품질이 변질되는

표 4-54 미국시장에서 원산지별 인삼의 품질경쟁력 비교

한 국 산	중 국 산	미 국 산
· 인체의 열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해 주로 흥분제로 사용 · 사계절이 뚜렷해 품질이 가장우수 · 사포닌성분 25가지 발견 · 철저한 품질관리로 최고의 인삼제품 생산	· 모양이 한국산과 비슷해서 한국산으로 둔갑 · 품질면에서는 한국산, 미국산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평가	· 열을 제어하는 효능이 있어 긴장완화에 효능 · 사포닌성분 13~14가지 발견

사례가 발생하여 한국인삼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기도 하였다.

③ 시장별 수출 증대방안

가) 일본

홍삼보다는 백삼제품의 수출이 더 많은 일본시장에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인삼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질서를 유지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최저 수출가격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셋째, 포장 및 디자인의 지속적인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넷째, 시장개척의 일환으로 인삼제품의 실제 취급자인 의사와 약사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인삼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마지막 다섯째, 인삼제품에 대한 일본의 현행 15%의 협정비율을 인하해 주도록 정부차원에서 협상이 요구된다.

나) 대만

대만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삼수출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보겠다.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저가의 중국산 추격과 위조삼 문제이다. 대만에 대해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대만정부에 대해 중국삼 및 일본삼 등이 고려인삼으로 위조, 둔갑 판매되는 것을 엄중 단속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고려인삼의 고유상표 및 품질을 계속 유지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산 등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도록 포장디자인을 개선,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대만 TV, 신문, 잡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고려인삼 및 인삼제품의 홍보를 강화한다. 셋째, 대만에서 인삼의 실제 판매자인 약방, 약국의 약사 및 한의사들에 대해 연구비지원, 세미나 개최, 그리고 각종 포스터 및 관련책자를 배포하여 고려인삼의 효능과 성가를 널리 알린다. 마지막 넷째, 관세 인하요구이다. 현재 대만은 고려인삼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인삼함유식품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의 인하요구가 정부차원에서 있어야 하겠다.

다) 홍콩

홍콩에 대한 인삼 및 인삼제품의 수출 증대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저가의 중국삼을 극복하기 위해 포장 디자인의 개발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이 같은 품질경쟁력 개선과 함께 고려인삼의 성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고가정책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비자로 하여금 고려인삼은 가격보다는 품질과 효능이 구매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고려인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도매업체 내지 대리점을 설치·운영하여 위조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홍콩이 세계적인 인삼 집산지인 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인삼 제품을 개발하여 전시회나 시식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라) 미국

인삼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홍보만 된다면 미국은 인삼의 수입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다. 미국에 대해 인삼 및 인삼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인삼이 식품으로 분류되어 취급되고 있는 바 소비확대를 위해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저가격을 통한 중국삼의 물량공세가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도 중요하겠지만, 고려인삼은 소량 고가위주의 수출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한번 내린 가격은 다시 올려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중국삼이 워낙 저가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가격경쟁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자들도 고려인삼을 고가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협회가 정한 최저수출가격을 준수하고 덤핑수출을 지양하며 건조상태, 재배 연수, 그리고 함량 및 포장상태 등을 검사하여 합격품만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저가·저품질의 한국인삼이 미국시장에 위조되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홍콩 등지에 저가품의 수출을 억제해야 한다. 홍콩 등지의 업체들이 한국산 인삼을 싼값에 매입하여 규격에 미달되는 인삼을 미국내 화교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교란시키고 한국산 인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 밤

① 개 요

밤은 한국 견과류 생산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기여도가 높은 임산물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밤생산량은 1960년대 정부의 유흥지 활용 및 유흥지 식수장려계획에 의해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생산량도 눈부시게 신장하였다. 1975년 9,056톤이었던 밤 생

표 4-55 밤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톤, %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연평균 증가율
생산량 (A)	9,056	42,826	62,950	66,153	72,000	66,000	72,000	58,411	57,047	77,652	78,752	16.5
내 수	9,011	37,111	46,454	51,199	49,030	38,021	48,406	28,358	21,198	37,637	43,990	12.0
수출량 (B)	45	5,715	16,496	14,954	22,970	27,979	23,594	30,053	35,849	40,015	34,762	60.8
B/A	0.5	13.3	26.2	22.6	31.9	42.4	32.8	51.5	62.8	51.5	44.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1989, 1990.

산량이 1989년에는 78,752톤으로 14년사이 거의 아홉배가 증가하였다<표 4-55>.

재배되고 있는 주된 품종은 도입품종으로서 재래종에 비해 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생산이 늘어감에 따라 국내소비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형태가 단순하고 제한되어 있어 수출에 의한 해외 수요 창출이 없이는 국내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 실제 밤의 수급을 보더라도 1983년 이래 전체 밤 생산량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게는 32%, 크게는 63%나 되고 있다. 증가된 생산량이 대부분 수출에 의해 소화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볼 때 향후에도 밤 수출은 국내수급안정을 위해서라도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재 밤나무의 78% 정도가 5~20년생의 최성기에 이른 나무이고 5년생 미만의 어린 나무는 4.7%에 불과하여 향후 최성기에 접어든 나무의 추가적인 대체 식재가 없는 한 생산량은 정체 내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밤의 수출물량이 늘어난 것만큼 수출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1975년 45,000달러에 불과하던 밤수출이 1990년에는 약 9,400만불이었으며 1991년 12월 7일 현재 1억달러를 돌파하였다<표 4-56>. 주

표 4-56 한국의 밤 수출 동향

단위: 톤, 천달러

구 분	1987		1988		1989		1990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 본	35,711	83,623	39,548	90,792	34,311	80,836	37,410	93,407
미 국	59	203	187	447	88	104	273	661
캐나다	72	109	177	410	233	592	70	169
홍 콩	-	-	63	115	-	-	-	-
대 만	7	20	11	28	88	104	24	38
기 타	0	2	29	20	42	167	2	5
계	35,849	83,957	40,015	91,852	34,762	81,853	37,779	94 ,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요 수출시장은 일본으로 우리나라 밤수출의 99.1%를 점하고 있다<표 4-56>. 이처럼 수출시장이 일본에 편중되어 있어 일본시장의 여건 변화에 의해 국내 밤 수급 및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본

표 4-57 세계의 밤 생산 동향

단위: 천톤, %

	1979~81		1985		1986		1987		1988		1989	
중 국	19.8	3.4	83.2	20.6	95.4	21.5	110.0	22.6	95.0	19.8	98.0	19.4
터 키	54.5	9.4	59.0	14.6	70.0	15.7	90.0	18.5	90.0	18.7	117.0	23.2
한 국	76.1	13.2	72.0	17.8	58.4	13.1	57.0	11.7	77.7	16.2	78.8	15.6
일 본	57.1	9.9	48.2	11.9	53.7	12.1	48.2	9.9	48.0	10.0	49.0	9.7
이탈리아	67.2	11.6	38.8	9.6	55.7	12.5	56.7	11.7	52.3	10.9	50.0	9.9
스 페 인	27.5	4.8	27.6	6.8	20.0	4.5	33.7	6.9	30.0	6.2	30.0	5.9
기 타	275.6	47.7	75.9	18.8	91.3	20.5	90.5	18.6	87.0	18.1	82.4	16.3
계	577.8	100.0	404.7	100.0	444.5	100.0	486.1	100.0	480.8	100.0	505.2	100.0

자료: FAO, 「Production Yearbook」, 각년도.

표 4-58 주요국별 밥의 수출동향, 1989

단위: 톤, 백만원

수출국 수입국	한 국		중 국		프 랑 스		이 태 리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일 본	34,311	54,280	28,255	39,274	-	-	72	154
미 국	88	70	133	103	-	-	4,016	6,299
프랑스	-	-	-	-	-	-	1,929	1,050
캐나다	233	398	-	-	-	-	-	-
서 독	-	-	-	-	862	981	948	1,628
이태리	-	-	-	-	479	524	-	-
대 만	88	70	-	-	-	-	375	830
기 타	42	112	9,674	3,061	841	774	84	126
계	34,762	54,930	38,062	42,438	2,182	2,279	7,424	10,087

주: 이태리 계는 수출총계가 아님.

자료: 한국, 프랑스; 자국 무역통계자료,
중국, 이태리; 수입국 무역통계자료.

수입상들의 담합에 의한 가격조작의 가능성도 있다. 수출형태별로는 간밤이 전체 수출물량의 85%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통조림은 15.6%, 생물은 0.2% 등이다.

한편 세계 밥의 생산량은 1989년의 경우 505,208톤으로 이 중 68%에 달하는 342,800톤이 한국을 비롯한 중국, 터키,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8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 제일의 밥 생산국이었으나 1990년도에는 터키가 제1위의 밥 생산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밥의 주요 수출국은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미국과 유럽이 주요 시장이다<표 4-58>.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량상으로는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지만 금액상으로는 한국이 최대 수출국이다.

표 4-59 주요국별 밤의 수입현황, 1989

단위: 톤, 백만원

수출국 \ 수입국	일본(엔:5.3원)		미국(\$:730원)		서독(DM:422원)		대만(元:27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한 국	18,688	67,331	116	235	-	-	-	-
중 국	28,288	44,399	91	146	-	-	-	-
이태리	184	906	2,882	5,778	948	1,920	675	836
터어키	-	-	-	-	439	482	-	-
스페인	-	-	66	99	302	332	33	63
프랑스	-	-	54	114	1,035	1,427	-	-
미 국	63	170	-	-	-	-	-	-
기 타	104	350	177	314	38	41	-	-
계	47,327	113,150	3,386	6,686	2,762	4,202	708	893

주: 각국 무역통계자료.

일본은 생을, 간밤, 통조림 합계이며, 기타국은 통조림 제외.

밤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47,327톤), 미국(3,386톤), 서독(2,762톤) 등이다<표 4-59>. 금액이나 물량상으로 보아도 일본이 세계 최대의 밤 수입국이다. 미국, 서독, 캐나다 등도 밤을 수입하기는 하나 일본에 비하면 극히 소량일 뿐이다. 따라서 한국은 우선 일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주요 밤 수출시장인 일본,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밤 수급 및 교역 현황, 그리고 수출전망 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② 주요 시장별 밤의 수급현황 및 수출전망

가) 일본

일본은 세계 최대의 밤 소비국이자 수입국이다. 밤의 주요 수요처는 감로니 등의 가공업체와 양과자, 일본식 전문점 등인데 건강식품에 대

표 4-60 형태별 일본의 밤 수입 동향, 1990.

단위: 톤, 백만엔

	생 울			간 밤			통 조 립		
	물 량	금 액	%	물 량	금 액	%	물 량	금 액	%
한 국	1,065	750	3.6	15,888	11,307	100	1,735	647	89.2
중 국	28,271	8,372	95.9	-	-	-	17	4	0.9
이탈리아	134	66	0.5	-	-	-	50	105	2.6
미 국	24	8	-	-	-	-	39	24	2.0
기 타	1	1	-	-	-	-	103	65	5.3
계	29,495	9,197	100	15,888	100	100	1,944	845	100

자료: 일본관세협회, 「일본무역월표」, 1990.

한 관심고조로 소비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일본은 연간 8만~9만톤의 밤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요량은 14만톤을 웃돌아 6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에서 밤나무는 감귤, 사과나무 다음으로 재배면적이 넓지만 앞으로 재배면적의 감소, 생산자의 고령화 등으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따라서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일본의 밤수입 형태를 보면 <표 4-60>과 같다. 생울은 중국(95.9%)으로부터의 수입에 거의 의존하는 편이고 간밤은 한국이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간밤이 전량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은 밤을 간후의 시점으로부터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중국산은 품질관리, 보관수준이 아직 수출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밤은 자동수입승인품목이다. 간밤에 대해서는 사전수입신고 및 통관필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 아몬드(5%), 건포도(7%) 등에 대한 수입관세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밤에 대한 수입관세는 대단히 높은 편이다. 생밤의 관세가 20%, 간밤 16%, 그리고

설탕조제한 밤 35% 등이다.

일본에서 한국 밤과 주요 경쟁상대국은 중국이다. 수출가격면에서는 중국산이 한국산에 비해 $\frac{1}{2} \sim \frac{2}{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게 수출되고 있다. kg당 수입가격을 보면(1989년 기준), 한국산은 704엔, 중국산은 296엔이었다.

군밤 및 가정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생밤과 마른 밤은 일본소비자들이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다. 알은 적지만 껍질이 쉽게 벗겨지고 단맛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로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밤은 가공기술, 품질관리, 보관수준면에서 한국이 월등하다.

이렇게 볼 때 한국밤은 가격경쟁력면에서는 중국산에 크게 떨어지지만 간밤의 경우는 품질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 간밤에 대한 수출수요함수식을 추정해 보았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_i = -0.29 - 0.12P_{di} - 2.65P_{xi} + 1.87Y$$

$$(-0.1) \quad (-0.3) \quad (-6.11) \quad (5.32) \quad R^2 = 0.94$$

여기서, EX_i : 간밤의 수출수요량

P_{di} : 밤의 농가 실질판매가격

P_{xi} : 간밤의 실질수출가격

Y : 일본의 GNP

() : t 값

추정된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간밤 수출은 수출가격 및 일본의 국민소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수출가격이 1% 하락하면 수출은 2.65%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간밤의 대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경쟁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가격경쟁력 향상도 수출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미국

미국에서는 밤이 주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겨울철에 주로

표 4-61 연도별 미국의 밤 수입 추이

단위: 톤, 천달러

	1984/85		1985/86		1987/88		1988/89		1989/9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이탈리아	3,658	5,873	3,904	6,508	3,074	5,764	3,413	7,625	3,905	9,068
한국	88	141	165	237	80	248	141	420	167	434
중국	49	116	88	141	52	161	120	147	N. A	N. A
스페인	18	40	16	44	72	149	77	156	5	4
프랑스	112	270	123	351	109	367	50	169	N. A	N. A
기타	91	181	181	367	255	519	131	302	N. A	N. A
계	4,016	6,621	4,477	7,648	3,642	7,208	3,932	8,819	4,183	9,716

자료: USDA.

소비되고 있으며 소비량도 크지 않은 편이다. 주소비층은 동양계, 이탈리아인, 그리고 일부 미국인들인데 아몬드나 헤즐넛 등과 같이 소비는 광범위한 편이 못된다. 최근 밤이 저지방, 무콜레스테롤, 고탄수화물로서 우수한 건강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밤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재배되지는 못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1989년 미국의 밤 생산액은 159,333달러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역시 추정자료에 불과할 뿐 정확한 자료는 못된다.

미국의 연간 밤 수입량은 약 3,000~4,000톤 정도이며, 금액상으로는 1,000만달러가 못되고 있다<표 4-61>. 주요 수입선은 이탈리아(86.5%), 한국(4.8%), 프랑스(1.9%) 등이다. 밤 통조림 등 가공밤은 주로 프랑스와 한국 등이 수출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시장점유율이 95% 가까이 된다.

한국산은 1989/90년의 경우 약 4.8%의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 밤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것은 ① 일본으로 수출하는 밤통조림이 미국인의 기호에는 맞지 않고 ② 수송상 시간

이 많이 걸려 신선도 유지가 곤란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미국에서 밤의 유통구조를 보면 저온저장시설을 갖춘 농산물 저장창고를 보유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업체만이 수입에 참여할 수 있다. 밤 단일 품목만을 취급하는 수입상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여타 과일과 함께 취급하고 있다. 일부 대형마켓이나 대형 도·소매점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창고는 임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밤에 대한 수입관세는 생밤과 말린밤의 구분없이 무세가 적용되고 있다. 수입쿼타와 같은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는데 까다로운 검사제도가 일종의 수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편이다.

미국으로 밤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입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며 두번째 단계로 운송도중 썩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훈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하역이나 수송시 식물보호 및 검역 관련 검역관의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때 검역 비용 등은 물건 소유자나 그 대표가 부담한다. 넷째, 기타 FDA의 검사규격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미국에서 한국산 밤은 프랑스산이나 홍콩산보다는 비싸지만 그밖에 경쟁국인 중국, 대만, 이탈리아산 보다는 싼 편이다. 생밤과 마른 밤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주요 원산지별 밤의 평균수입 가격은 <표 4-62> 같다. 대부분의 농산물에 있어서 중국은 가격이 낮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밤은 예외라 할 수 있다. 미국시장

표 4-62 원산지별 밤의 평균 수입가격

단위: 달러/kg

원산지별	이탈리아산	프랑스산	중국산	홍콩산	대만산	한국산
수입가격	3.42	2.51	3.99	1.82	3.30	3.19

자료: KOTRA, 1991.

에서 중국산 밤이 가장 비싸게 수입되고 있다.

한편 한국산 밤의 품질은 타 경쟁국에 비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럽이나 동북아지역에서 생산되는 밤에 비해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분질(粉質)과 타닌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지 한국산 밤은 가공기술이 크게 발전되지 못하여 생울형태로 수출되고 생밤의 경우 쉽게 건조되는 단점이 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저장법과 가공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③ 수출 증대방안

밤은 임산부산물이기 때문에 수출을 할 경우 외화가득률이 매우 높은 품목이다. 현재 밤생산량의 40%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바 수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국내 밤 가격이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밤의 수출은 농가의 소득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도 국내가격 안정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가) 보다 다양한 가공식품 및 기술개발

한국 밤은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과 미국에서 생밤으로는 중국과 이탈리아 등에 밀려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들 시장에서 한국 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공품 위주로 수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시장에 거의 독점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간밤의 경우도 부가가치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으로 수출을 점차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소비자 기호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고 이어서 국내 관련 연구기관, 예컨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이 제품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공식품개발과 함께 가공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탈각 기술의 개발이다. 거의 모든 업체가 밤을 까는데 소요되는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고 인건비가 비싸다는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계화된 탈각기술·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나) 쌍무협상에 의한 무역장벽완화

일본이 수입밤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16%의 관세를 인하토록 정부 차원에서 일본측에 건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통관시 혼증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재훈증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포장개선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밤의 가장 큰 단점인 빨리 건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캐나다에 수출된 밤이 현지에서 재포장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소비에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야 한다.

라) 수출시기 조절

먼저 일본은 밤 소비가 연중있기 때문에 수출시기를 9월 이후 성수기에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저장 등을 통해 분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9~12월 전후에 소비가 제한되어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가 10월부터 출하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한국은 조기 수확하여 9월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출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농가 또는 수출업체가 창고 등 저장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마) 신시장 개척 활동 강화

현재 한국산 밤은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있지 못하다. 물론 일본시장의 거래선은 계속 유지 내지 확장해 나가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공품 수요의 잠재력이 큰 미주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그밖에 중동지역에 한국산 밤 및 가공품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바) 수출지원체제의 확충

물론 UR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시책은 운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은 물론 각종 금융세제상 혜택도 원칙적으로 지급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규범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시행해야 한다. 기존의 밤 수매자금은 금리상 혜택만 없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 확대하여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수매자금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보다 확충되어 지급되기를 바라고 있다.

시장개척을 위해 적자 수출시에는 시장개척자금을 조성하여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UR 농산물 협상에서도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은 허용대상으로 간주하려는 분위기이다.

아. 버섯류

한국의 버섯류 중 수출품목으로는 양송이 통조림, 송이버섯, 그리고 표고버섯 등이 있으나 현재는 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78년만 하더라도 양송이 통조림은 5천만 달러까지 수출된 경우도 있으나 그 이후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 스페인, 동남아국가들의 부상과 EC 및 미국 등의 수입규제와 같은 외적인 요인과 인건비 및 연료비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기피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1991년 6월말 현재 100만달러 수출에 그쳤다.¹²⁾ 향후에도 양송이 통조림은 이변이 없는 한 경쟁력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송이버섯과 표고버섯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1) 송이 버섯

가) 국내생산 및 수출추이

한국의 송이버섯 생산량은 연도별로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1985년

12) 이처럼 양송이 수출이 크게 줄어들게 된 원인은 1990년 10월 한국양송이 통조림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통관유보조치를 내려 대미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1,313톤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표 4-6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송이버섯은 인공재배를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자연재배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기후조건에 따라 작황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1991년의 경우도 발아기에 계속된 가뭄과 열대야 현상, 그리고 솔잎혹파리의 극심한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¹³⁾

생산된 송이버섯은 산림법 제54조에 의해 “사용자제한 고시품목”으로 지정되어 내수판매는 제한되고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다. 수출실적을 보면 금액상으로 1980년 1,350만 달러에서 1990에는 5,306만 달러로 증가했다<표 4-64>. 송이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이다. 한국 송이 수출의 99%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리

표 4-63 연도별 송이버섯 생산량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생 산 량	349	1,313	311	657	490	954
생 산 액	3,164	26,666	25,555	29,572	32,117	34,401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 요람」, 1990.

표 4-64 연도별 송이 수출 추이

단위: 천달러

구 분	1980	1985	1986	1988	1989	1990
수출액	13,521	32,831	30,272	46,621	60,800	53,061

자료: <표 4-63>과 동일

- 13) 송이는 생산면에서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간지대의 육송수림에서만 자생하고 있으며, 둘째, 인공적으로 재배되지 못하고, 셋째, 연간 2회에 한하여 채취될 뿐이며, 넷째, 비가 내린후 17℃를 유지한 경우에만 생육할 수 있고, 마지막 다섯째, 생육기간이 불과 24시간미만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 등이다.

적으로 인접해 있어 송이버섯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소득수준도 높아 수요도 크기 때문이다.

건조형태로도 일부 수출되기도 하는데 주로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수출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나) 일본의 송이버섯 시장여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한국 송이버섯수출의 최대시장이다. 1988년 일본의 송이버섯 수입액은 10,941백만엔, 물량상으로 1,430톤이었다. 이 중 58.4%인 6,391백만엔을 한국이 수출하였고, 그밖에 북한(15.0%), 중국(11.7%), 캐나다(10.0%) 등이 일본에 송이를 수출하고 있다. 1979년 한국의 일본송이시장 점유율은 95.8%나 되었고 1984년에는 81.7%가 되기도 한 것을 보면 한국의 일본 송이버섯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렴한 북한산 및 중국산이 일본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송이시장에서 한국과 경쟁대상국은 북한, 중국, 캐나다 등이다. 한국은 고가품위주로 수출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중가품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처럼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이 풍부하여 향후 수출증대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에는 일본·북한간 직항로 개설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해 직수출함으로써 선도면에서 한국산과 큰 경쟁상대가 되고 있다. 중국 및 캐나다는 저가품 위주로 일본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가격면에서 한국산은 북한산의 두배, 중국산의 세배 정도가 되어 가격경쟁력은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송이버섯에 대한 일본의 수입관세율은 기본 10%, 협정 5%이다. 또한 양송이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 송이버섯에 대한 수출수요를 양대수 함수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_i = 2.84 - 0.44P_{xi} + 0.70Y$$

$$(0.94) \quad (-2.25) \quad (1.53), R^2 = 37.4$$

여기서, EX_i : 양송이 수출 수요량

P_{xi} : 송이버섯 수출가격

Y : 일본의 GNP

(): t 값

결정계수 R^2 가 37.4로서 함수의 설명력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송이의 수출가격은 송이수출수요와 매우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가격이 10% 하락하면 수출은 4.4%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송이버섯의 대일 수출증대방안

송이버섯은 전적으로 자연재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황이 좋다고 해서 단시일내에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출물량 증대에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송이버섯의 주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북한과 중국이 급격하게 한국을 추격하고 있어 더욱 수출확대는 어려운 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국민소득 향상으로 송이수요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어 향후 수출용 송이확보에도 문제가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한 송이의 수출증대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한 한국 송이버섯의 성가유지가 필요하다. 자연상태로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저온 냉장수송을 도모하고 최단시간내에 수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균일한 품질(규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선별기의 도입자금을 지원해 준다.

둘째, 국내 등급기준을 개선한다. 일본에서는 송이 1등급을 송이 개당 길이가 8cm 이상, 개당 중량 35g 이상되어야 한다. 반면 한국의 송이 선별기준은 1등급의 경우 길이만 8cm 이상만 되면 되어 개당무게

표 4-65 건표고 버섯 수출 추이

단위: 톤, 천달러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홍 콩	218.9	3,808	246.8	4,192	272.4	4,997.4	1,727	3,339.4	89.4	2,623.2	535.7	14,788.0	446.1	13,378.2
일 본	48.0	387	64.6	567	81.4	869.8	66.4	993.8	86.9	1,212.5	212.1	4,028.4	172.2	3,306.0
미 국	84.4	1,321	95.7	1,304	182.1	2,257.6	226.7	4,240.8	125.4	2,523.0	108.1	2,252.0	241.4	3,010.4
싱 가폴	23.5	362	54.0	823	63.7	955.7	117.2	2,330.2	29.4	678.4	69.9	1,609.0	88.8	2,444.0
프 랑 스	19.2	260	19.2	265	36.0	567.3	44.6	892.4	20.9	444.5	13.0	221.9	11.0	213.9
서 독	5.2	89.1	21.9	255.4	17.8	250.0	18.7	289.5	15.7	249.4	5.2	76.8	13.3	170.6
기 타	284.2	3590.9	95	2,806.2	78.5	1,163.6	391.5	7,835.8	416.6	8,674.9	35.1	2,315.6	27.2	440.1
계	683.4	9,818	597.2	8,922	731.9	11,021.4	1,037.8	19,921.5	784.3	16,405.9	979.1	23,699.6	1,000.0	22,962.6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와는 관계없이 길이만 길면 상위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상 요구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등급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시장 개척 및 홍보활동 강화이다. 냉동포장, 가공기술 개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가공품을 만들어 구미시장 수출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시장에 송이버섯의 조리방법의 강연회, 그리고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를 강화한다.

② 표고버섯

가) 개 요

1989년말 현재 한국의 총 버섯생산량은 2,902톤이다. 이 중 표고버섯의 생산량은 약 1,530톤으로 52.7%를 점하고 있다. 세계에서 표고버섯의 주요 생산국은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등이다.

한국의 건표고 수출량은 1990년의 경우 약 1,000톤으로 1980년 대비 46% 증가하였다<표 4-65>. 금액면에서 밤이나 송이버섯의 수출액 보다는 뒤지지만 19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표고버섯은 중요한 외화가 득원이었다.

한국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선은 홍콩, 일본, 미국 등지로 타 농산물에 비해 수출선이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표고버섯은 증가추세에 있고 미국, 서독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이 한국 표고버섯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다. 그러나 대만이 자국 표고농가보호를 위해 표고의 국제입찰을 폐지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한국의 대 대만 표고수출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구나 1988년부터 대만은, 중국, 일본, 한국산 표고버섯에 대해 수입승인서 발급을 중단하여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태이다.

나) 주요 시장별 시장여건 및 수출 증대방안

(1) 일본

일본은 세계 최대의 표고 생산국이면서 수출국이다. 생표고보다는 건표고버섯의 생산량이 여섯배나 많다. 주된 생산시기는 3월부터 4월 까지이며 1989년의 경우 11,065톤의 건표고버섯을 생산하였다.

일본에서 표고버섯은 일본식 비빔밥, 김밥, 냄비요리, 된장국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식품, 자연식품으로 인정되어 선물용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일본의 표고버섯 수출량은 1,568톤, 금액상으로는 7,669백 만엔이다. 주요 수출시장은 홍콩(78.0%), 싱가포르(12.0%), 미국(6.6%) 등이다<표 4-66>. 동년 일본의 표고버섯 수입량은 2,403톤으로 주요 수입선은 중국(88.5%), 한국(9.6%) 등이다<표 4-67>.

표고버섯에 대한 일본의 수입관세는 건표고 15%, 생표고 5%이다. 표고버섯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표 4-66 일본의 표고버섯 수출 현황

단위: kg, 천엔

연도 국명	1988년		1989년		1990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대 만	46,348	265,330	390	2,229	784	784
홍 콩	1,363,748	5,038,679	1,059,653	4,557,612	1,200,530	5,983,778
미 국	128,638	442,656	100,259	419,055	107,091	502,400
싱가포르	240,010	798,207	220,329	843,063	200,793	918,198
기 타	84,742	289,481	58,089	223,291	58,558	263,005
합 계	1,865,486	6,834,353	1,438,720	6,045,250	1,567,756	7,668,165

자료: 일본관세협회, 「일본무역월표」, 각년도.

표 4-67 일본의 표고버섯 수입 현황

단위: kg, 천엔

연도 국명	1988년		1989년		1990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한 국	72,567	150,415	225,636	573,394	174,234	394,034
북 한	370	708	915	1,379	735	799
중 국	1,768,529	2,626,365	1,946,647	2,660,026	2,184,974	3,620,894
홍 콩	23,380	31,612	1,845	3,326	400	232
싱가포르	1,400	12,742	26,067	36,218	43,159	76,162
합 계	1,866,246	2,821,842	2,201,110	3,274,343	2,403,502	4,092,121

자료: 일본관세협회, 「일본무역월표」, 각년도.

일본의 표고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다. kg당 수입가격을 보면 한국산이 2,262엔인데 비해 중국산은 1,657엔 정도로서 중국산이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

소비량 중 50%이상을 수입표고로 충당하고 있는 일본업체들에 의하면 한국산 표고가 색깔, 미각은 일본산에 뒤지지 않으나 향기와 모양새는 일본산에 뒤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선별이 요구된다. 일본에 대해 표고버섯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첫째, 원료수출에서 다양한 가공품 수출로 전환해야 한다. 캔이나 드링크제품을, 그리고 가정용 통조림 등을 개발하여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선별과정에서 철저한 선별을 하고 상품포장에 대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종전에 값 비싼 일본산으로 경영해온 요리점, 가공식품 생산업체 등과 같은 대형 수요처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다지고 수출확대를 꾀한다. 마지막 넷째, 항공기와 페리호를 이용해서 생표고 버섯을 수출한다.

(2) 홍콩

홍콩은 표고생산이 없으나 소비량은 많아 연간 수입량이 6,000여톤

에 달하고 있다. 수입량중 40%는 자국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60% 정도는 일본, 한국 등 동남아시아와 미주지역에 재수출하고 있다.

홍콩의 표고버섯 수요는 계절적으로 큰 진폭이 있는데 구정전후가 연중 최고의 성수기이다. 홍콩의 표고버섯 주요 수입선은 중국(70%), 일본(15%), 한국(5%) 등으로서 중국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4-68>. 이는 중국 운남성(雲南省)에서 출하되는 표고버섯가격이 일본산과 한국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표고버섯을 비롯한 농산물 및 건어물이 중국인 주도 상권에 의해 영위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국별 홍콩에서 kg당 표고버섯의 소매가격은 일본산 160~290HK\$, 한국산 140~220HK\$, 중국산 60~130HK\$ 등으로서 한국산은 일본산보다는 싸게 판매되고 있지만 중국산보다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한국산 표고버섯은 품질면에서 일본산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본산에 비해 균일한 품질을 보이지 못하고 크기가 클수록 향기가 저하되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홍콩은 표고버섯수입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표 4-68 홍콩의 표고버섯 수입현황

단위: kg, 1,000 US\$

연도 국명	1988년		1989년		1990년(1~9월)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중 국	4,878	44,177	3,923	31,998	4,620	35,487
일 본	1,392	40,727	1,080	33,470	900	30,507
한 국	98	2,916	492	13,863	390	12,184
기 타	95	1,189	61	739	22	212
합 계	6,463	89,008	5,556	80,070	5,932	78,387

자료: 홍콩 통계처.

또한 여타 상품과 같이 무관세로 수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며 검역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정 지역산 표고버섯이 오염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식품으로 부적합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보건국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홍콩에 대해 한국의 표고버섯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격 경쟁력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전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다수확품종과 조기생산이 가능한 종균을 개발하는 등 우량종균개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성력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건조기 및 생산시설 도입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별기를 도입하고 선별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수출상품의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포장을 개선하고 신선도 유지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3) 미국

미국의 표고버섯 생산량은 1989/90년의 경우 1,797톤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버섯이 양질의 단백질과 각종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성분 등 인체에 중요한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암,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버섯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계와 프랑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소비되고 있는 표고버섯은 건버섯보다는 생버섯 형태로의 소비가 더 많다. 버섯소비량의 72~74%가 생버섯으로, 그리고 26~28%가 가공용 건조버섯으로 소비되고 있다.

미국의 버섯류 수입통계에서는 표고버섯만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표고버섯이 건버섯의 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건버섯 수입의 70~80%가 표고버섯인 것으로 추정된다. 1989년 현재 미국의 건버섯 수입은 물량상으로 1,057톤, 금액상으로 1,678만달러였다<표 4-69>.

표 4-69 미국의 견버섯 수입 추이

단위: 금액 - 천US\$

수량-88: 파운드,

89, 90: kg

연도 국명	1988년		1989년		1990년(1~9월)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이태리	46,108	887	30,788	1,288	17,923	847
중 국	500,084	2,775	239,804	2,479	299,250	3,248
한 국	354,955	3,282	96,963	1,907	135,230	2,806
대 만	386,164	3,849	179,311	3,910	104,672	2,532
일 본	842,413	6,901	197,389	3,889	240,504	3,983
기 타	417,127	2,949	313,242	3,306	230,563	2,291
계	2,600,851	20,643	1,057,497	16,779	1,028,142	15,707

자료: 미 상무부.

주요 수입선은 대만(23.3%), 일본(23.2%), 중국(14.8%), 한국(11.4%), 이탈리아(7.8%) 등이다. 그러나 물량상으로는 중국이 29.1%의 시장점유율을 보여 저가의 공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고버섯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는 13%이다. 표고버섯은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농무부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며 산지에서 들어올 때 FDA의 사전 검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산 건조버섯은 파리 등의 곤충과 설치류 등의 감염이 없을 경우 수입허가없이도 통관이 가능하다.

한국 견버섯의 미국 통관가격은 대만보다는 낮지만 중국, 일본보다는 높아 가격 경쟁력면에서 열위에 놓여 있다<표 4-70>.

표 4-70 원산지별 견버섯의 kg당 수입가격

단위: US\$/kg

구 분	한 국	중 국	대 만	일 본
1989	19.67	10.34	21.81	19.70
1990	20.75	10.85	24.19	16.56

자료: KOTRA, 1991.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표고버섯 중 일본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질적인 면에서는 한국 제품도 소비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산의 경우 산지로부터의 신속한 소송면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 대해 한국의 표고버섯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 내 한국표고전문수입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둘째, 일본산의 품질경쟁과 중국산의 가격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량종묘의 개발·보급 및 재배기술 및 건조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저가의 중국산 표고버섯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선별작업, 포장기술의 개발, 그리고 수송기간의 단축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 넷째, 표고가 우수한 건강 및 자연식품임을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조리방법을 개발하여 현지에서 소개 활동을 한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은 지금까지의 개방화 추세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교역량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한국의 농산물 수입은 증가할 것이며, 농산물 수출증대의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세계 각국의 각종 수량규제조치가 관세화되고 동식물검역이 통일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면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부여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시장확대는 한국의 농산물 수출증대 가능성을 높여 준다. 한편 한국의 농산물 수입도 증가할 것이며 농업부문은 수입으로 인한 생산조정 과정에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을 경험할 품목도 있게 될 것이다. 생산이 증가할 품목들은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해외시장에 대한 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다.

한국은 다양한 농산물을 수출해 왔다. 인삼, 밤, 잎담배, 버섯류, 돼지고기, 사과, 한약재, 김치, 딸기, 감귤류, 배, 복숭아, 채소류, 화훼류 등은 연간 1백만달러 이상을 수출하여 왔다. 이러한 농산물은 해외 수출수요가 존재하며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경쟁력향상, 생산기반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다. 품목별 경쟁력과 수출증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사과: 한국산 사과의 주요 수출시장은 대만과 싱가포르이다. 가장 큰 잠재적 수입시장은 유럽이다. 주요 수출경쟁국은 일본, 칠레,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한국산 사과의 가격경쟁력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에는 뒤지나 일본에는 앞선다. 그러나 일본산 사과를 제외하고는 한국산 후지와 비슷한 품질 및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가격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품질경쟁력에서는 후지사과를 선호하는 소비층에 있어서 한국산 사과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첫째,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한국산 후지사과는 품질경쟁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점차 가격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어 다른 품종의 사과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수출수요분석 결과에서도 수출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수출가격을 1% 낮출 수 있다면 수출은 4%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격경쟁력향상은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배기술개발과 기계화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생산기반확충 및 품질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단지조성, 경영규모확대는 기계화의 전제조건과도 같은 것이다. 특히 생산단지조성으로 수출을 위한 수집, 선별(등급화), 포장 등 유통의 효율성제고는 물론 기술보급, 병충해방제, 전문화(품종별), 품질향상을 이룩해야 한다. 후지사과의 품질은 우수하다는 평이지만 유럽이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껍질이 얇고 착색도가 높은 중소형사과 생산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시장의 개척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중점적으로 개척되

어야 할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다. 특히 미국의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최대 수입시장인 유럽시장의 개척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국내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개척시장인 동남아시아에 대한 신용과 수출선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해외시장정보의 수집·분산체계의 확립, 유통시설의 개선, 포장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배: 한국산 배의 주요 수출시장은 대만, 싱가포르, 미국이다. 이들 3개국에 대한 수출은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이다. 배의 최대수입국은 서독이며, 이태리, 영국, 프랑스 등 EC국가들이 주요 수입국이다. 배의 주요 수출국은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 이태리 등이다. 그러나 동양배는 서양배와 품질의 차이가 커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산 신고배의 주요 경쟁국은 일본이다. 한국산 신고배는 일본의 20세기배와 비교할 때 품질면에서는 비슷하며 가격은 저렴하여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 동양배 생산을 늘리고 있는 칠레의 경우 수출가격은 한국보다 낮으나 품질면에서 한국에 뒤지고 있다.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사과와 유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사과편 참조). 그러나 사과의 경우와는 달리 배의 수출수요는 수입국의 소득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의 경우 사과보다 시장차별화가 강해 동양배의 품질이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원가절감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노력과 더불어 품질 고급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서양시장에 한국산 배를 수출하기 위해 시식기회 제공을 위한 저가수출, 껍질두께와 색상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포장기술의 향상이 요구된다.

밀감: 밀감의 최대 생산국은 일본으로 세계 밀감생산량의 23%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량은 연간 2만톤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최대 수출국은 스페인으로 세계 밀감 수출량의 60%를 수출한다. 한국의 밀감은 주로 캐나다로 수출되며, 수출경쟁국은 스페인, 모로코, 대만, 미

국, 일본이다. 품질은 각국이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밀감은 껍질이 얇고 약간의 신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 생산국인 일본의 밀감생산이 감소하고 있어 시장확대 전망이 밝다. 스페인, 모로코, 일본 등 주요 밀감수출국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생산성향상, 가격경쟁력제고 등의 문제점은 사과와 배의 경우와 같다. 밀감수출에 있어서는 일본의 밀감생산감소와 수출부진을 고려할 때 일본이 이미 개척해 놓은 캐나다와 미국시장의 대체확보에 나서면 수출증대에 있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한국산 밀감은 껍질이 얇아 먹기에 편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운송 및 보관에 있어서는 단점이 될 수 있으므로 유통기술개발로 단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가공이 편리하고 독특한 가공상품이 창출될 수 있으므로 가공수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화훼류: 화훼류의 주요 생산국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 서독, 프랑스 등이다.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 콜롬비아, 이스라엘이며, 주요 수입국은 서독,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등이다. 결국 주요 수입시장은 북미주, EC, 일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화훼류 수출시장은 일본, 네덜란드, 미국이 주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호주와 캐나다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화훼류의 국제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인접국인 일본의 화훼류 수입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 해외시장 전망은 밝다. 주요 경쟁국은 네덜란드, 콜롬비아, 대만, 태국, 이스라엘이다. 일본시장에서의 경쟁국은 네덜란드, 대만, 태국이다. 가격경쟁력은 크게 뒤지지 않으나 품질경쟁력은 낮은 상태이다.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반영구적 온실시설의 확충, 생산의 단치화와 같은 생산기반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음은 품질향상이 요구된다. 화훼류는 고급소비단계에 있으며 가격보다 품질이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적으로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여 생산하고 수출용 화훼생산자

에 대한 수출유인을 부여해야 한다. 그밖에 화훼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육성, 신상품개발(한국 고유의 꽃을 상품화하는 것 등), 전문인양성 등도 해결되어야 할 커다란 과제중의 하나이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 수출가격안정대 운용, 수출단지 또는 수출전문업체 육성, 국내수급안정화 등을 통한 일관성있는 수출체제를 확립하고, ② 종돈개량, 규격돈 생산, 사육기술의 보급, 그리고 고급부위절단기술의 향상 등을 통한 고급부위수출에 주력하며 ③ 약품 잔류문제와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대처하여 시행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생시설개선, 도축장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수출공장등록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삼: 일본지역에 인삼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① 신규 인삼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②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수출가격제의 도입을 검토해 보며, ③ 포장 및 디자인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청되고, ④ 인삼제품에 대한 현행 15%의 협정세율의 인하를 정부차원에서 협상할 필요가 있다. 대만에 대해서는 ① 중국삼과 일본삼이 고려삼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만정부에 대해 엄중단속을 요구하고, ② 대만의 신문, TV, 잡지 등에 고려인삼의 효능을 계속 홍보하며, ③ 고려인삼 15%, 인삼함유식품 50%의 관세를 인하해 주도록 정부차원에서 요구한다.

홍콩시장에서 한국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가의 중국삼을 공략하기 위해 포장, 디자인의 개발을 통해 품질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고려삼의 성가를 유지하기 위해 고가격정책을 견지하며 고려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문도매업체 또는 대리점 등을 설치, 운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미국시장에 대해서는 ① 인삼이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② 고가격정책을 견지하여 고려삼

의 성가를 계속유지하며, ③ 수출질서확립을 위한 행정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밤: 밤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① 저가의 중국산과 경쟁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을 개발하고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탈각기술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② 밤에 대한 일본의 16%라는 높은 관세를 인하하고, 미국이 통관시 밤에 대해 훈증을 요구하는 것을 생략 내지 간소화해 줄 것을 정부차원에서의 쌍무협상을 통해 요구해야 한다. ③ 미주지역에 밤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쉽게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포장방법, 기술의 개선이 필요하며 ④ 성수기 등을 피한 수출시기조절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버섯류: 송이버섯의 수출증대 방안으로는 ① 저온 냉장수송, 유통구조개선, 선별작업철저 등을 통한 품질경쟁력제고, ② 국내 등급기준의 합리화, ③ 시장개척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일본에 대한 표고버섯의 수출증대방안으로는 ① 캔, 드링크제품과 같은 다양한 가공품개발·수출, ② 철저한 선별 및 포장개선, ③ 대형 수요처와 장기공급계약체결 ④ 항공기 및 페리호를 이용한 생표고수출을 도모하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대 홍콩에 대한 표고버섯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 품종개발, 성력재배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② 선별의 철저와 수출상품 품질검사 강화 ③ 포장개선 등이 필요하다. 미국에 대해서는 ① 미국내 한국표고전문수입업체를 발굴, 육성하며 ② 우량종균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한 경쟁력제고 ③ 선별 및 포장철저가 요구된다.

부표 1 우리나라 농산물수출 지역 집중도(1990년도 기준)

단위: %

품 명	수출금액 (천\$)	수 출 지 역	수출지역 집 중 도
갯지렁이	21,697	일본(83.4), 프랑스(7.0), 이태리(4.2), 스페인(2.7), 기타(2.7)	83.9
돼지고기	29,476	일본(100.0)	100.0
면양고기	21,851	일본(95.7), 파지(2.2), 대만(1.5), 기타(0.6)	95.7
양 파	21	대만(84.4), 미국(6.2), 기타(9.3)	85.1
양 배 추	391	일본(50.5), 대만(15.9), 홍콩(4.9), 기타(29.7)	60.4
배 추	222	홍콩(31.3), 오만(11.2), 대만(6.8), 기타(50.7)	61.0
무 우	362	홍콩(67.4), 싱가포르(9.1), 일본(7.4), 기타(16.1)	70.3
송이버섯	53,061	일본(99.9), 프랑스(0.1)	99.9
표고버섯	22,962	홍콩(44.6), 미국(24.1), 일본(17.2), 싱가폴(8.9), 기타(5.2)	54.5
간 밤	88,550	일본(99.9), 미국(0.1)	99.9
감 굴	174	캐나다(85.2), 싱가포르(9.0), 괌(2.6), 기타(3.2)	85.8
사 과	21,287	대만(93.1), 싱가포르(6.0), 괌(0.3), 기타(0.6)	93.3
배	6,799	대만(33.0), 싱가포르(30.8), 미국(17.1), 인도네시아(8.0), 기타(11.1)	50.2
딸 기	11,957	일본(100.0)	100.0
채소종자	7,994	일본(88.2), 방글라데시(4.3), 미국(2.3), 파키스탄(2.0), 기타(3.2)	88.4
백삼(본삼)	11,867	일본(61.4), 홍콩(28.9), 서독(3.7), 대만(2.4), 기타(5.6)	68.2
홍삼(본삼)	68,880	홍콩(59.2), 일본(21.7), 싱가포르(15.0), 미국(2.7), 기타(1.4)	64.9
인 삼 정	42,882	홍콩(58.2), 일본(32.6), 이태리(2.8), 기타(6.4)	67.1
굴통조림	33,771	미국(73.1), 호주(9.5), 캐나다(12.0), 멕시코(1.1), 기타(4.3)	74.8
김치통조림	14,776	일본(57.9), 스페인(4.7), 괌(3.6), 마리아나(3.7), 기타(30.1)	65.6
밤통조림	4,757	일본(97.6), 미국(1.7), 기타(0.7)	97.6
감 굴 류	10,075	미국(76.9), 캐나다(5.6), 서독(4.9), 네덜란드(0.3)	78.2
인 삼 차	9,240	미국(37.9), 일본(19.9), 홍콩(15.5), 멕시코(4.0), 기타(22.7)	51.0
과즙음료	13,841	홍콩(44.3), 싱가포르(17.1), 대만(15.0), 미국(9.6), 기타(14.0)	52.6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0.

부표 2 우리나라 수산물수출 지역 집중도(1990년도 기준)

단위: %

품 명	수출금액 (천\$)	수 출 지 역	수출지역 집 중 도
갯 지 령 이	21,697	일본(83.4), 프랑스(7.0), 이태리(4.2), 스페인(2.7), 기타(2.7)	83.9
붕 장 어 (활어신선, 냉장)	15,556	일본(100.0)	100.0
붕 장 어 (냉 동)	4,920	일본(98.1), 기타(1.9)	98.1
가 자 미 류 (활어신선, 냉장)	14,015	일본(100.0)	100.0
삼 치(신선, 냉장)	19,828	일본(100.0)	99.7
삼 치 (냉 동)	10,252	일본(99.7), 기타(0.3)	98.8
가자미류 (냉동)	12,336	일본(98.8), 기타(0.2)	72.5
날개다랑어(냉동)	7,933	일본(67.1), 사모아(26.7), 기타(6.2)	
황 다 랑 어 (냉동)	24,429	일본(52.9), 태국(24.8), 인도네시아(9.8), 미국(9.4), 기타(3.1)	60.1
가다랑어 (냉동)	37,091	태국(67.1), 미국(12.0), 인도네시아(9.9), 일본(6.4), 기타(4.6)	69.3
눈다랑어 (냉동)	65,389	일본(89.9), 기타(1.1)	98.9
기타다랑어류(냉동)	159,952	일본(95.1), 미국(2.9), 태국(0.9), 기타(1.1)	95.2
고 등 어 (냉동)	7,874	싱가폴(17.2), 캐나다(14.2), 일본(7.4), 온드라스(6.4), 기타(45.2)	51.3
돔 (냉 동)	12,149	일본(69.0), 이태리(21.7), 기타(9.3)	72.9
어 란 (냉 동)	26,208	일본(100.0)	100.0
피레트(신선, 냉장)	21,762	일본(100.0)	100.0
명태피레트(냉동)	24,305	미국(70.7), 서독(12.8), 일본(9.4), 기타(7.1)	72.8
붕장어피레트(냉동)	49,289	일본(99.1), 기타(0.9)	99.1
가자미피레트(냉동)	20,298	미국(83.7), 일본(10.8), 기타(5.5)	84.6
기타피레트(냉동)	30,180	일본(52.7), 미국(33.9), 기타(13.4)	64.1
청 어 (염건훈제)	11,555	일본(100.0)	100.0
새우와 보리새우 (냉 동)	27,691	일본(54.1), 미국(18.2), 수리남(6.8), 대만(5.3), 기타(15.6)	59.8
게 (냉 동)	13,973	일본(55.9), 미국(35.0), 프랑스(8.8), 기타(0.3)	66.5
게(생것, 신선, 냉장)	18,084	일본(100.0)	100.0

부표 2(계속)

품 명	수출금액 (천\$)	수 출 지 역	수출지역 집 중 도
굴(생것, 신선, 냉장)	20,678	일본(99.2), 기타(0.8)	99.2
굴 (냉 동)	7,459	미국(53.4), 일본(27.0), 싱가포르(9.0), 홍콩(6.9), 기타(3.7)	61.0
오징어(냉동)	16,744	일본(67.0), 미국(12.6), 스페인(11.2), 벨지움(4.3), 기타(4.9)	69.4
문 어	6,983	일본(100.0)	100.0
(산것, 신선·냉장)			
문 어 (냉 동)	8,701	스페인(63.0), 일본(32.1), 기타(4.9)	71.0
피 조 개	69,621	일본(99.6), 기타(0.4)	97.6
(산것, 신선·냉장)	7,350	일본(100.0)	100.0
새 조 개			
(산것, 신선·냉장)	10,625	일본(100.0)	100.0
개 아 지 살			
(산것, 신선·냉장)	38,950	일본(99.0), 기타(1.0)	99.0
바 지 락			
(산것, 신선·냉장)			
성 계	31,884	일본(100.0)	100.0
(산것, 신선·냉장)			
새 조 개 (냉동)	9,597	일본(99.9), 기타(0.1)	99.9
바 지 락 (냉동)	4,502	일본(96.1), 기타(3.9)	96.1
개 아 지 살(냉동)	9,506	일본(98.2), 기타(1.8)	98.2
피 조 개 (냉동)	12,238	일본(97.7), 기타(2.3)	97.7
성 계 (냉동)	8,919	일본(100.0)	100.0
미역 (염장, 건조)	71,784	일본(92.5), 미국(2.1), 대만(1.2), 기타(4.2)	92.6
툰 (건 조)	26,119	일본(100.0)	100.0
취 치 포	39,336	일본(96.3), 기타(5.7)	96.3
게 맛 살	84,428	프랑스(28.9), 스페인(28.0), 미국(15.9), 벨지움(4.4), 기타(22.8)	49.1
굴 통 조 립	33,771	미국(65.2), 캐나다(15.3), 호주(12.9), 기타(6.6)	68.5
홍 합 통 조 립	7,064	스웨덴(24.8), 호주(18.4), 캐나다(12.1), 미국(11.9), 기타(32.8)	48.1
조 미 오 징 어	42,434	일본(94.4), 미국(5.4), 기타(0.2)	94.6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0.

부표 3 주요 사과 수출국별 수출현황

단위: 수출량=천톤, 수출액=천\$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프랑스	653	230,687	620	309,738	762	387,617	707	371,860	681	370,517
칠레	225	75,716	350	127,441	331	141,887	347	129,100	326	110,400
헝가리	300	49,634	429	79,324	396	69,764	340	57,219	318	44,814
이태리	353	111,768	307	151,913	347	163,918	340	167,823	280	131,911
미국	191	101,647	189	107,561	228	107,049	306	148,340	276	138,825
남아공	200	48,858	209	87,900	190	82,300	221	98,000	225	89,000
아르헨티나	200	57,494	134	65,490	202	66,850	208	56,466	215	54,000
네델란드	164	72,812	172	99,818	191	122,635	200	137,070	200	115,519
뉴질랜드	147	51,924	156	62,090	166	66,869	120	64,951	174	94,471
벨-룩스	115	49,155	103	59,132	138	85,574	144	92,311	156	88,755
폴란드	205	33,363	224	38,030	81	12,400	85	14,117	80	12,500
카나다	48	23,279	64	30,557	64	27,625	61	28,039	76	25,619
터키	70	16,703	55	12,813	58	12,699	65	16,301	73	23,047
중국	55	19,673	48	21,207	60	25,880	88	39,408	65	25,302
체코	45	1,815	48	2,648	6	472	33	1,884	65	3,734
독일	41	13,188	44	15,965	42	18,246	36	17,915	50	20,063
한국	3	2,281	6	4,363	17	15,875	11	16,856	7	14,900
일본					1	2,416	1	2,380	1.8	5,465
세계	3,302	1,060,167	3,542	1,407,841	3,601	1,533,625	3,620	1,594,554	3,569	1,483,173

자료: FAO, 「Trade Yearbook」, 1987, 1989.

부표 4 주요 배수출국별 수출현황

단위: 수출량=천톤, 수출액=천\$, 수출가격=\$/톤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량	수출액	수출가격	수출량	수출액	수출가격	수출량	수출액	수출가격	수출량	수출액	수출가격	수출량	수출액	수출가격
아르헨티나	77	27,220	354	51	23,115	453	97	43,635	450	116	50,794	438	130	56,000	431
중 국	60	20,070	335	51	19,609	384	53	21,263	401	127	69,376	546	110	57,000	518
프 랑 스	92	31,284	340	58	38,325	661	117	64,169	548	70	49,892	712	94	59,223	630
네덜란드	68	32,724	481	70	48,283	690	70	49,448	706	90	63,670	707	87	74,298	854
미 국	28	16,856	602	38	21,311	561	40	19,067	477	54	26,145	484	83	39,994	482
이 태 리	86	42,227	491	76	56,935	749	74	62,583	846	83	71,344	860	79	74,836	947
칠 레	33	11,418	346	45	25,884	575	45	24,412	542	63	28,900	459	74	33,900	458
남 아 공	47	26,000	553	47	25,600	545	69	41,000	594	80	50,000	625	67	43,000	642
벨 룩 스	41	17,626	430	43	25,518	593	40	25,810	645	56	34,306	613	53	43,731	825
스 페 인	30	8,681	289	33	11,796	357	49	19,582	400	32	21,630	676	43	27,956	650
유 고	5	1,279	256	9	2,027	225	11	3,936	358	10	3,736	374	21	6,752	322
호 주	31	16,467	531	35	19,934	569	36	23,052	640	40	25,160	629	21	15,375	732
일 본	14	17,609	1,258	12	20,844	1,737	13	24,914	1,916	12	24,818	2,068	9	19,787	2,199
한 국	3	2,490	1,163	5	4,893	979	5	6,072	1,214	6	8,200	1,367	5	6,900	1,380
세 계	662	295,007	446	626	369,947	591	764	454,233	595	887	555,270	626	928	589,347	635

자료: FAO, 「Trade Yearbook」, 1987, 1989.

부표 5 국별 감귤류(Citrus) 수입 현황

단위: 천톤, 천 \$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서독	696	237,850	805	339,574	872	405,774	818	403,307	830	420,556
동독	125	53,000	150	68,000	130	65,000	135	72,000	125	65,000
프랑스	800	307,622	930	400,847	940	452,153	964	480,229	912	465,898
영국	406	163,801	476	196,107	485	224,443	535	254,993	515	254,382
네델란드	393	139,435	441	161,784	462	191,257	488	214,501	500	206,089
캐나다	259	113,057	287	125,479	285	139,232	251	160,884	270	155,843
소련	366	142,381	331	156,883	294	160,615	288	150,605	240	111,961
벨룩스	190	76,085	198	88,926	211	107,220	218	111,257	221	110,946
사우디	144	44,417	103	28,475	89	26,519	259	75,228	200	60,000
홍콩	143	92,372	156	101,413	160	104,313	166	116,033	167	116,215
일본	112	92,487	118	99,283	124	121,809	116	127,969	129	135,277
스웨덴	98	49,335	114	67,126	119	77,529	109	75,796	112	75,056
오스트리아	95	31,763	104	42,760	107	53,099	104	56,533	105	51,490
스위스	100	52,793	107	73,814	109	87,133	105	89,636	102	80,505
핀란드	66	33,039	54	30,559	84	53,759	75	53,191	77	53,349
아랍에미리트	45	18,000	51	22,000	79	27,000	80	28,304	70	24,000
세계	4,881	2,015,385	5,233	2,385,875	5,427	2,728,593	5,555	2,903,433	5,344	2,787,281

자료: FAO, 「Trade Yearbook」, 1987, 1989.

부표 6 국별 감귤류(Citrus) 수출 현황

단위: 천톤, 천\$

	1985		1986		1987		1988		1989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스 페 인	1,335	441,657	2,354	883,200	1,948	930,609	1,885	1,011,486	1,848	979,725
모 로 코	562	147,744	572	189,193	485	173,699	579	195,886	610	160,000
미 국	412	242,043	417	235,867	403	227,254	357	201,900	392	234,645
남 아 공	284	88,000	300	108,000	323	127,000	335	118,000	336	120,000
이스라엘	408	121,090	378	117,035	392	140,408	358	120,681	313	115,000
쿠 바	261	87,882	264	94,911	276	84,060	260	78,232	244	72,725
터 키	102	26,677	102	27,365	112	27,125	164	46,226	170	61,935
이 집 트	161	86,541	100	56,166	167	158,258	97	92,838	158	158,088
이 태 리	170	58,276	202	75,517	159	63,522	188	56,312	155	63,680
그 리 스	263	63,959	263	65,887	202	52,589	95	30,522	140	45,200
네델란드	85	42,422	88	45,394	89	51,611	109	67,782	138	74,470
중 국	67	32,320	79	41,614	91	47,522	99	51,760	101	48,240
브 라 질	79	19,793	95	18,476	87	18,676	85	18,158	98	19,282
아 르 헨	57	14,968	51	15,652	68	19,927	82	23,355	97	25,000
레 바논	58	14,500	45	13,000	40	12,000	38	12,000	52	16,500
일 본	25	16,889	18	16,211	23	18,006	23	19,814	21	19,346
세 계	4,928	1,692,787	5,940	2,212,479	5,464	2,382,580	5,302	2,368,631	5,360	2,407,470

자료: FAO, 「Trade Yearbook」, 1987, 1989.

참 고 문 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0.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주요통계」, 1990.
- _____, 「과수편람」, 1988.
- _____, 「화훼편람」, 1987.
- _____, 「화훼산업현황」, 1988, 1991.
- _____, 「농림수산물통계연보」, 1980~90.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농업정보」, 각호.
- 농어촌개발공사, 「한국화훼산업과 세계시장」, 자료 제58호, 1986.
- 대한무역진흥공사, 「대미수출 유망 농산물 수출전략」, 무공자료 91-43, 1991.
- _____, 「수출유망 농산물 해외시장」, 무공자료 91-66, 91-67, 1991.
- 대한무역진흥공사, 「농산물 수출유망품목검토」, 1991.
- 박내춘, 「축산업 관련 조세의 실상과 대책」, 「월간양돈연구」, 1989. 6. pp. 32~37.
- 유철호 외,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 방안」, 연구보고 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 윤석구 외, 「광주, 전남지역 특산물 국내외시장조사」, 광주은행, 1991. 9.
- 윤석두, 「돈육 수출현황과 대책」, 「월간 양돈연구」, 1990. 2. pp. 45~50.
- 이영석·김정호, 「화훼산업 육성방안」, 연구보고 2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이재옥 외, 「농림수산물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1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12.
- _____, 「돈육의 수출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1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 _____,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추이와 전망」, D5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11.
- 이중웅·전창곤, 「사과·감귤 농가의 생산성 제고방안」, 연구보고 2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최세균·권오복,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 농업」, 연구보고 2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8.
- 한국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 「농림수산물 수출통계자료」, 제16호, 199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 수급표 1989」, 1990.
- 한국전매청, 「한국전매사」, 각년도.
- 한백용, “돈육 수출촉진방안,” 「월간 양돈연구」, 1990. 1. pp. 114~119.
- 허길행 외, 「임산물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1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12.
- 허신행, 「한국축산의 경제분석」, 연구총서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 _____, “기술의 시대와 21세기 농업,”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2권 제2호, 1989. 12. pp. 167~176.
- 日本貿易振興會, 「日本貿易月表」, 각년도.
- 農林水産大臣官房調査課, 「食料需給表」, 각년도.
- _____, 「農林水産物の貿易」, 각년도.
- 澁谷佑彦, “世界食肉の現状と短期見通し,” 「世界の畜産」, 1991년 2월호.
- 藤原一也, “輸入食品の安全性と検査體制,” 「農産物市場研究」, 第32號, 1991. 4. pp. 28~32.

Cater, C.A. and Gardiner, W.H., *Elasticities in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1988.

FAO, *Production Yearbook*, 각년도.

——, *Trade Yearbook*, 각년도.

Krissoff, M, *et al.*,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ERS, USDA, Staff Paper, No AGES 9042, 1990.

Leamer, E.E. and Stern, R. M., *Quantitive International Economics*, 1970.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각년도.

Telser, L.G., "The Demand for Branded Goods as Estimated from Consumer Panel Data," *Rev. Econ. and Statist.* Vol 44, 1962.

Tyszynski, H., *World Trade in Manufactured Commodities 1899~1950*, The Manchester School, 1951.

USDA, *Vegetables and Specialties*, 1990/91.

Wilson W.W. *et al.*, "Importer Loyalty in the International Wheat Market," *J. of Agri. Econ.*, 1990.

연구보고 244

UR 이후 주요 농산물 수출 증대방안

해외시장부문

적은날 1991. 12. 펴낸날 1991. 12.

발행인 허 신 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적은곳 (주)문 원 사 739-391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